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서울에 신축된
주거용 한옥의 건축적 특성
-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성하

2000년대 이후 서울에 신축된

주거용 한옥의 건축적 특성

-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봉 희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성 하

김성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옥 관련 정책의 변화가 시작된 2000년부터 서울에는 한옥의 신축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신축된 주거용 한옥은 변화한 현대생활방식, 기술, 재료, 제도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기존 연구는 1920~60년대까지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근대도시한옥이 증·개축을 통해 변화된 과정에 집중하였다. 이는 정해진 틀 안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어렵다. 그에 반해 신축은 적극적으로 칸의 크기부터 배치 등 모두 새롭게 계획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같은 목가구조 방식으로 구축되었지만 변화된 공간구성과 형태를 한 신축도시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서울시에서 한옥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축된 한옥들을 대상으로 도면자료와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하였다. 먼저, 서울의 신축도시한옥은 제도에 따라 ‘한옥밀집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교를 통해 신축도시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근대도시한옥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두 지역을 비교해본 결과 한옥밀집지역보다 기타지역에서 더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을 살펴보면, 대지면적의 차이로 기타지역에서 칸 크기가 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칸수도 증가하였다. 반면 도리 방향은 두 지역이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평면형태는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이 두 지역에서 모두 나타났지만, 기타지역에 더욱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게다가 기타지역은 대체로 퇴칸집과 겹집의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한옥밀집지역은 홑집형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기타지역에서는 지하층과 2층으로 적극적인 공간이 확장이 있지만, 한옥밀집지역은 지하층만 나타났다. 그리고 처마 밑 공간의 활용, 스킵플로어 등 형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기타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로 인해 한옥밀집지역보다 칸이 다양한 방향으로 돌출된 입체적인 형태가 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은 기타지역보다 더 불규칙한 대지 형태와 건축선 등과 관련된 이격거리로 인해 외부 공간이 여러 개로 구성되었다. 기타지역은 주차장, 진입마당, 선큰마당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외부 공간이 조성되었다.

내부 공간은 대체로 1층 몸체에 위치한 거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이 날개채, 2층, 지하층으로 배치되었다. 하나의 건물로 통합되고 동선이 모두 내부에서 연결되었다. 이를 위해 거실을 중심으로 꺾음부에서 실이 칸을 분할하여 배치하거나 한 칸이 되지 않는 크기의 복도를 삽입하여 공간을 연결하였다. 특히 기타지역에서는 현관과 복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욕실, 다용도실 등의 부속실들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칸과 관계없이 실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통합된 거실, 부엌, 식당의 구성이 칸과 결합하면서 부엌과 식당은 통합되고 거실만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거실과 부엌만 있으며, 기타지역은 대체로 식당도 위치하였다.

신축도시한옥이 이러한 건축적 특성을 갖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도에서는 한옥을 통해 가로 및 지역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대체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다. 특히 한옥밀집지역은 대지 형태와 관계없이 단층의 기본형 평면이 많이 분포하였는데 이는 기존 가로경관 유지로 인한 형태 제한 때문이다. 그리고 신축도시한옥은 목구조가 강조된 형태가 되었다. 이는 입면 규제로 인해 목구조로 된 지상층만 노출되었고, 처마 밑의 공간에도 목구조로 칸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 공간 또한 제도에 의해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졌다. 한옥밀집지역은 법령의 완화가 신축에 적용되지 않아 뒷마당이 형성되었고, 기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주차장, 선큰, 진입마당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로 기술 및 재료의 변화는 칸의 공간 단위의 기능은 약화하였고 의장적인 기능은 강화하여 한옥의 특성이 변형되었다. 단열성능 향상에 따라 내부에서 기둥이 벽체에 가려 칸이 사라졌지만, 천장은 공간 기능과 관계없이 연등천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하층과 자유로운 바닥 높이 구성은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내부통합화에 따라 내부로 들어온 부속실들을 칸에 넣기 위해 비내력벽이 사용되었다. 그로 인해 확장된 칸 크기와 맞지 않는 실들은 구조와 관계없이 칸을 분할하여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방식의 변화는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필요한 면적의 증가와 처마 밑으로 공간 확장으로 입면의 비율은 보 방향으로 증가하였고 입체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실과 칸을 분할로 인해 창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두 개의 창호가 한 칸에 구성되었다. 형태적으로는 실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로 날개채와 몸체의 위계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내부통합화로 인해 동선 연결이 변화하면서 몸체에 위치한 거실을 중심으로 각 실이 날개채, 지하층, 2층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통합되었던 거실과 부엌의 관계가 신축도시한옥에서는 다시 칸과 결합하면서 분리되었다.

신축도시한옥은 변화된 기술 및 재료와 생활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칸의 조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대지 조건과 제도에 의해 그 형태가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옥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목구조가 강조된 형태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파트의 공간구성이 칸과 결합하면서 주요 실은 칸에 의해 구획되었지만, 부속실은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가졌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도시주거로서 한옥이 겪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시 한옥, 신축 한옥, 서울, 주거용 한옥, 한옥밀집지역, 은평한옥마을, 칸
학 번 : 2017-2399

목 차

| | |
|---------------------------------------|----|
| 1. 서론 | 1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 |
| 2. 2000년 이후 한옥 관련 정책의 변화 | 7 |
| 2.1. 2000년대 이전 시대적 상황 | 7 |
| 2.1.1. 근대도시한옥의 공급 | 7 |
| 2.1.2. 개량과 멸실 | 8 |
| 2.2. 정책 변화와 현황 | 10 |
| 2.2.1.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에 따른 제도의 변화 | 10 |
| 2.2.2. 신축도시한옥의 분포 | 14 |
| 3. 사례 연구 | 16 |
| 3.1. 평면 및 단면 계획 | 16 |
| 3.1.1. 칸의 단위구성 | 16 |
| 3.1.2. 평면 계획 | 20 |
| 3.1.3. 단면 계획 | 26 |
| 3.2. 대지 조건과 배치 계획 | 35 |
| 3.2.1. 대지 조건 | 35 |
| 3.2.2. 배치 유형 | 37 |
| 3.2.3. 외부 공간 | 43 |
| 3.3. 내부 공간 계획 | 47 |
| 3.3.1. 층별 공간구성 | 47 |
| 3.3.2. 공간 연결방식 | 49 |
| 3.3.3. 거실, 부엌, 식당과 칸 구성 | 54 |
| 3.4. 소결 | 58 |

| | |
|-------------------------------|--------|
| 4. 도시한옥의 칸 구성 변화 | 60 |
| 4.1. 제도에 따른 형태의 제약 | 60 |
| 4.1.1. 도시경관 보전 | 60 |
| 4.1.2. 입면 규제 | 62 |
| 4.1.3. 다양한 외부 공간의 형성 | 67 |
| 4.2. 기술 및 재료에 따른 새로운 계획 | 73 |
| 4.2.1. 단열 및 난방방식의 변화 | 73 |
| 4.2.2.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구성 | 76 |
| 4.2.3. 비내력벽의 사용 | 78 |
| 4.3. 생활방식에 따른 공간구성 | 81 |
| 4.3.1. 입면 구성의 변화 | 81 |
| 4.3.2. 날개채의 위계 변화 | 85 |
| 4.3.3. 내부통합화 | 89 |
| 5. 결론 | 94 |
| 참고문헌 | 98 |
| Abstract | 101 |

표 목 차

| | |
|--|----|
| 표 1-1. 연구대상 | 5 |
| 표 2-1. 도시형한옥의 칸수와 건평 상관관계 | 9 |
| 표 2-2. 2000년 이전 복촌관련 제도의 변화 | 10 |
| 표 2-3. 한옥 관련 법령의 제·개정 | 13 |
| 표 2-4. 서울시 한옥 관련 제도 | 15 |
| 표 3-1. 층 구성 | 19 |
| 표 3-2. 지역별 가장 긴 보 칸의 위치 | 22 |
| 표 3-3. 각 층의 체별 상부구조 | 23 |
| 표 3-4. 기본형 평면의 칸 조합 형태 | 26 |
| 표 3-5. 복합형 평면의 칸 조합 형태 | 26 |
| 표 3-6. 1층 평면 유형에 따른 2층 평면 유형 | 28 |
| 표 3-7. 2층의 위치 | 32 |
| 표 3-8. 각 층별 지붕 유형 | 33 |
| 표 3-9. 선큰과 드라이에어리어의 지역별 분포 | 34 |
| 표 3-10. 지역별 다락 분포 | 35 |
| 표 3-11. 대지 유형별 기본형 평면의 분포 | 44 |
| 표 3-12. 대지 유형별 복합형 평면의 분포 | 44 |
| 표 3-13. 대지 유형별 기본형 평면의 분포 | 47 |
| 표 3-14. 대지 유형별 복합형 평면의 분포 | 47 |
| 표 3-15. 2층의 배치 유형 | 50 |
| 표 3-16. 한옥밀집지역의 1층 실별 위치 | 55 |
| 표 3-17. 기타지역의 1층 실별 위치 | 56 |
| 표 3-18. 문간, 대문, 현관 분포 | 59 |
| 표 3-19. 복도가 없는 한옥의 구성 | 61 |
| 표 3-20. 복도가 있는 한옥의 구성 | 62 |
| 표 3-21. 1층에서 계단의 위치 | 63 |
| 표 3-22. 한옥별 LDK 분포 | 64 |
| 표 3-23. 거실, 식당, 부엌이 모두 있는 경우 실 배치 순서에 따른 유형 | 65 |
| 표 3-24. 평면유형별 실 구성 | 65 |
| 표 3-25. LK형의 칸 구성방식 | 66 |
| 표 3-26. DK 통합형 LDK 구성방식 | 66 |
| 표 3-27. DK 분리형 LDK 구성방식 | 66 |
| 표 3-28. LKD 순서일 때 구성 | 66 |
| 표 3-29. DLK의 구성 | 67 |
| 표 4-1. 한옥밀집지역 내 신축도시한옥의 허가 일자 별 이전 건물 유형과 배치 형태 .. | 72 |

| | |
|--|-----|
| 표 4-2. 각 지역의 층별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수 | 77 |
| 표 4-3. 지역별 주차장 종류 | 82 |
| 표 4-4. 2000년 이전 한옥의 몸채와 날개채의 평균 보 길이 | 100 |
| 표 4-5. 가장 긴 보 칸으로 구성된 날개채의 실 구성 | 101 |
| 표 4-6. 몸채와 날개채의 상부구조 | 102 |
| 표 4-7. 상부구조가 5량인 날개채에 배치된 실 | 102 |
| 표 4-8. 가장 긴 보 칸으로 구성된 날개채의 실 구성 | 103 |
| 표 4-9. 처마 밑 칸의 용도 | 106 |
| 표 4-10. 처마 밑 칸에 배치된 실 | 10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2-1. 개량된 근대도시한옥의 공간 확장 방식 | 9 |
| 그림 2-2. 서울시 신축 한옥의 사용승인일자별 분포 | 14 |
| 그림 3-1. 평균 도리 길이 분포 | 17 |
| 그림 3-2. 평균 보 길이 분포 | 17 |
| 그림 3-3. 지역별 몸채와 날개채 보 방향 길이 비교 | 17 |
| 그림 3-4.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평균 크기 | 18 |
| 그림 3-5. 1층 각 채별 상부구조와 보 길이 | 20 |
| 그림 3-6. 2층 각 채별 상부구조와 보 길이 | 20 |
| 그림 3-7. 평면 유형 | 21 |
| 그림 3-8. 지역별 대지면적에 따른 칸수 | 23 |
| 그림 3-9. 2층 평면 유형 | 23 |
| 그림 3-10. 지역별 지상층 면적에 따른 지하층 면적 | 24 |
| 그림 3-11. 지하층의 형태 | 25 |
| 그림 3-12. 1층에 대한 2층 면적의 비율 분포 | 26 |
| 그림 3-13. 1층에 대한 지하층 면적의 비율 분포 | 26 |
| 그림 3-14. 지하층과 2층 면적 분포 | 26 |
| 그림 3-15. 1층과 2층의 칸이 보 방향으로 동일한 너비로 구성된 한옥 | 27 |
| 그림 3-16. 1층 지붕과 2층 평면 유형 | 28 |
| 그림 3-17. 계단실 상부 활용 | 29 |
| 그림 3-18. 이층한옥의 계단실 단면 사례(아트리움 형태와 공간 활용) | 29 |
| 그림 3-19. 단면으로 본 지하층과 지상층의 조합 형태 | 30 |
| 그림 3-20. 다락방 | 31 |
| 그림 3-21. 다락 유무에 따른 지붕 높이 | 32 |
| 그림 3-22. 지역별 3량가와 5량가 지붕 하부의 다락 구성 | 32 |
| 그림 3-23.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스킵플로어 | 33 |
| 그림 3-24. 스킵플로어 | 34 |
| 그림 3-25. 공간 특성에 따라 조성된 스킵플로어 | 34 |
| 그림 3-26. 처마 밑에 덧붙은 칸의 단면 구조 | 34 |
| 그림 3-27. 대지 형태 유형 | 35 |
| 그림 3-28. 한옥밀집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대지면적 분포 | 38 |
| 그림 3-29. 한옥밀집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건폐율 | 38 |
| 그림 3-30. 한옥밀집지역의 동향 배치 한옥 | 39 |
| 그림 3-31. 도로변을 마당이 위치하는 열린 배치지만 내향적 마당을 갖는 한옥 | 40 |
| 그림 3-32. 기타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대지면적 분포 | 41 |
| 그림 3-33. 기타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건폐율 | 41 |

| | |
|---|----|
| 그림 3-34. 기타지역의 동향 배치 한옥 | 42 |
| 그림 3-35. 열린배치 | 42 |
| 그림 3-36. 단헌 배치 | 42 |
| 그림 3-37. 2층의 배치 유형 | 43 |
| 그림 3-38. 한옥밀집지역의 대지 형태별 평면 유형 | 44 |
| 그림 3-39. 기타지역의 대지 형태별 평면 유형 | 45 |
| 그림 3-40. 선큰 마당의 단면 | 45 |
| 그림 3-41. 선큰의 설치로 형성된 고립된 마당 | 46 |
| 그림 3-42. 꺾음부에서 칸과 다르게 구획된 실 | 48 |
| 그림 3-43. 지하층 다목적실과 계단실 | 49 |
| 그림 3-44. 채 분리 | 50 |
| 그림 3-45. 진입 동선 | 51 |
| 그림 3-46. 내부 동선 연결방식 | 52 |
| 그림 4-47. 복도의 형태 | 54 |
| 그림 3-48. 통합형, 칸 분리형, 완전 분리형 | 56 |
| 그림 4-1. 이전 한옥과 신축 한옥의 배치 유형 비교 | 61 |
| 그림 4-2. 지상으로 노출이 최소화된 지하층 | 63 |
| 그림 4-3. 담장으로 가려진 지하층 | 63 |
| 그림 4-4.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 외벽 입면 비교 | 64 |
| 그림 4-5 1층과 1, 2층에 설치된 처마 밑 칸 | 65 |
| 그림 4-6. 처마 밑에 덧붙은 칸 | 66 |
| 그림 4-7. 다양한 크기와 방향으로 조합된 칸 | 67 |
| 그림 4-8.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골목 형태 변화 (화동1) | 68 |
| 그림 4-9. 정북 일조 이격에 따른 뒷마당 형성 | 69 |
| 그림 4-10. 처마 선이 맞닿아 있는 한옥 | 69 |
| 그림 4-11. 선큰 마당과 목구조 | 71 |
| 그림 4-12. 다양한 외부 공간과 건물의 형태 | 72 |
| 그림 4-13. 창호와 벽체 구성 | 73 |
| 그림 4-14. 내부 벽체와 천장 구성 | 74 |
| 그림 4-15. 기둥은 가리고 연등천장으로 구성한 내부 | 75 |
| 그림 4-16. 2층 바닥 구성 | 76 |
| 그림 4-17. 인접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 77 |
| 그림 4-18. 지하 공간으로 형성된 내부 스킵플로어의 단면과 외부 사진 | 77 |
| 그림 4-19. 칸과 별개로 구성된 스킵플로어의 바닥 구성 | 78 |
| 그림 4-20. 비내력벽으로 칸이 분할된 경우 마감 방식(호) | 79 |
| 그림 4-21. 비내력벽으로 분할된 칸 | 80 |
| 그림 4-22. 근대도시한옥과 신축도시한옥의 대지면적(m^2)에 따른 보 길이(m) 분포 | 82 |
| 그림 4-23. 날개채의 평균 보 방향 입면 비율 | 82 |

| | |
|---|----|
| 그림 4-24. 가로변에서 보이는 처마 밑에 덧붙은 칸 | 83 |
| 그림 4-25. 현관문과 인방의 위치 | 83 |
| 그림 4-26. 방, 복도, 현관, 거실, 부엌의 창호 구성 | 84 |
| 그림 4-27. 칸 분할에 따른 입면 구성 | 84 |
| 그림 4-28.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위치 | 86 |
| 그림 4-29. 신축도시한옥의 양시도 | 88 |
| 그림 4-30. 근대도시한옥의 주요 동선 | 89 |
| 그림 4-31. 동선의 편의를 위해 개량된 근대도시한옥 | 90 |
| 그림 4-32. 신축도시한옥의 주요 동선 | 91 |
| 그림 4-33. 1960~70년대 아파트 평면 | 93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대부터 정책 변화에 따라 한옥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Well-Being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요구와 환경문제,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한옥은 아파트와 다른 친환경 주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옥 진흥을 위해 기존 한옥이 가지고 있던 주거성능을 보완하고 시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옥기술개발R&D를 진행하였고, 국가한옥센터도 설립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한옥 건축에 대한 비용지원이 2002년에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한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고 한옥 건축 수요가 증가하였다. 증·개축에 비해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축도 지속해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은평한옥마을의 필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¹⁾ 2016년에는 건축비용지원 대상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새로운 한옥의 신축이 급증하였다.

이렇게 신축된 한옥들이 주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현대생활방식에 맞추어 계획되어야 했다. 특히, 입식 가구의 도입, 거실 중심의 공용공간 통합, 기능에 따른 실 분화 등은 이전 한옥과 다른 공간의 크기와 구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옥보전정책과 건축비 지원에 따른 심의 기준 등 제도에서 한옥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로 및 지역 경관을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통해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한옥의 건축적 특성에 대한 기준은 재료, 구조, 입면, 배치, 지붕 형태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한옥은 목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기둥을 나열하고 보를 올려 공간을 구축하는 단위로써 칸이 사용된다.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선적 개념에서 4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평면을 설명하는 면적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단위가 조건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되면서 단위 공간의 크기와 형식이 결정되고 공간의 확장은 이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칸은 구조단위인 동시에 공간 단위로서 작동한다.²⁾ 이는 한옥의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 SH공사,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155개 필지 판매 완료」, 2014

2) 전봉희; 이강민, 『3칸x3칸-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15

그러므로 변화한 생활방식에 따라 공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칸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간의 규모와 구성이 계획되고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조정은 칸의 크기, 구조 등 단위구성에서부터 조합방식에까지 이른다. 무엇보다 정해진 칸 안에서 변화하는 증·개축 보다 칸의 크기부터 결정할 수 있는 신축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증·개축을 통한 한옥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만 진행되었고,³⁾ 신축 한옥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제약과 변화한 생활방식의 요구 사이에서 신축된 주거용 도시 한옥의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손세관 김은하, 「도시형 한옥의 증개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회동, 용두동, 제기동을 중심으로」, 『환경과학연구』, vol.6, 1995; 윤효중, 『서울 도시한옥 단면의 원형과 변이-북촌도시한옥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시립대, 2011; 김균연, 『1960년대 서울 정릉동의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김영수 조준범, 「서울 안암동 도시한옥의 내외부 공간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3, pp.21-28 2016; 정기황, 『서울 도시한옥의 적응태』, 박사논문, 서울시립대, 2016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서 한옥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축된 한옥들로 한다. 대상 한옥들의 신축 시기는 건축물대장에서 착공 일자와 사용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신축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도면에 신축으로 표기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거로서 현대생활방식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주거용 한옥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주 분석대상은 평면, 단면, 입면 등의 도면자료가 있어 형태와 내부 공간 구성 계획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67호의 한옥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해 형태적인 부분을 조사하고, 인터뷰에 응해준 주택을 대상으로 내부 공간 조사를 하였다.

서울의 신축도시한옥은 제도에 따라 ‘한옥밀집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옥밀집지역’은 1920~1960년대까지 대량 공급되었던 도시한옥의 보전과 기존 도시경관의 유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범위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성 내(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일대)로부터 도성 밖(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도시조직 및 경관을 유지하고 기존 한옥의 멸실 방지 및 형태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67호 모두 비용지원을 받았으며 23호가 한옥밀집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 44호는 기타지역에 위치하였다. 한옥밀집지역 중 본 연구의 대상은 북촌에 12호, 경복궁 서측에 10호, 돈화문로 일대에 1호가 분포한다. 북촌의 경우 가회동에 6호 삼청동에 4호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원서동과 화동에 각 하나씩 있다. 경복궁 서측에는 누하동에만 6호가 분포하고 체부동, 통인동, 필운동, 효자동에 하나씩 있다. 돈화문로 일대는 권농동에 하나의 한옥이 위치한다. 기타지역은 은평한옥마을에 42호, 부암동에 1호, 수서동에 1호가 분포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은 기존 한옥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도적 기준이 수립된 지역이지만 증·개축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건축비용을 지원 등의 이유로 한옥의 신축이 나타났다. 그 안에서 한옥이 새롭게 지어질 때, 보전정책에 따른 형태적 기준에 맞추면서 현대주거공간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외에 서울시에 있는 한옥은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있다.⁴⁾ 도심지에 있는 한옥밀집지역과 다르게 외곽에 있으며 최근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면서

4) 기타지역으로 분류된 은평한옥마을의 경우 한옥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새롭게 계획된 주거지로 한옥밀집지역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인 ‘기존 도시경관’과 ‘기존 한옥’이 없으므로 한옥밀집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변경된 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도시한옥은 도시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유형을 의미하였다.⁵⁾ 이후에 신축된 한옥 또한 현대의 도시 안에서 도시의 제도에 맞춰 지어진 새로운 도시한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한 두 도시한옥을 본 연구에서는 ‘근대도시한옥’과 ‘신축도시한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신축도시한옥은 서울시의 한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책에 따른 제도와 공급 방식의 변화로 근대도시한옥과는 다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축되었다. 그리고 재료 및 기술이 발전하였고 생활방식은 변화하였다. 목구조를 유지하는 신축도시한옥은 칸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였다.

2장에서는 두 지역의 다른 제도 기준 안에서 신축도시한옥이 어떠한 형태와 공간 구성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평면, 단면, 입면에서 칸의 크기와 개수, 조합방식, 내부 공간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신축도시한옥이 제도, 기술 및 재료, 생활방식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을 선택하였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나타난 건축적 특성을 근대도시한옥과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5) 정기황, 앞의 논문, 2016

표 1-1. 연구대상

| | 지역 | 사용 승인 연도 | 한옥 지정 여부 | 층수 제한 | 건폐율 제한 | 대지면 적 (㎡) | 건축 면적 (㎡) | 지하 층수 | 지상 층수 |
|-------|----|----------------|----------------|-------|-----------|-----------------|-----------------|----------|----------|
| 화동1 | 한옥 | 2003 | 비지정 | 2층 이하 | 60%이하 | 52.8 | 28.6 | 1 | 1 |
| 가회동6 | 한옥 | 2004 | 비지정 | 1층 | 60%이하 | 50.2 | 21.9 | 0 | 1 |
| 삼청동3 | 한옥 | 2005 | 비지정 | 1층 | 60%이하 | 122.3 | 59.8 | 1 | 1 |
| 삼청동2 | 한옥 | 2007 | 비지정 | 1층 | 60%이하 | 41.2 | 22.1 | 1 | 1 |
| 삼청동1 | 한옥 | 2008 | 지정 | 1층 | 60%이하 | 86.4 | 23.4 | 1 | 1 |
| 가회동3 | 한옥 | 2008 | 지정 | 1층 | 60%이하 | 104.3 | 30.8 | 0 | 1 |
| 가회동4 | 한옥 | 2009 | 비지정 | 1층 | 60%이하 | 152.6 | 64.8 | 1 | 1 |
| 가회동5 | 한옥 | 2010 | 비지정 | 1층 | 60%이하 | 136.8 | 62.9 | 1 | 1 |
| 가회동2 | 한옥 | 2010 | 지정 | 1층 | 60%이하 | 266.2 | 74.6 | 2 | 1 |
| 누하동2 | 한옥 | 2011 | 비지정 | 1층 | 60%이하 | 146.3 | 66.5 | 0 | 1 |
| 삼청동4 | 한옥 | 2011 | 비지정 | 2층 이하 | 60%이하 | 92.6 | 44.7 | 0 | 2 |
| 가회동1 | 한옥 | 2011 | 비지정 | 2층 이하 | 60%이하 | 689.5 | 209.8 | 2 | 1 |
| 효자동1 | 한옥 | 2012 | 비지정 | 1층 | 60%이하 | 79.3 | 32.7 | 0 | 1 |
| 누하동6 | 한옥 | 2012 | 비지정 | 1층 | 60%이하 | 76.1 | 39.7 | 0 | 1 |
| 필운동1 | 한옥 | 2012 | 비지정 | 1층 | 60%이하 | 112.4 | 44.4 | 0 | 1 |
| 누하동1 | 한옥 | 2012 | 지정 | 1층 | 60%이하 | 86.0 | 48.8 | 1 | 1 |
| 누하동4 | 한옥 | 2013 | 지정 | 1층 | 60%이하 | 86.0 | 45.8 | 1 | 1 |
| 원서동1 | 한옥 | 2013 | 지정 | 1층 | 60%이하 | 132.2 | 72.3 | 1 | 1 |
| 누하동5 | 한옥 | 2014 | 지정 | 1층 | 60%이하 | 115.7 | 51.7 | 0 | 1 |
| 누하동3 | 한옥 | 2014 | 지정 | 1층 | 60%이하 | 69.4 | 32.5 | 1 | 1 |
| 수서동1 | 기타 | 2016 | 비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66.0 | 111.8 | 0 | 1 |
| 진관동24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418.5 | 94.1 | 1 | 2 |
| 진관동17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29.8 | 113.8 | 0 | 2 |
| 진관동14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9.3 | 75.4 | 0 | 2 |
| 진관동16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3.2 | 80.7 | 0 | 2 |
| 진관동10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36.1 | 79.8 | 0 | 2 |
| 진관동20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494.1 | 179.3 | 1 | 1 |
| 진관동39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63.5 | 70.1 | 1 | 2 |
| 진관동42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387.9 | 113.0 | 1 | 1 |
| 진관동8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5.4 | 80.3 | 0 | 2 |
| 진관동13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00.4 | 91.3 | 1 | 2 |
| 진관동34 | 기타 | 2016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66.8 | 71.2 | 1 | 2 |
| 진관동41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89.8 | 103.0 | 1 | 2 |
| 채부동1 | 한옥 | 2017 | 지정 | 1층 | 70%이하 | 59.5 | 32.5 | 0 | 1 |
| 진관동31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353.4 | 135.1 | 1 | 2 |
| 진관동12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373.3 | 128.2 | 1 | 2 |
| 진관동35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35.0 | 64.0 | 1 | 2 |
| 진관동15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8.1 | 83.8 | 1 | 1 |
| 진관동38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71.9 | 83.3 | 1 | 1 |
| 진관동32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76.5 | 76.0 | 1 | 2 |
| 진관동23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9.1 | 83.8 | 1 | 1 |
| 진관동25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59.6 | 57.9 | 0 | 2 |
| 부암동1 | 기타 | 2017 | 비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38.7 | 53.6 | 0 | 2 |
| 진관동21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29.8 | 88.5 | 0 | 2 |
| 진관동1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34.3 | 86.9 | 1 | 2 |
| 진관동9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00.1 | 79.8 | 1 | 2 |
| 진관동30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35.0 | 67.5 | 1 | 2 |

| | | | | | | | | | |
|-------|----|------|----|-------|-------|-------|-------|---|---|
| 진관동29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65.0 | 62.8 | 0 | 2 |
| 진관동3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1.6 | 69.9 | 0 | 1 |
| 진관동7 | 기타 | 2017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30.4 | 97.7 | 1 | 2 |
| 진관동33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76.7 | 78.5 | 1 | 2 |
| 권농동1 | 한옥 | 2018 | 지정 | 2층 이하 | 80%이하 | 111.1 | 67.0 | 0 | 1 |
| 진관동19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71.3 | 94.5 | 1 | 1 |
| 진관동28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350.3 | 130.0 | 1 | 1 |
| 진관동6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48.7 | 103.9 | 1 | 2 |
| 진관동36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76.3 | 80.6 | 0 | 1 |
| 진관동26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330.0 | 138.6 | 1 | 2 |
| 진관동37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74.2 | 76.5 | 0 | 2 |
| 진관동40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62.0 | 66.3 | 0 | 2 |
| 통인동1 | 한옥 | 2018 | 지정 | 1층 | 70%이하 | 66.1 | 36.3 | 0 | 1 |
| 진관동5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95.0 | 84.1 | 0 | 2 |
| 진관동27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178.3 | 88.7 | 1 | 2 |
| 진관동22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99.3 | 120.1 | 1 | 2 |
| 진관동2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31.9 | 93.0 | 0 | 2 |
| 진관동18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59.9 | 101.0 | 0 | 2 |
| 진관동11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21.0 | 102.7 | 1 | 2 |
| 진관동4 | 기타 | 2018 | 지정 | 2층 이하 | 50%이하 | 200.1 | 91.9 | 1 | 2 |

한옥: 한옥밀집지역, 기타: 기타지역

2. 2000년 이후 한옥 관련 정책의 변화

2.1. 2000년 이전 시대적 상황

2.1.1. 근대도시한옥의 공급

1) 제도와 공급

근대도시한옥은 일제강점기 초부터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이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서구문화가 도입되면서 근대화가 본격화되었고, 토지 및 가옥의 자본주의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1920년대 말부터 주택경영회사, 청부업회사 등이 도성 내 대형 필지를 분할하여 도시한옥을 개발 및 공급하였고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양하였다. 도시한옥은 ㄱ자형 옷방끼움집을 기본으로 도시구조에 맞춰 변형되었다.

도시한옥이 공급되는 시기에 시가지건축취체규칙(1913년)에서 건폐율은 80%를 상한선으로 규제하였다. 그리고 도로에서 45cm 이격하여 건축선을 두고 1.2m 이상 도로 설치하도록 규제하였다. 이후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도로의 너비를 4m 이상으로 제안하였고 각 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60%를 상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위생 관련하여 거주용 건물 대지 내에 변소 설치 등을 규제하였다.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영역을 확장하고, 대규모 도외 주거지를 건설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도성 내에 민간업자에 의해 공급되었는데 1930년대 후반부터는 도성 외부에 정부에서 택지조성과 함께 공급되었다. 이로 인해 구조와 평면이 대량생산에 맞게 변화하였고 돈암지구를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2) 근대도시한옥의 칸 구성

1930~1960년대 사이에 대량 공급되었던 도시형한옥의 경우 [표 2-1.]를 통해 건평과 칸수의 관계를 보면 건평과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칸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대지면적에 따라 칸의 크기를 조절해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공간으로 분할하려는 의도가 컸다.⁶⁾

근대도시한옥의 건물 구성을 보면 대체로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문간채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났다. 초기에는 안채와 문간채가 분리된 형태였지만 점차 구조까지 결합되면서 완전한 ㄷ자형으로 진화하였다.

6) 송인호, 『都市型韓屋의 類型研究 : 1930년-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0, pp.124-125

표 2-1. 도시형한옥의 칸수와 건평 상관관계(송인호(1990), p.125)

| 칸수 건평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소계 |
|----------|---|---|---|----|----|----|----|----|----|
| 10평 이하 | 2 | | | | | | | | 2 |
| 20평 이하 | 2 | 4 | 8 | 12 | 4 | | | | 30 |
| 30평 이하 | | | 3 | 5 | 5 | 3 | 3 | 1 | 20 |
| 40평 이하 | | | | | | 1 | 3 | | 4 |

내부 공간 구성은 안채의 경우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양쪽에 위치하고 안방 아래쪽으로 부엌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부엌 맞은편으로 문간채를 배치하고 있다. 이는 한옥이 위치한 대지 조건에 따라 남향을 하는 대청을 중심으로 다른 실들의 위치에서 변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각 채의 칸 구성을 보면, 부엌이 위치한 날개채의 보 길이가 대청이 위치한 몸채와 비슷해지나 더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상부구조는 대부분 보 길이와 관계없이 몸채는 5량, 날개채는 3량이라는 규칙이 유지되었다.⁷⁾ 문간채의 경우 그 관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칸 구성의 근대도시한옥은 1960년대까지 지속해서 공급되었지만, 점차 새로운 주택 공급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수는 감소하였다.

2.1.2. 개량과 멸실⁸⁾

1962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택난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청량리 지역이 개발되었고 교외지역 중 동대문구 제기동, 용구동, 성북구 정릉동 지역에 마지막으로 도시한옥이 대규모로 공급되었다.

하지만 주택난이 지속되었고 기존 도시한옥은 멸실되거나 개량 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는 한옥이 보편적 주거였으나 한옥 공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목재보다 저렴한 재료가 보급되었고 1960년대 초기에 도입된 건축 및 도시 관련 법 제도는 규제의 대상과 기준이 서양식 건축양식에 맞춰져 있어,⁹⁾ 한옥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기술발달 등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었다. 1985년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합법화로 인해 기존 도시한옥이 밀집해있던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그 수가 점차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는 복촌을 중심으로 한옥 보존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¹⁰⁾ 그 이후에도 지속

7) 송인호; 김영수, 앞의 글, 2015; 이, 2013; 김균연, 앞의 논문, 2015

8) 정기황, 앞의 논문, 2016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9) 송인호; 조준범; 김영수, 「도시건축법제가 한옥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도시한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1호, 2010, p.172

적으로 북촌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게다가 점차 한옥 주거지는 노후 또는 불량주택지로 인식되면서 선호되지 않았고,¹¹⁾ 다수가 철거되어 다가구·다세대로 변화하였다.¹²⁾

표 2-2. 2000년 이전 북촌관련 제도의 변화

(출처: 백선영, 한옥 멸실의 유형형태학적 해석: 서울 한옥주거지의 1970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67)

| | |
|----------------|--|
| 1980 ~1990년 | 1984 북촌일대 ‘제4종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건축제한 1985 북촌일대 한옥지구 도시설계(미시행) 1990 전통문화지구 북원정비실시계획(미시행), 한옥보존지구 정비계획 방침 |
| 1991 ~1999년 | 1991 제4종 미관지구내 심의기준완화 1994 제4종 미관지구내 높이규제 완화 1995 미관지구 해제건의 1997 종로 북촌마을 도시계획타당성 및 정비계획안(미시행) 1999 건축법시행령 개정 미관지구내 건축기준 폐지 |

남아있는 도시한옥들은 난방설비 상하수도 정화조 등 주거기반시설의 확충과 텔레비전, 오디오 냉장고 등 가전기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엌은 ‘입식화’되었고, 다양한 부속실들을 내부화하였다. 그리고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마당을 내부화하거나 처마 하부공간에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벽체를 세웠다. 또한, 욕실, 창고 등을 마당에 따로 증축하고 분리되어있던 채와 채 사이를 벽으로 막아 실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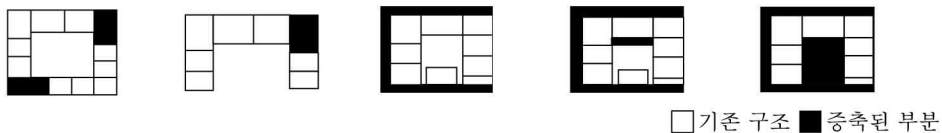


그림 2-1. 개량된 근대도시한옥의 공간 확장 방식

(출처: 정기황, 앞의 논문, 2016, p.145의 다이어그램을 재작성)

10) “서울종로구 삼청동등 7개동 주민3백여 명은 17일 ... 지난 81년부터 시행돼온 한옥보존지구지정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 한편 종로구 가회동일대 주민 5백여 명도 지난 11일 중랑고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서울시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었다.” (『한옥보존지구지정 철회 요구』, 『연합뉴스』, 1990.03.17.)”

11) “...그러나 “한옥보다는 양옥이 좋다”는 응답이 46%로 “한옥 선호”의 26%보다 많아 주거양식은 서구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인 63%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 불가능”』, 『연합뉴스』, 1993.04.13.)”

12)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56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인 집장사 주택이 한두 채 들어선 전형적인 한옥 밀집 주택가의 환경을 세련미 넘치고 활력 있는 거리로 일신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 건물이다. ...주변 한옥에 대한 건축 의욕을 고취시켜 일대에 신축 붐을 일으키게 했다.” (『<자투리땅키우기>서울 보문동 다가구주택』, 『중앙일보』, 1995.03.09.)”

2.2. 정책의 변화와 현황

2.2.1. 한옥 보존 및 진흥 정책에 따른 제도의 변화

정부의 한옥에 대한 정책이 보존에서 보존과 진흥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고 새로운 조례 등이 신설되었다. 남아있는 서울시 한옥의 대부분은 「건축법」 등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에 따라 2000년과 200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한옥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건축선 후퇴 규정과 면적 산정 규정에 관한 완화 조항이 그 대상이었다. 그 뒤인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주차장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한옥의 주차장 설치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¹³⁾ 이후 2010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옥 관련 조항을 종합적 개선하고자 하였고 한옥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¹⁴⁾ 하지만 신축 행위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2015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축 행위도 개보수와 동일하게 모든 조항이 완화 적용되었다.

표 2-3. 한옥 관련 법령의 제·개정

| 날짜 | 법령명 | 내용 |
|-----------|--------------------------|---|
| '00.06.27 | 건축법 시행령 |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4호: 도로 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의 완화 |
| '01.09.15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가목 |
| '02.12.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6항 제1호: 면적 등의 산정 완화 |
| '07.12.20 | 주차장법 시행령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비고1호사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설치 완화 |
| '10.02.18 | 건축법 시행령 | 한옥의 정의 신설, 개축 및 대수선 기준 완화, 기존 한옥 대수선 및 개축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 |
| '11.07.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한옥 건폐율 완화 |
| '13.03.28 | 건축법 시행령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 정북방향 1.5m 이격 |
| '15.06.01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 제1항(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대수선의 범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일조들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바닥면적 산정방법,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

13) 이경아, 「한옥 보존을 위한 법령 개정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 30(5), 2014, p.123

14)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일부개정], 「건축법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이러한 법령의 개정 외에 지자체에서는 근대도시한옥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북촌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을 제한하거나 정비계획안 등이 시도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1990년 후반, 규제 완화로 지어진 주거환경의 열악함, IMF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시 북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¹⁵⁾ 2000년 10월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보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개량되었던 한옥들은 다시 원형으로 복구되는 등, 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변형되기 시작하였다.¹⁶⁾

그리고 2001년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건축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한옥수선 등 기준’에서 ‘한옥의 외관’과 ‘한옥의 내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배치방식이나 공간 구성에 대한 것보다 의장과 설비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이후 2002년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이 새로 제정되었지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8년 ‘서울한옥선언’을 발표한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 확대 외에 신규 한옥 조성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 그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비한옥을 신축하는 때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0년부터 도성 내 한옥밀집 주거지역 내 전통한옥의 집단 멸실을 우려하여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한옥주거지로 보호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다. 2014년에는 도성 밖(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SH공사와 함께 은평뉴타운에 156필지의 한옥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하였다. 이 지역은 한옥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삶에 적합한 미래형 도시생활 한옥을 목표로 2012년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다.¹⁷⁾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모두 완화 적용되었다.

2014년에 공고한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 중 한옥의 의장과 설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형태와 내부 공간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배치방식, 처마 밑 확장 범위, 지하층의 구성 등이 있다. 특히 나대지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한옥밀집지역 내 보편화된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ㄹ자형 등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해 한옥밀집지역 내 기존 도시한옥들과 다른 형태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마 밑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한옥의 전면과 가로에 면한 외벽을 제외한 면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드라이에어리

15) 송인호,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연구와 실천」, 『한국건축역사학회지』, 11(2), 2002, pp.104-105

16) 정기황, 앞의 논문, pp.220-226

17)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84호, 2012.10.4)

어의 설치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로 정하고 있다.

2015년에 정부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서울시는 ‘한옥건축자산선언’을 발표하였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신축 한옥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한옥 보전에 집중되어 있던 심의 기준도 수정되어야 했고 2016년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공고하였다.

대부분 내용은 동일하지만, 배치에 관한 내용과 지하 출입구, 지붕 처마길이 등이 수정되었다. 기존 기준에서 특정 형태로 제한했던 배치는 좀 더 유연하게 변경되었고 지하층 외벽의 노출은 도로 면에서부터 0.6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처마길이의 경우 최소 0.9m로 규정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 심의 기준에서는 없었던 세부사항이 추가되면서 2층 면적, 반침 면적, 처마길이 등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세부사항을 준수할 경우 전체 외관 지원 금액의 5%를 추가 지급해주고 있다. 이층한옥의 2층 바닥면적을 1층의 4/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의 구분이 되도록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반침은 전면도로와 마당 쪽으로 설치할 수 없고 그 면적과 크기를 제한하였다.

표 2-4. 서울시 한옥 관련 제도

| 연도 | 내용 |
|------|--|
| 2000 | 북촌 가꾸기 계획 수립 |
| 2001 | 「서울특별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 2002 |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한옥밀집지역 지정 |
| 2008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2009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인사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
| 2010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
| 2010 | 경복궁 서측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
| 2010 |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 2012 | 운현궁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은평뉴타운 특별건축구역 지정 |
| 2014 |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 공고 |
| 2015 | 한옥건축자산선언 북촌·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2016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 |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 까지도 한옥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화재로 인한 사고와 보전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내

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반에는 점차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과 함께 기존 한옥을 수선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2000년에 들어서부터는 실제 한옥을 수선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례들과 실제 건축비용에 관한 기사가 실리면서, 한옥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¹⁹⁾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거나 현대생활방식에 맞춰 건축된 한옥에는 ‘신한옥’, ‘21세기형 한옥’, ‘현대한옥’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기존 한옥과 달라졌음을 드러냈다. 정부에서는 한옥의 건축성능과 건축비 절감을 위한 연구를 위해 2009년 한옥기술개발R&D를 진행하였고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산업지원 등을 위해 국가한옥센터가 2011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신축된 한옥들에 대한 소개가 신문, 잡지, TV 등을 통해 단점이 개선되고 아파트 생활 못지않게 편리한 주택으로서 소개되었다.²⁰⁾ 그리고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분양거래가 되고 한옥건축박람회가 진행되는 등²¹⁾ ‘한옥 붐’이라는 용어

18)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한옥에 있었다. 미국에 한옥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내가 전에 프랑스 파리에 지은 ‘고암서방’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보다. “그런 집 한 채 지어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런 경향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옥에 살고 싶다는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근교 멋쟁이들이 가는 분위기 있는 집이라면 이젠 한옥답게 지어야 손님이 든다고 한다. … 한옥을 짓고 싶어 현대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문의하니 “그런 것은 지을 줄 모른다”고 하더라며 몹시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실이 그렇다. …(한복만큼 편한 ‘생활 한옥’, 『동아일보』, 1998.06.12.)

한옥은 개보수하기보다는 허물고 다그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같이 수입이 급감하고 세를 놓기가 쉽지 않은 때는 리노베이션도 좋은 방법. (『전통미 살리고 현대소재 가미』, 『동아일보』, 1998.01.26)

19) …그가 한옥으로 이사한 또 다른 이유는 ‘과연 한옥은 현대인이 살 수 없는 낡은 유물(遺物)인가’라는 건축가다운 물음에서 출발했다. 한옥에 직접 살아보면서 몸으로 부닥쳤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김씨는 “내부만 일부 고치면 현대인이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옥은 건강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 김씨에게 한옥은 ‘살아 있고 미래에 물려줄’ 건축문화의 교과서다. (『이런집 어때요』종로 계동 한옥 “생활의 여유 절로 우러나”, 『동아일보』, 2000.12.14.)

…웬만한 목수의 일당은 25만원 이상이다. 목재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는 고무줄이다.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하며 보통 800만~900만원선에서 공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7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김 실장은 “2002년 이후 한옥의 전면목을 깨닫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한옥은 이미 어엿한 건축양식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옥의 미래를 밝게 내다봤다. (『한옥이 좋다』‘한옥에 한번 살아볼까’…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세계일보』, 2005.07.28.)

20)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은평뉴타운에 미래형 도시생활 한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은 다른 지역의 한옥마을과는 사뭇 다르다. 전통 한옥의 정취를 살리되 현대 주택의 편리함도 갖추는 이른바 생활 한옥을 콘셉트로 하기 때문이다. …전통 한옥이지만 현대 생활에 필요한 편리함도 담았다. 지하에는 오디오·비디오실로 쓸 수 있는 다목적실을 배치했으며 1층에는 방 3개와 뒷마루·거실·부엌 등을, 2층에는 방 2개를 뒀다. 실내에는 불박 이장·드레스룸 등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수납공간이 설치되며 겨울철에 춥다는 한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중 창호 시스템도 도입했다. (『서경랜드마켓』 전통의 멋 갖든 현대형 생활 한옥 일반 한옥보다 건축비용 30% 싸, 『서울경제』, 2014.05.28.)

21) …현대인들에게 크게 사랑 받으며 한옥분양, 한옥건축, 한옥매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

가 사용될 정도로 한옥 건축은 활발해졌다.

2.2.2. 신축도시한옥의 분포

근대도시한옥이 민간개발업자 또는 정부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대량 공급되었던 것과 다르게 신축도시한옥은 개별 건축주와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어 지어졌다. 대량공급을 위해 동일한 평면과 형태로 건축되었던 근대도시한옥과 다르게 개별 건축주의 요구에 맞추어 지어지면서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시에 2000년부터 신축된 주거용 한옥이 2018년 8월 기준으로 총 115호로 파악되었다.²²⁾ 그중 한옥밀집지역에 위치하는 한옥은 35호, 기타지역은 80호로 나타나 기타지역에서 더 많은 한옥이 신축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이전에는 한옥밀집지역에 더 많은 한옥이 신축되었지만 2014년에 은평한옥마을의 모든 필지가 분양이 완료되면서 그 지역의 신축한옥의 수가 급증하면서 기타지역에서 더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115호의 한옥 중 76호는 한옥비용지원을 받았고 이는 전체 신축 한옥의 66.1%나 차지한다. 한옥밀집지역의 35호 중에서는 4호만을 제외하고 모두 비용지원을 받았으며, 기타지역의 경우 2016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 매해 비용지원을 받는 한옥이 68.4%, 84.2%, 94.1%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한옥이 서울시의 비용지원을 위한 심의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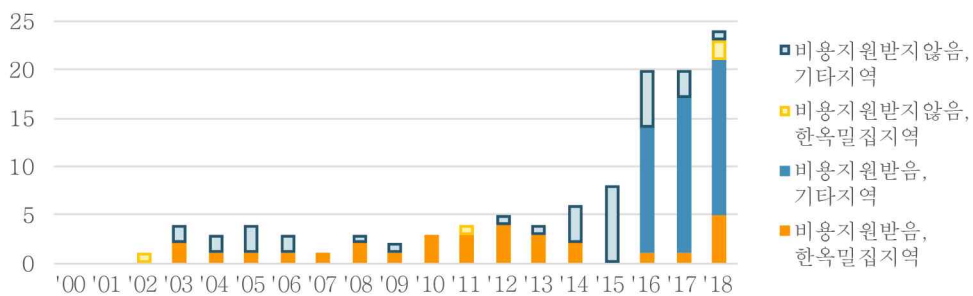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시 신축 한옥의 사용승인일자별 분포

어지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이어져온 한옥시공 공법의 발전으로 한옥은 불편하다, 한옥은 춥다 혹은 한옥은 비싸다는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한옥분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이에 한옥건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옥매매, 한옥분양 등에 앞장서는 한옥마을 전원주택개발 자문 및 컨설팅전문가가 각광받고 있다. (「황토로 지은 건강한 한옥과 친환경 생태마을 분양」, 『디지털타임스』, 2015.04.24.)

22)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서울시에 신축된 주거용 한옥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에서 목조와 기와지붕으로 된 단독주택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인터넷과 현장답사를 통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였다.

이 두 지역은 법령이나 비용지원을 위한 심의기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초기에 한옥 관련 법령의 개정과 비용지원 등의 정책은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한옥의 멸실을 막고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이 지역에 있는 한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8년 서울시의 한옥선언과 함께 보전에 집중하고 있던 정책은 새로운 한옥 조성으로 확대하면서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보전정책은 지속되었다. 이후 2015년의 한옥건축자산을 통해 기타지역에 대한 비용지원도 시작되었고, 그에 맞춰 기준은 두 지역에 다르게 적용되었다.

비용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2018.7.5.)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위원회’로 통합되기 전까지 한옥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의 심의는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한옥위원회는 「서울특별시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건축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목적이 한옥밀집지역은 보전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도로 폭, 건물 배치, 규모, 높이 등 도시경관 유지 관련 조항이 있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은평한옥마을을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한옥에 관한 조항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은평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밀집지역과 달리 도시경관보전에 대한 조항이 없다. 건축물의 공공성을 통해 가로 및 지역 경관을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통해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지역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 안에서 건축되었다.

3. 사례 연구

3.1. 평면 및 단면 계획

전체 연구대상 중 12호의 한옥만 한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55호의 한옥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지하층 없이 지상 2층으로만 구성된 이층한옥은 15호(22.4%), 지상 1층에 지하층만 있는 한옥은 19호(28.4%), 지상 2층과 지하층이 모두 있는 이층한옥은 20호(29.9%)로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은 이층한옥이 하나의 사례뿐이지만 지하층을 두는 경우가 12호(52.2%)로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이 지역은 대부분 경사지를 이용해 지하층을 구성했고 지하로 2개 층을 둔 사례도 있다. 이에 반해 기타지역에는 2층과 지하층이 모두 있는 한옥 20호가 전부 위치하여 지하와 지상을 아우르는 수직적 확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층 구성(호)

| 층 구성 | 지상 1층 | 지상 2층 | 합계 |
|--------|------------|-----------|------------|
| 지하층 없음 | 12(9, 3)* | 15(1, 14) | 27(10, 17) |
| 지하 1층 | 18(11, 7) | 20(0, 20) | 38(11, 27) |
| 지하 2층 | 2(2, 0) | 0(0, 0) | 2(2, 0) |
| 합계 | 32(22, 10) | 35(1, 34) | 67(23, 44) |

*(한옥밀집지역, 기타지역)

3.1.1. 칸의 단위구성

칸은 도리 방향과 보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보 방향의 경우 상부구조의 규모로 직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요하다. 도리 방향의 경우 도리의 길이를 확장하거나 이 방향으로 칸을 나열하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경사재를 나열함으로써 지붕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보 방향은 보 길이를 확장하거나 보 방향으로 칸을 나열할 때, 상부구조재의 크기 및 길이, 전체 지붕의 물매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물매를 만들기 위해서 량가의 수가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 방향의 확장은 지붕의 구조를 해결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리 방향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물의 전체적인 칸 구성 외에도 가장 긴 대보 두 개로 구성된 ‘가장 긴 보를 갖는 칸’ 또한 살펴보았다.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은 꺾음부에서는 두 개의 채가 결합 되는 부분

으로서 두 종류의 길이로 구성되는 때도 있어 제외하였다.

신축도시한옥의 칸 크기를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길이와 기둥 높이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한옥밀집지역에서 칸의 평균 크기는 보 방향이 2.89m이고 도리 방향이 2.11m로 나타났다. 퇴칸의 경우 보 방향이 평균 1.08m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평균 칸 크기는 보 방향이 3.11m이고 도리 방향이 2.41m로 나타났다. 퇴칸의 경우 보 방향이 평균 1.50m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대지면적과의 칸의 평균 크기를 보면 면적이 증가할수록 도리 방향보다는 보 방향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영향 관계가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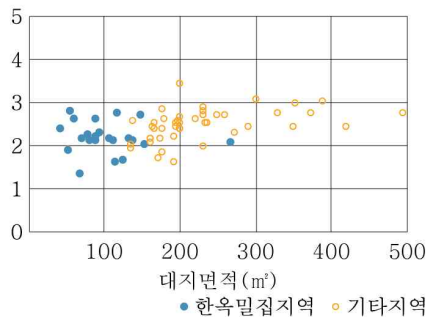


그림 3-1. 평균 도리 길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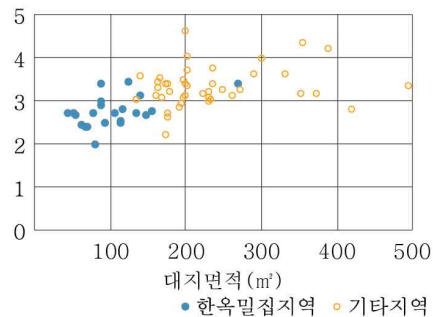


그림 3-2. 평균 보 길이 분포

그리고 각 채 별 보 길이의 분포를 보면,²³⁾ 한옥밀집지역은 보 길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을 살펴보면 보 방향은 3.23m이고 도리방향은 2.76m로 전체 평균 칸 크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칸 크기가 비슷하게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보 길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크기를 살펴보면 보 방향은 4.16m이고 도리방향은 2.92m로 전체 평균 칸 크기보다 보 방향으로 1m가량 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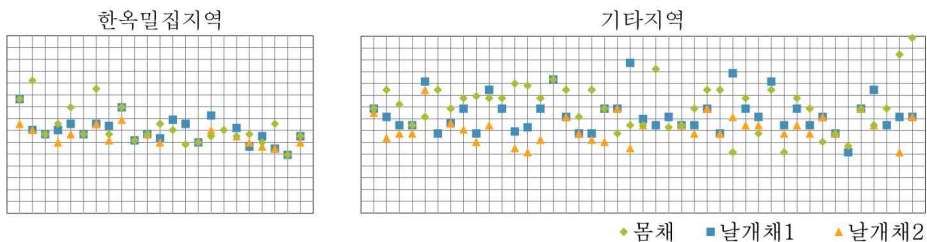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별 몸채와 날개채 보 방향 길이 비교

23) 날개채가 3개 이상 있는 한옥도 있지만, 긴 보를 갖는 칸으로 구성된 채를 중심으로 분포를 살펴보았다.

두 지역의 가장 긴 보 칸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보 방향의 길이가 1m가량 차이가 나는 데 비해 도리 방향과 기둥의 높이는 0.2m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지면적이 2배 정도 큰 기타지역에서 칸이 보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한옥밀집지역보다 다양한 크기의 칸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지면적이 증가할수록 보 방향으로 확장이 주로 이루어지고 정면성을 갖는 도리 방향은 공간의 크기나 대지면적과 관계없이 비슷한 크기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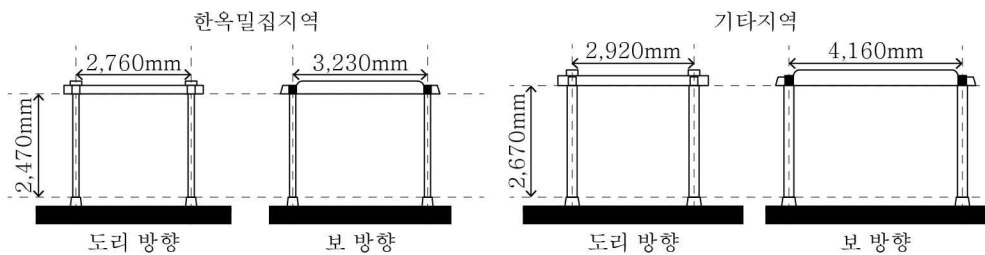


그림 3-4.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평균 크기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위치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은 몸체에만 위치한 경우가 23호 중 9호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날개체에만 위치한 경우가 7호로 나타났다. 기타지역 역시 몸체에 위치한 경우가 27호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날개체에만 위치한 경우가 11호로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은 건물의 규모가 작아 모든 체가 같은 보 길이를 갖는 경우가 5호로, 건물의 규모가 큰 기타지역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표 3-2. 지역별 가장 긴 보 칸의 위치(호)

| 가장 긴 보 칸의 위치 지역 | 몸체 | 날개체 | 몸체와 1개의 날개체 | 전체 | 합계 |
|--------------------|----|-----|-------------|----|----|
| 한옥밀집지역 | 9 | 7 | 2 | 5 | 23 |
| 기타지역 | 27 | 11 | 4 | 2 | 44 |

그리고 기둥과 주심도리, 대보의 부재 크기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에서 사각기둥은 6가지, 도리는 11가지, 보는 16가지의 단면 크기가 분포하였다. 도리의 경우 150X180의 단면 크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둥은 150X150 크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보는 모든 종류의 크기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보는 길이에 따라 부재의 단면 크기가 증가하는 반면 도리와 기둥은 하나의 한옥에서 칸의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부재가 사용되었다.

기타지역에는 4가지 단면 크기의 사각기둥과 두 가지의 원형 기둥이 나타났다. 그중 210X210과 240X240의 사각기둥이 각각 45%의 한옥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도리는 13가지의 단면 크기가 분포하고 그중 180X240과 270X27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보는

25가지의 크기가 분포하였고 모든 크기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한옥밀집지역에 비해 보 단면 사이즈가 길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지 않았고 짧은 길이의 보도 단면이 크게 나타났다.

앞에서 대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칸이 보 방향으로 확장되고 도리 방향은 그 크기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부재의 크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와 비교하면 도리와 기둥은 일정한 크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 건물에서도 대보는 두 종류 이상 사용되는 때도 있는데, 도리는 같은 크기만 사용되었다. 기둥은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의 경우 부재 크기가 작아졌지만, 이 외에는 1층과 2층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도리와 기둥은 특정 크기의 부재가 사용되었는데, 기타지역이 한옥밀집지역에 비해 큰 크기가 사용되었다. 특히 기둥의 경우 기타지역에서 지상 층수와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으로 생각되었다.

칸의 상부구조는 모두 전통목구조 방식으로 량가 구조로 되어있다. 연구대상 중에서는 3량 또는 5량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5량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층한옥에서는 2층 하부가 평천장으로 구성되고, 보와 도리보다는 평방과 창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의 채별 상부구조를 보면, 1층에서는 몸채에서 2층이 올라가면서 상부구조가 없는 경우가 22호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는 몸채가 5량으로 구성된 한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날개채는 한옥마다 개수가 다른데, 보 길이가 더 긴 날개채 두 개를 살펴본 결과 5량과 3량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층은 몸채와 날개채 구분 없이 5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층이 몸채와 날개채에 모두 위치하는 때도 모두 5량으로 되어있다.

표 3-3. 각 층의 채별 상부구조(호)

| 상부구조 채 | 1층 | | | 2층 | |
|-----------|-------------|-------------|-------------|----------|------------|
| | 2층 하부 | 3량 | 5량 | 3량 | 5량 |
| 몸채 | 22 (1, 21)* | 4 (1, 3) | 41 (21, 20) | 3 (0, 3) | 27 (1, 26) |
| 날개채1 | 7 (0, 7) | 31 (11, 20) | 26 (10, 16) | 5 (0, 5) | 11 (0, 11) |
| 날개채2 | 8 (0, 8) | 30 (10, 20) | 11 (4, 7) | 2 (0, 2) | 2 (0, 2) |

*(한옥밀집지역, 기타지역)

보 길이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 길이가 길어질수록 3량보다는 5량으로 구성하였지만, 비슷한 길이에서 두 종류가 모두 나타나기도 하였다. 1층의 경우 한옥밀집지역은 보 길이가 3m 이하에서는 두 종류가 모두 나타났고, 3m 초과 시 5량으로만 구성되었다. 기타지역은 그보다 더 긴 4m 초과 시 3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2층은 오히려 3량으로 구성된 보 칸보다 더 짧은 곳에 5량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정 길이 이하에서는 3량과 5량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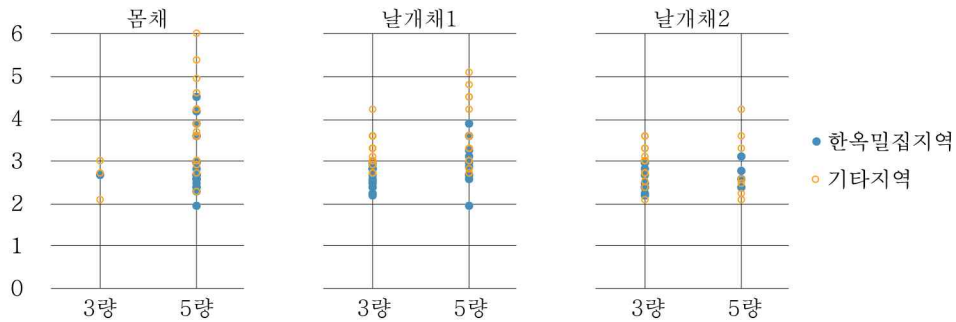


그림 3-5. 1층 각 채별 상부구조와 보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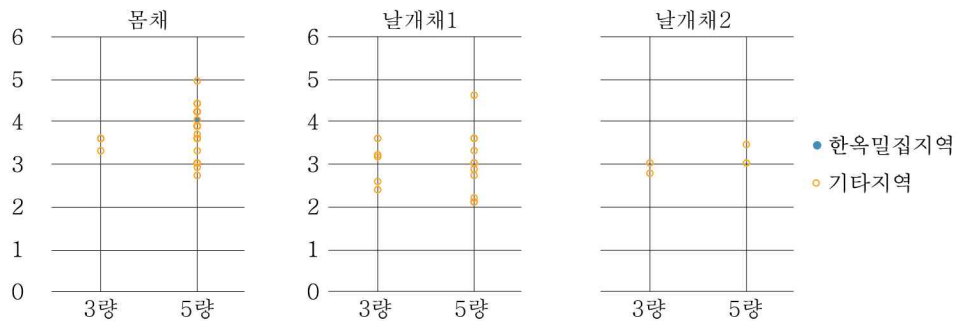


그림 3-6. 2층 각 채별 상부구조와 보 길이

3.1.2. 평면 계획

칸의 수평적 나열로 결정되는 평면은 그 형태에 따라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²⁴⁾ ‘기본형 평면’은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으로 근대도시한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배치유형이다.

그 외에는 ‘복합형 평면’으로 분류했고 T자형, H자형, ㄷ자+1칸형, 엇꺾음형, 빗꺾음형, 자유형이 있다. ㄷ자+1칸형은 기본형 평면인 ㄷ자형에 한 칸이 더 붙어 ‘h’나 ‘ㄱ’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리고 엇꺾음형은 ㄱ자형이나 ㄷ자형에서 일부 칸의 너비가 확장되거나 칸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둥의 배열이 엇갈리는 형태다. 빗꺾음형은 칸의 나열이 90도 각도로 꺾여지지 않고 대지를 따라 꺾여지는 형태고, 자유형은 다양한 방향으로 칸이 조합되는 배치유형이다.

그리고 칸의 보 방향 조합에 따라 홑집, 퇴칸집, 겹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⁵⁾ 홑

24) 평면 유형의 분류는 반침과 같이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을 제외한 칸의 조합으로 된 본체의 형태만을 고려하였다. 이는 본체를 먼저 계획한 뒤 필요한 부분에 덧칸을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집의 경우 보 방향으로 하나의 칸만 나열된 형태이고 퇴칸집은 보 방향으로 퇴칸이 붙은 형태인데, 퇴보가 없이 기둥만 배치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겹집은 보 방향으로 비슷한 크기의 칸이 덧붙은 형태로 이 또한 두 개의 대보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고려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67호의 1층 평면 유형을 보면, 기본형 평면은 35호, 복합형 평면은 32호가 분포하고 있어 신축한옥에서 복합형 평면이 기본형 평면과 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형 평면 중에서는 ㄷ자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복합형 평면에서는 자유형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20㎡~80㎡에 1층 면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복합형 평면보다 기본형 평면이 많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ㄷ자형과 ㄱ자형이 각각 8호와 6호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ㄱ자형은 없다. 복합형 평면은 4가지 유형만 있으며 8호만 나타났다. 반면 기타지역의 1층 평면은 50㎡~150㎡에 면적이 분포하고,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형 평면의 경우 6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났다. 기본형 평면 중에서는 한옥밀집지역과 동일하게 ㄷ자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一자형은 없다. 복합형 평면에서는 자유형과 ㄷ+1칸형이 많이 나타났다.

| | | | |
|--|--------------|-------------|------------|
| 기본형 평면(15, 20)* | | | |
| | | | |
| ㄷ자형 (8, 11) | ㄱ자형 (6, 7) | ㄱ자형 (0, 2) | 一자형 (1, 0) |
| 복합형 평면(8, 24) | | | |
| | | | |
| 자유형 (3, 8) | ㄷ+1칸형 (2, 7) | 엇끼음형 (1, 4) | |
| | | | |
| T자형 (0, 3) | 엇끼음형 (2, 1) | H자형 (0, 2) | |
| *(한옥밀집지역, 기타지역) □ 외벽선 □ 지붕선 ■ 처마 밑 확장 부분 | | | |

그림 3-7. 평면 유형

한옥밀집지역은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에서 모두 몸채와 날개채가 홑집인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퇴칸집의 경우 ㄷ자형과 자유형에서만 나타났고 그 외에는 모두 홑

25) 전퇴집, 전후퇴집, 양통집, 겹집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공간 계획 측면에서 칸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분하였고, 용어는 홑집, 퇴칸집, 겹집을 사용하였다.

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날개채보다 몸채가 퇴칸집 또는 겹집으로 구성되었고, 날개채만 퇴칸집 또는 겹집으로 구성된 예는 없다. 즉 몸채에만 보 방향으로 칸을 붙여 공간을 확장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타지역은 몸채와 날개채가 모두 홑집으로 된 한옥이 34.1%로 퇴칸집 또는 겹집의 형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홑집 중에서는 4호만 기본형 평면이며, 나머지 11호는 복합형 평면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본형 평면에서 퇴칸집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퇴칸집과 겹집이 한 건물에 동시에 나타나는 곳도 있어 평면 구성이 한옥밀집지역보다 더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몸채는 홑집이지만 날개채가 퇴칸집 또는 겹집으로 구성된 경우가 25호 중 10호로 나타났다. 이때 대부분 날개채가 퇴칸집 또는 겹집으로 형성되어 몸채보다 보 방향으로 공간이 더 넓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은 두 개 보로 구성된 퇴칸집 또는 겹집의 형태보다는 길이가 확장된 보 아래에 다양한 위치에 기둥을 설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옥밀집지역에 비해 보 길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칸 내부에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3-4. 기본형 평면의 칸 조합 형태(호)

| 조합 방식 | 一자형 | ㄱ자형 | ㄷ자형 | ㅁ자형 | 합계 |
|----------|-----------|----------|-----------|----------|------------|
| 홑집 | 0 (0, 0)* | 7 (5, 2) | 7 (5, 2) | 0 (0, 0) | 14 (10, 4) |
| 퇴칸집 | 1 (1, 0) | 3 (0, 3) | 10 (3, 7) | 1 (0, 1) | 15 (4, 11) |
| 겹집 | 0 (0, 0) | 3 (1, 2) | 2 (0, 2) | 1 (0, 1) | 6 (1, 5) |

*(한옥밀집지역, 기타지역)

표 3-5. 복합형 평면의 칸 조합 형태(호)

| 조합 방식 | 자유형 | ㄷ+1칸 | 엇꺽음 | T자형 | 빗꺽음 | H자형 | 합계 |
|----------|-----------|----------|----------|----------|----------|----------|------------|
| 홑집 | 5 (0, 5)* | 5 (2, 3) | 1 (1, 0) | 1 (0, 1) | 2 (2, 0) | 2 (0, 2) | 16 (5, 11) |
| 퇴칸집 | 4 (2, 2) | 2 (0, 2) | 1 (0, 1) | 1 (0, 1) | 1 (0, 1) | 0 (0, 0) | 9 (2, 7) |
| 겹집 | 2 (1, 1) | 2 (0, 2) | 2 (0, 2) | 1 (0, 1) | 0 (0, 0) | 0 (0, 0) | 7 (1, 6) |

*(한옥밀집지역, 기타지역)

각 건물의 1층의 칸수를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10칸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기타지역은 5~15칸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기타지역이 한옥밀집지역에 비해 칸수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이유는 퇴칸집과 겹집으로 구성된 곳이 많아 건물마다 칸수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지면적과의 관계를 보면 면적이 증가할수록 칸수가 증가하며 그 관계가 칸 크기보다 비교적 밀접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옥밀집지역은 증가하는 비율이 비교적 일정한데, 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100㎡ 이하의 대지에서는 6칸 이하만 나타났고, 100㎡ 이상에서는 7칸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300㎡ 이하의 대지면적에서는 6칸부

터 15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300㎡ 이상에서는 10칸 이상으로만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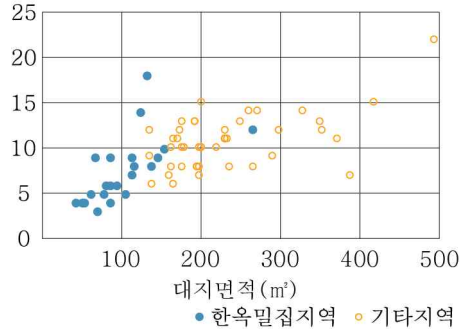


그림 3-8. 지역별 대지면적에 따른 칸수

2층의 경우 처마 밑으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대체로 20㎡에서 80㎡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1층 면적의 53.6%로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은 이층한옥이 하나뿐으로, 1층과 2층이 동일하게 一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지역의 2층 평면 유형은 34호 중 21호가 一자형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은 ㄱ자형이 10호, ㄷ자형, T자형, 엇킴음형이 각각 하나씩 나타났다. 1층에 비해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었고 평면 유형도 단순하였다. 대체로 2층은 1층의 몸체 위에 올라갔는데, ㄱ자형은 몸체와 날개체로 구성된 예도 있지만, 1층이 복합형 평면일 때 날개체 상부에만 올라갔다.

| 기본형 평면 | | | 복합형 평면 | |
|----------|----------|---------|---------|----------|
| | | | | |
| 一자형 (22) | ㄱ자형 (10) | ㄷ자형 (1) | T자형 (1) | 엇킴음형 (1) |

□ 외벽선 □ 지붕선

그림 3-9. 2층 평면 유형

한옥밀집지역의 이층한옥은 칸 조합 형태 또한 1층 평면과 동일하게 퇴칸이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2층 평면 또한 홑집보다 퇴칸집과 겹집이 더 많이 나타났다. 一자형 평면은 홑집이 9호, 퇴칸집이 8호, 겹집이 5호로 나타났다. ㄱ자형은 홑집이 4호, 퇴칸집이 5호, 겹집이 하나로 겹집보다는 퇴칸집이 많이 사용되었다.

一자형 평면은 1층이 기본형 평면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1층이 ㄷ자형일 때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2층이 복합형 평면인 경우는 1층 또한 복합형 평면일 때만 나타났다. 2층을 一자형으로 가장 많이 조성하고 있는 이유는 이층한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타지역 중 은평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층한옥에 대해 2층의 형태는 一자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²⁶⁾

표 3-6. 1층 평면 유형에 따른 2층 평면 유형(호)

| 1층 \ 2층 | 기본형 평면 | | | 복합형 평면 | | 합계 |
|---------|--------|----|---|--------|------|----|
| | 一 | ㄱ | ㄷ | T | 엇꺽음형 | |
| 기본형 평면 | 13 | 4 | 1 | 0 | 0 | 18 |
| 복합형 평면 | 9 | 6 | 0 | 1 | 1 | 17 |
| 합계 | 22 | 10 | 1 | 1 | 1 | 35 |

신축도시한옥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 계획부터 처마 밑에 칸을 덧붙여 수납용을 사용하거나 공간을 확장하였다. 대체로 90cm 안팎의 폭을 갖는 이 칸은 본체에 덧붙여 평면 및 입면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를 사용한 한옥이 한옥밀집지역에는 39.1%, 기타지역은 72.7%로 나타났다. 그리고 1층의 경우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1칸만 덧붙였는데, 기타지역은 2~6칸이 덧붙여 기타지역이 칸 조합 형태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날개채보다는 몸체에 칸이 덧붙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층한옥은 1층보다 2층에 덧붙은 칸수가 더 적으며 동일한 위치에 칸이 덧붙었다.

지상층과 다르게 콘크리트로 조성되는 지하층은 목구조와 비교하면 형태적으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지 형태에 따라 그 면적을 보면 대체로 18.0㎡에서 100.0㎡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한옥밀집지역은 지하 2층까지도 확장하고 있어, 면적이 200㎡ 이상인 한옥이 2호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100㎡ 안쪽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지하는 1층으로만 조성하였고, 한옥밀집지역과 비슷하게 100㎡ 안쪽으로 대체로 분포하고 있다.

지상층의 면적과 비교해보면, 한옥밀집지역은 지하층이 더 큰 경우가 66.6%지만 기타지역은 17.4%로 나타났다. 이는 한옥밀집지역이 대체로 지상을 한 개 층으로만 구성할 수 있어서 지하층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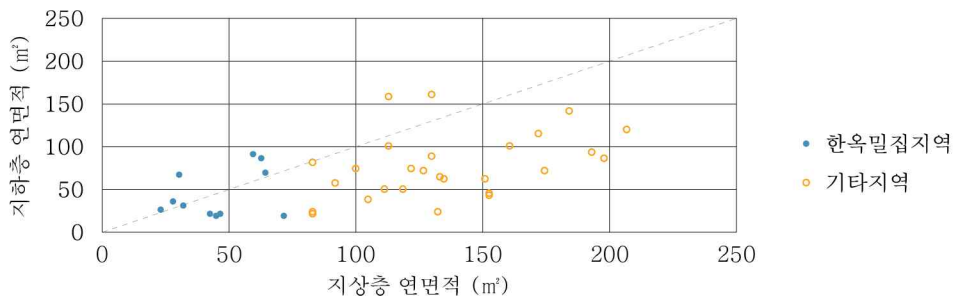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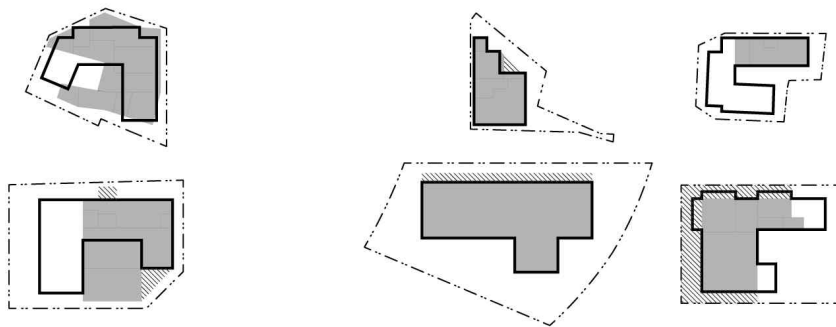


그림 3-10. 지역별 지상층 면적에 따른 지하층 면적

한옥밀집지역에는 지하층이 있는 한옥이 13호로 2층으로 확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

26) 「은평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한옥지정구역 시행지침, 제2장 한옥지정구역 지침, 제21조 6항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8호는 지상층보다 면적이 크게 구성되어 있고, 지상층의 칸 구성과 전형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오히려 대지 경계선을 따라 구성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5호는 지상층 칸에 맞춰 평면이 구성되어 있다. 형태와 별개로 모든 지하층은 도로변에 접해있다. 기타지역은 2층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활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하층의 면적이 대체로 크게 구성되는 한옥밀집지역과 다르게 대체로 1층에 비해 작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상층과 같은 칸 크기로 공간이 조성된 한옥이 27호 중 21호로 대체로 지상층의 칸 크기에 맞춰 지하가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 지상층의 칸 구성과 다른 형태

b. 지상층의 칸 구성과 동일한 형태

□ 대지경계선 □ 1층 ■ 지하층 ▨ 선큰/드라이에리어

그림 3-11. 지하층의 형태

3.1.3. 단면 계획

신축도시한옥은 다층으로 구성된 한옥이 82.1%로 수직적 확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칸이 수평적 조합뿐 아니라 수직적 조합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단부 아래로는 목구조가 아닌 콘크리트구조로 공간을 형성하여 목구조와 결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층이 어떻게 조합되고 있는지 단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락, 스킵플로어,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각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단면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다층 구성으로 된 한옥에서 1층을 기준으로 각 층의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2층은 평균적으로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1층의 면적이 작을수록 1층에 대한 2층 면적의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에 반해 지하층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의 경우 1층 면적이 커질수록 지하층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기타지역의 경우엔 1층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하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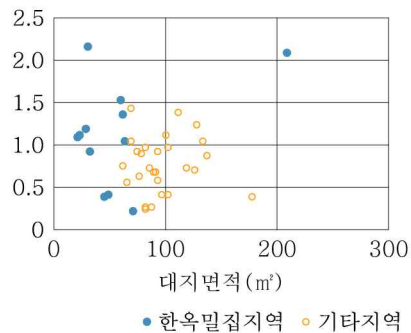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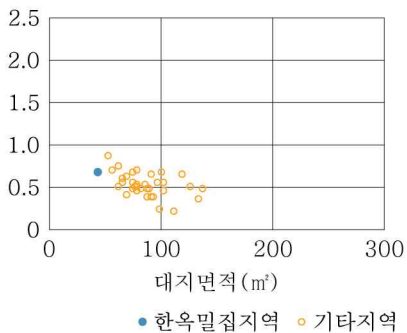


그림 3-12. 1층에 대한 2층 면적의 비율 분포

그림 3-13. 1층에 대한 지하층 면적의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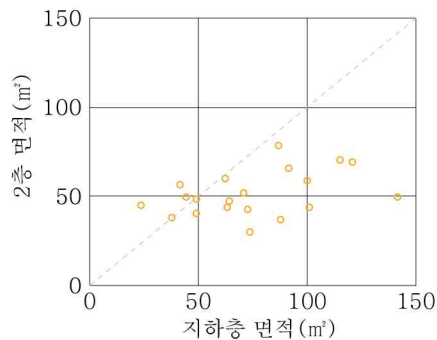


그림 3-14. 지하층과 2층 면적 분포

한편 기타지역에서는 지하층과 2층이 모두 있는 한옥에서 대체로 2층보다 지하층의 면적이 더 크게 형성되어있다. 이는 2층의 평면형태와 면적 비율에 대한 규제에 의해 2층을 크게 형성할 수 없으므로 지하층을 더 크게 형성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층은 대부분 1층의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이 모두 같은 너비의 칸으로 올라갔다. 특히 보 방향이 같은 너비일 때 도리 방향 입면이 같은 면으로 외벽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심의 기준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입면 비율을 고려하여 1층과 2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난간이나 눈썹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²⁷⁾ 또한, 2층이 1층보다 적은 수의 칸으로 구성되면서, 1층의 지붕을 분절하고 있다. 게다가 2층으로 인해 분할된 1층의 지붕은 2층 외벽의 반 이상 용마루가 올라와 있다. 그에 반해 눈썹지붕은 평방에 서까래가 걸리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창호의 위치와 크기가 제한되어 2층의 입면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그림 3-15 1층과 2층의 칸이 보 방향으로 동일한 너비로 구성된 한옥

그러므로 2층의 위치는 전체 건물의 지붕 형태와 입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1층의 몸체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一자형의 경우 21호 중 17호가 몸체에 위치하였다. 이로 인해 1층의 평면이 복합형으로 구성되어도 지붕은 대체로 一자형 또는 ㄱ자형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일부 2층의 칸 크기가 1층보다 작게 구성될 때는 1층에 반쪽 지붕이 형성되었다.

표 3-7. 2층의 위치(호)

| 2층 평면 \ 1층에서의 위치 | 몸체 | 날개채 | 몸체와 날개채 |
|------------------|----|-----|---------|
| 一자형 | 17 | 4 | 0 |
| ㄱ자형 | 4 | 2 | 4 |
| ㄷ자형 | 1 | 0 | 0 |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7호, 2015. 12. 21., 제정] 「한옥건축기준」 제6조(외벽 및 창호) 3항과 은평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21 조 (이층한옥 : 규제 /권장사항) 2항에 근거한다.

1층의 지붕 형태를 보면, 33호의 한옥 중²⁸⁾ 눈썹지붕을 제외하고 총 지붕 개수가 2개인 한옥이 13호, 3개 이상인 한옥이 20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이층한옥에서 2층이 1층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1층의 지붕을 분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할된 1층의 지붕 중 27호에서 一자형이 1개 이상 나타났는데 그중 12호는 一자형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눈썹지붕의 설치로 인해 분할된 1층 지붕이 연장 및 연결되면서 가로변에서는 一자형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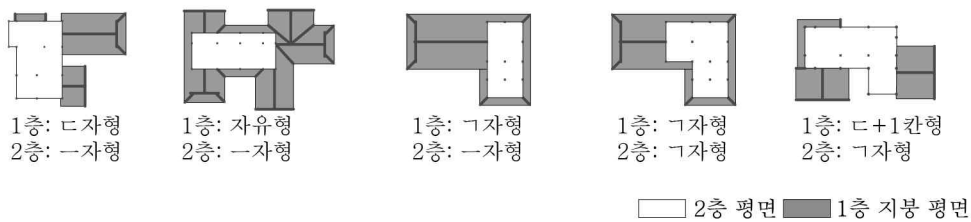


그림 3-16. 1층 지붕과 2층 평면 유형

이층한옥의 지붕 유형을 보면 1층은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맞배지붕이 가장 많았다. 그에 반해 가장 높은 2층의 지붕은 외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으로 팔작지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단층한옥에서는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 하나의 유형으로만 된 한옥의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대체로 두 유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표 3-8. 각 층별 지붕 유형(호)

| 1층지붕 \ 2층지붕 | | | | | | |
|-------------|----|----|----|-------|-----------|----|
| | 없음 | 맞배 | 팔작 | 맞배+팔작 | 맞배+팔작+우진각 | 합계 |
| 없음 | 0 | 0 | 2 | 0 | 0 | 2 |
| 맞배 | 3 | 2 | 5 | 4 | 1 | 15 |
| 팔작 | 4 | 0 | 5 | 0 | 0 | 9 |
| 맞배+팔작 | 20 | 7 | 8 | 0 | 0 | 35 |
| 맞배+우진각 | 1 | 1 | 0 | 0 | 0 | 2 |
| 우진각+팔작 | 3 | 0 | 0 | 0 | 0 | 3 |
| 맞배+팔작+우진각 | 1 | 0 | 0 | 0 | 0 | 1 |
| 합계 | 32 | 10 | 20 | 4 | 1 | 67 |

그리고 단층한옥의 높이와 이층한옥의 단층으로 된 채의 지붕높이를 비교해보면, 단층한옥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의 이층한옥들의 높이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이는 것을 피하고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되었다. 이층한옥의 1층과 2층의 기둥 높이는 동일하게 조성된 한옥이 많으며, 난방시설의 발달로 2층 바닥의 두께는 목구조 상부에 100~150mm 사이로 조성되었다.

28) 1층과 2층이 같은 형태의 평면인 두 개의 사례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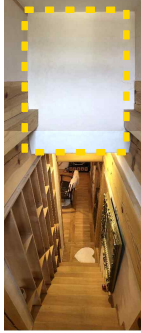


그림 3-17. 계단실 상부 활용

내부에서는 단층 부분과 중층 부분이 만나는 지점에서 공간의 높이와 상부구조가 달라졌다. 일부 한옥에서는 1층과 2층 사이를 개방하여 아트리움과 같은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1층에서 2층까지 개방된 공간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크기의 내부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계단이 내부에 설치되면서 아트리움과 비슷한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일부는 계단 상하부 공간을 수납 또는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은 바닥 또는 천장의 설치를 통해 칸을 분할하여 형성한 공간으로 칸 자체의 높이를 다양하게 구성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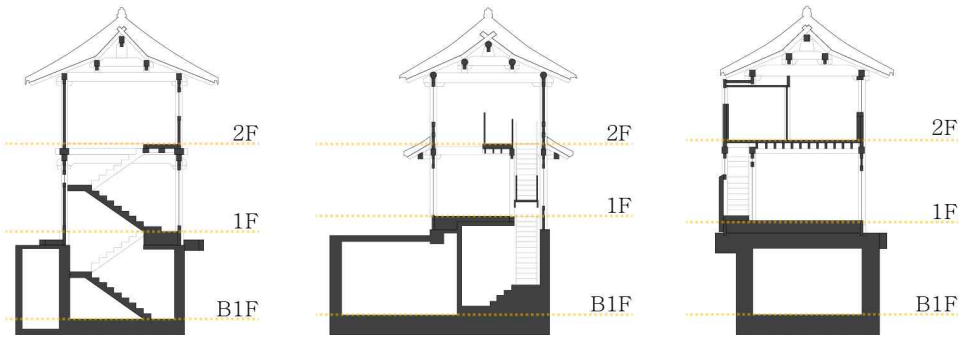


그림 3-18. 이층한옥의 계단실 단면 사례(아트리움 형태와 공간 활용)

신축도시한옥의 또 다른 특징인 지하층을 한옥밀집지역에는 13호가 갖고 있으며 기타지역에는 27호가 갖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에서는 인접 대지와 레벨 차이가 평균 0.91m로, 2m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이러한 높이차를 이용하여 가로변으로 지하층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노출된 지하층의 외벽에 별도의 창을 설치하거나 도로변의 입구와 마당 사이에 높이 차이로 자연스럽게 선긋과 같은 공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일부 한옥에서는 아무런 설비 없이 지하층이 조성된 곳도 있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에서는 평균 0.34m로 비교적 평평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 대지 내에 따로 선긋이나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하고 있다. 일부 한옥은 이 대신 지하층 일부를 대지 위로 노출하여 별도의 창호가 설치되었다.

표 3-9. 선긋과 드라이에리어의 지역별 분포(호)

| 개구부 \ 지역 | 한옥밀집지역 | 기타지역 | 합계 |
|----------|--------|------|----|
| 선긋 | 4 | 17 | 21 |
| 드라이에리어 | 2 | 10 | 12 |

무엇보다 지하층은 목구조가 아닌 콘크리트로 구축되기 때문에 지상층과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조성된다. 실제로 두 공간의 인테리어를 다르게 조성하기도 하며, 각 층의 용도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도면을 통해 각 층의 용도를 보면, 대체로 지상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고 지하는 취미 또는 창고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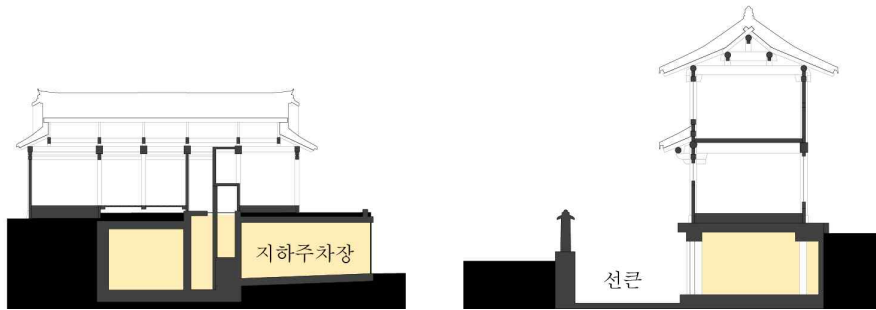


그림 3-19. 단면으로 본 지하층과 지상층의 조합 형태

한편 한옥밀집지역에는 지하층의 형태가 지상층과 다르게 구성된 한옥이 많다. 이 경우 단면을 보면, 형태뿐 아니라 내부의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도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 두 공간이 전혀 다른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에는 대부분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그 형태는 지상층 칸의 보 방향 너비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면에서 지하와 지상층의 외벽선이 같은 위치에서 올라갔다. 지하층과 2층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총 3개 층의 입면이 같은 외벽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칸을 적층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것 외에 내부 바닥에 높이차를 주거나 칸을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공간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중 칸을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만드는 다락은 조선시대 주택에서도 70% 이상이 가지고 있고 대체로 바닥이 낮은 부엌의 상부에 설치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였다.²⁹⁾ 이는 경사지붕으로 인해 형성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축도시한옥에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한옥밀집지역에서는 23호 중 8호로 34.8%가량이 가지고 있으며, 기타지역에서 44호 중 8호로 18.2%만이 가지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지상으로 한 개 층으로 되어있어 기타지역보다 다락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타지역에서는 이층한옥에서도 다락이 나타났는데, 한 곳은 다락이 1층에 있으며 나머지 3호는 2층에 있다.

조선시대 주택에서의 다락은 부엌이나 창고의 상부에 설치되어 대부분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현대한옥에서는 수납 외에도 방으로도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락이 있는 한옥 16호 중 10호는 다락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6호의 한옥에는 2개 이상

29) 김수범, 『조선시대 주택의 다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p.22

의 다락이 있어 총 23개의 다락이 분포하였다.

표 3-10. 지역별 다락 분포(호)

| 지역 \ 건물별 다락 수 | 1 | 2 | 3 | 합계 |
|---------------|---|---|---|----|
| 한옥밀집지역 | 5 | 2 | 1 | 8 |
| 기타지역 | 5 | 4 | 0 | 9 |

주로 방과 욕실 상부에 설치되었고, 오히려 부엌 상부에 설치된 다락은 2개만 있다. 방에 설치된 다락은 대부분 각 방에서 바로 진입하였고 욕실 위에 설치된 다락은 거실이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진입할 수 있다. 각 다락의 용도를 보면, 7개만 수납용으로 설치됐고 나머지 16개는 방으로 설치되었다.



그림 3-20. 다락방

다락 높이에 맞춰 창호가 설치된 곳은 - 개소로 나타나 입면에서도 다락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방으로 사용되는 다락에 창호가 설치되는 비율이 높았고, 수납용에는 설치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옥의 지붕 높이는 대체로 지붕구조인 랑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락이 위치한 채의 지붕구조를 살펴보면 5랑가가 15개, 3랑가가 8개로 대체로 5랑가에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랑가에 설치된 다락은 모두 가장 높은 용마루로 나타났고 대부분 몸체에 위치하였다. 한편 날개채에 다락이 위치한 때에도 가장 높은 지붕으로 구성되었다. 3랑가에 설치된 다락은 모두 몸체가 아닌 날개채에 위치하였는데, 3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붕 높이가 건물에서 가장 높게 형성된 곳도 있다. 이 경우에는 높은 기둥을 사용해 건물의 높이를 올렸다.

다락 유무에 따른 용마루 높이를 비교해보면 그 분포가 비슷하여 다락으로 인해 건물의 높이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 즉, 전체적으로 신축도시한옥의 높이는 비슷하게 조성되고 있고 다락은 그 범위 안에서 칸을 분할하여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공간의 높이를 살펴보면, 다락이 설치된 곳의 하부공간의 천장높이는 평균 2.08m이었고 다락이 없는 공간의 천장높이는 평균 2.38m로 0.3m의 차이가 나타났다.³⁰⁾ 그리고 다락의 바닥에서 종도리 하부까지의 높이를 보면, 평균 1.4m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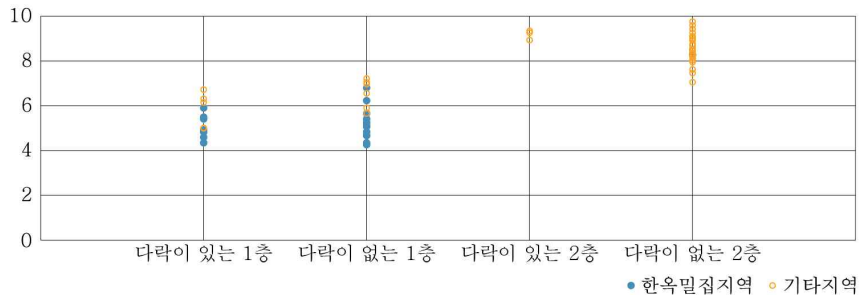


그림 3-21. 다락 유무에 따른 지붕 높이

지역별로 다락이 있는 칸을 분할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한옥밀집지역은 다락 하부의 평균 높이가 3량가는 2.05m, 5량가는 2.02m로 비슷하지만, 다락의 높이는 3량가는 1.24m, 5량가는 1.60m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다락 하부의 평균 높이가 3량가는 1.92m, 5량가는 2.31m이었고 다락의 높이는 3량가는 1.46m, 5량가는 1.44m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한옥밀집지역은 상부구조에 따라 다락의 높이가 달라지는 반면 기타지역은 하부공간의 높이가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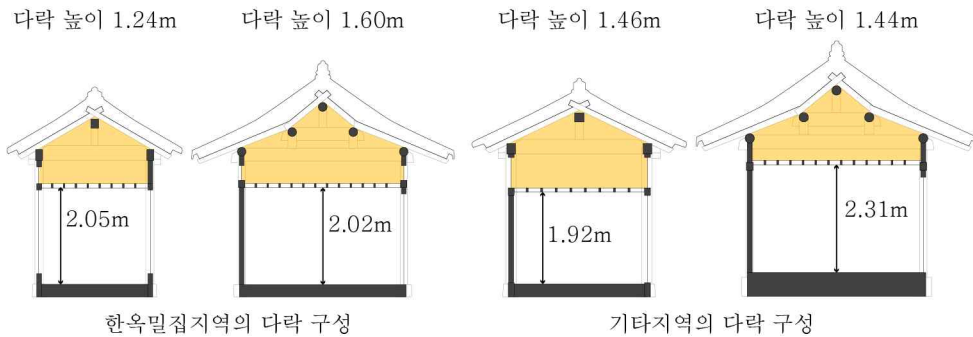


그림 3-22. 지역별 3량가와 5량가 지붕 하부의 다락 구성

그리고 다락 하부공간의 천장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바닥 높이를 낮추어 스킵플로어가 조성된 곳도 있다. 이는 기둥을 높은 것을 사용한 방식이 아닌 내부 바닥 자체를 낮추고 초석을 내부로 들어내는 방향으로 조성하였다. 전통한옥에서는 초석이 드러나는 공간은 흙바닥이었지만 현대한옥에서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와 바닥을 구성하고 보일러를 설치하여 마감하고 있어 실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스킵플로어는 다양한 이유로 형성되었다. 스킵플로어는 2~3개 정도의 단을 사용하여 바닥 높이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스플릿플로어라고도 한다. 2층이나 다락처럼

30) 천장이 없는 공간일 경우 바닥에서부터 보 하부까지의 높이를 사용하였다.

수직적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있지만, 바닥 높이의 변화를 통해 벽체나 창호 없이 공간의 경계를 형성하는 장치다. 전통한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 채의 위계, 대지의 경사, 실의 용도별 바닥 구성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킵플로어가 형성되었다. 신축도시한옥에서는 다층 구성에서 층별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되거나, 특정 실의 용도에 따라 형성되었다.

먼저 다층으로 구성된 한옥에서 지하 또는 2층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1층에 스킵플로어가 나타났다. 지하가 있는 한옥은 환기 및 채광을 위해 지하층을 대지 위로 일부 노출하면서 스킵플로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지하층의 천정이 1층의 기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하층이 있는 채와 없는 채 사이에 기단의 높이에 변화가 생겼고, 1층의 내부 바닥으로도 나타났다. 이층한옥에서는 2층으로 된 채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낮추면서 스킵플로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건물의 비율을 고려한 설계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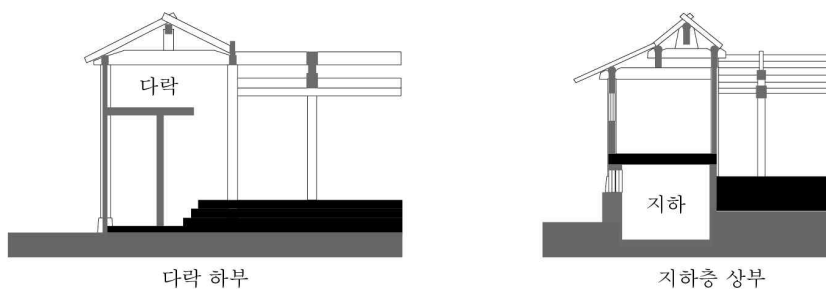


그림 3-23.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스킵플로어

이렇게 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적 조정 외에도 일부 실의 용도에 맞춰 스킵플로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중 누마루는 높은 마루 공간으로 신축도시한옥에서도 나타났는데 바닥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기단과 장초석을 사용하여 누마루 칸을 다른 칸보다 높이고 있는데, 평균 0.3m 정도 높이의 차이가 났다. 일부 한옥은 장초석을 사용하였지만, 내부 바닥의 높이 차이를 주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외부에서는 칸의 높이 차이가 전혀 없지만, 내부 바닥의 높이만 다르게 형성된 사례도 있다. 높이차이 외에도 바닥 재료가 전통방식의 마루가 아닌 온돌마루가 깔렸다. 그리고 일부는 입식가구인 식탁이 놓여 식당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스킵플로어가 많이 사용된 곳은 현관과 욕실로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보편적이지만 한옥에 존재하지 않았던 실이다. 이 공간들은 물을 사용하거나 신발을 두기 때문에 바닥에 높이 차이를 주게 된다. 이를 위해 기단이나 초석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칸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바닥 높이에만 변화를 주었다. 이로 인해 초석이 내부에 드러나는 경우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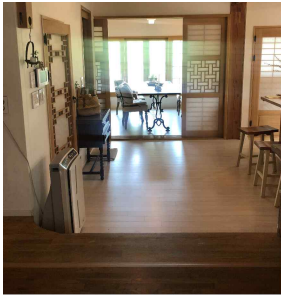


그림 3-24. 스킵플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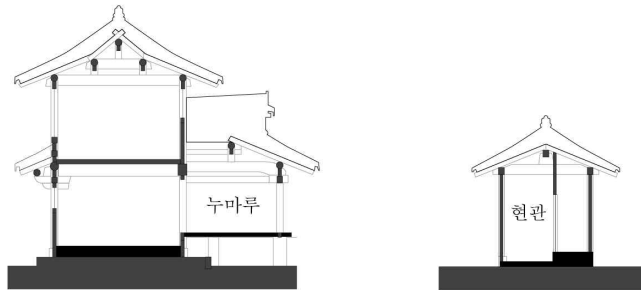


그림 3-25. 공간 특성에 따라 조성된 스킵플로어

이 경우를 제외하고 스킵플로어가 사용된 한옥은 28호로 최소 0.12m에서 최대 1.1m까지의 높이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 1~2개의 단을 두어 사용하고 있다. 그 중 18호만 초석 또는 기단의 높이가 다르게 조성되어 칸이 어긋나게 연결되었고, 나머지 10호에서는 바닥으로만 높이차를 주어, 입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스킵플로어가 사용되지 않은 39호에서는 모두 동일한 높이의 기단에서 동일한 높이의 칸이 나열되고 있다.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의 경우 다양한 구조로 조성되었다. 그 크기는 본체의 처마선 안으로 조성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일부 처마선 넘어서까지 조성된 경우도 나타났다. 단면을 보면, 대체로 보 없이 도리만을 사용하여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일부 퇴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칸이 바닥에 닿지 않는 구조일 경우엔 까치발을 하부에 두어 구조적인 부분을 보강하였다. 그 외에는 초석을 두고 기둥을 올려 본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칸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내부 바닥은 본체와 동일한 높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층한옥에서는 1층에서부터 2층까지 동일한 크기로 조성된 곳도 있다.

지붕 처리 방식은 두 지역 모두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은 따로 덧지붕을 두는 것이고, 본체의 처마까지 벽체를 올려서 마감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덧지붕의 경우 경사가 있는 것과 평지붕의 형태가 사용되었고 마감 재료는 본체와 같은 기와지붕을 두거나, 동판으로 마감하여 방수 처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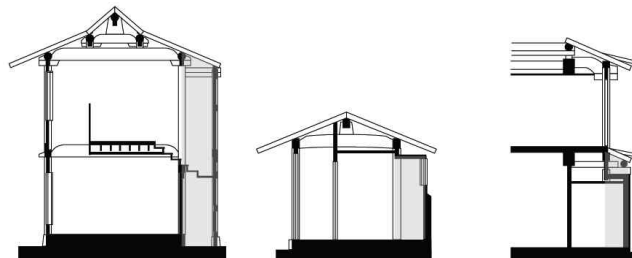


그림 3-26. 처마 밑에 덧붙은 칸의 단면 구조

3.2. 대지의 형태와 배치 계획

3.2.1. 대지 조건

도시주거의 배치는 법령 등의 제도와 도로의 폭, 위치와 필지의 면적, 형태, 향 등 대지 조건에 의해 물리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한옥은 격자형으로 조합되는 칸의 특성과 일정 길이 이상의 처마를 갖는 지붕으로 인해³¹⁾ 배치 형태가 대지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도시가 고밀화되는 과정에서도 근대도시한옥은 가운데 마당을 두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옥에서 마당은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³²⁾ 그러므로 도시한옥의 배치에서도 마당은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용도 또는 목적을 위해 조성된 마당 외에도 대지 경계와 건물 사이에서 의도되지 않은 틈새 또한 대지와 건물의 배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양한 대지 조건 중에서도 대지의 형태는 배치방식과 외부 공간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대지의 형태를 3개의 면이 직각에 가까운 사각형의 대지를 ‘정형 대지’로 분류하고 그 외의 형태는 모두 ‘비정형 대지’로 분류하여 대지 형태에 따른 배치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건물의 배치는 3.1에서 살펴본 1층 평면 유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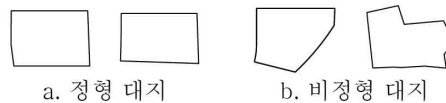


그림 3-27. 대지 형태 유형

먼저 연구대상이 위치한 대지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제도에 따라 구분한 한옥밀집지역과 기타지역은 대지의 물리적인 조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한옥밀집지역은 조선시대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어온 곳이다. 그에 반해 연구대상이 분포하고 있는 기타지역은 200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가 대부분이다. 이 두 지역은 도시조직부터 면적, 형태 등에서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 한옥밀집지역

서울시에서 지정한 여러 한옥밀집지역 중 연구대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의 건폐율은 대부분 2015년 이전에는 60% 이하로, 돈화문로일대에 위치한 사례만 80% 이하로 지정

31)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등에서 일정 길이 이상의 처마 깊이를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2) 한옥이 갖추어야할 필수 요소에 대한 조사에서 지붕, 대청마루 등 내부 공간, 목구조, 마당, 담장 등 외부 공간 등이 선택되었다. 이종민 외 3인, 『2017 한옥 통계백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p.82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북촌과 경복궁서측지역이 한옥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0%가 더 추가로 완화되면서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대지 조건을 살펴보면, 인접도로의 폭은 대부분 1~8m로 다양하지만, 일부 대지는 최대 도로의 폭이 3m가 되지 않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지가 경사지에 위치하여 인접 대지 또는 도로와 레벨 차이가 평균 1.3m 정도 차이가 났으며, 최대 4.5m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대상 대지와 인접 대지의 높이가 동일한 사례는 5호, 대상 대지가 가장 높은 사례는 8호이며 나머지 10호는 중간에 위치하여 인접 대지와 계단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접 대지에 있는 건물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중 주변 건물이 한옥만 있는 사례는 6호이며, 그 외에는 일반건물과 한옥이 섞여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지면적은 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50~150m²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분포하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형성되어있던 주거지로, 그 당시의 도시구조를 기반으로 변화되었다. 북촌은 조선 시대에 형성된 구불구불한 길 위에 도시한옥주거지가 다양한 개발업자에 의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개발되었다.³³⁾ 이때 정형의 필지들이 대량공급 되었고 이후에는 큰길 주변으로 합필 개발에 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내부의 소형 필지들은 대부분 유지되었다.³⁴⁾ 그리고 경복궁서측지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필지가 그 옆으로 구성되면서 불규칙한 형태의 도시구조가 형성되었다. 이후 1890년대부터는 하천을 복개하고 격자형 구조의 주거지도 형성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필지로 구성되었다.³⁵⁾ 돈화문로 일대는 조선 시대에 창경궁 앞의 직선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으로 북촌과 경복궁서측지역보다 규칙적인 격자형의 도시조직으로 대부분 정형의 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은 이 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정형 대지가 5호, 비정형 대지가 18호로 나타났다.

2) 기타지역

기타지역은 부암동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2010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단독주택단지로 현대생활방식에서 요구하는 도로 폭, 대지면적 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1종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단지다. 가장 많은 신축도시한옥이 분포하고 있는 은평한옥마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한옥만 지을 수 있게 규제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50%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한옥밀집지역보다 낮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평균 건폐율이 40.7%로 한옥밀집지역의 평균 건폐율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있다.

기타지역 중 가장 많은 한옥이 분포하고 있는 은평한옥마을은 2012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안에 한옥의 외관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그중 한옥의 배치에

33) 성태원, 송인호,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9(9), 2003, p.110

34) 조준범, 최찬환, 「필지 분합을 통해본 서울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9(2), 2003, p.128

35) 정기황, 앞의 논문, 2015, pp. 30-34

관한 내용은 대지 내 진입은 북측 진입을 지양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³⁶⁾

부암동의 경우 자연발생주거지로 가지형 도로의 구조를 갖지만, 수서동과 은평한옥마을은 계획된 주거지로 격자형 구조를 갖는다. 도심지보다는 교외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밀도가 낮다. 그리고 대지면적이 대부분 150~300㎡에 분포하고 합필한 대지의 경우 최대 500㎡까지도 나타났다.

도로 폭은 최소 2m에서 최대 12m까지 나타나는데 그중 4, 6m의 도로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모든 대지 앞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대지 형태는 정형과 비정형이 각 21호와 23호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은평한옥마을이 격자형이지만 직선과 곡선도로가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한옥밀집지역의 비정형 대지와 비교하면 요철이 적다.

그리고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여 인접 대지 또는 도로와 1m 안쪽으로 높이 차이가 나며 인위적으로 대상 대지를 높인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인접 대지에 있는 건물 유형을 살펴보면 은평한옥마을은 단지 내에서는 한옥만 건축할 수 있어서 비한옥을 볼 수 없지만, 수서동과 부암동의 한옥은 일반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옥으로 된 유일한 주택이다.

3.2.2. 배치 유형

한옥의 평면형태는 외부 공간의 형태로도 직결되며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의 마당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당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건물에 둘러싸인 중정과 대지경계와 건물 사이에 있는 뒷마당이 있다. 한옥은 처마가 있어 대지경계로부터 외벽까지 처마 깊이만큼의 공간은 형성된다. 이 공간은 처마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뒷마당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처마 깊이 이상의 외부공간이 형성되어 있을 때만 뒷마당으로 보았다.

1) 한옥밀집지역

대지 형태에 따른 배치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형 대지에는 기본형 평면만 5호가 나타났지만, 비정형 대지에는 기본형 평면이 10호, 복합형 평면이 8호로 두 유형 모두 나타났다. 정형 대지에는 기본형 평면 중 ㄱ자형이 4호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비정형 대지에는 기본형 평면 중 ㄷ자형이 7호로 가장 많이 있고 ㄱ자형이 2호, 一자형이 1호가 있다. 복합형 평면은 모두 비정형 대지에 분포하였다. 기본형 평면은 대지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났지만, 복합형 평면은 비정형 대지에만 나타났다.

36) 「은평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한옥지정구역 시행지침, 제 2장 한옥지정구역 지침, 제11조 1항

표 3-11. 대지 유형별 기본형 평면의 분포(호)

| | ┐자형 | ㄷ자형 | ┌자형 | 합계 |
|--------|-----|-----|-----|----|
| 정형 대지 | 4 | 1 | 0 | 5 |
| 비정형 대지 | 2 | 7 | 1 | 10 |

표 3-12. 대지 유형별 복합형 평면의 분포(호)

| | ㄷ+1칸형 | 엇꺾음형 | 빗꺾음형 | 자유형 | 합계 |
|--------|-------|------|------|-----|----|
| 정형 대지 | 0 | 0 | 0 | 0 | 0 |
| 비정형 대지 | 2 | 1 | 2 | 3 | 8 |

그리고 ┐자형과 ┌자형은 대체로 면적이 100㎡가 되지 않는 작은 대지에만 나타났는데, 그에 반해 ㄷ자형은 다양한 면적에 분포하였다. 이 지역의 대상은 건폐율이 작게는 27.1%에서 60.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지 형태나 평면 유형과는 크게 관계 없이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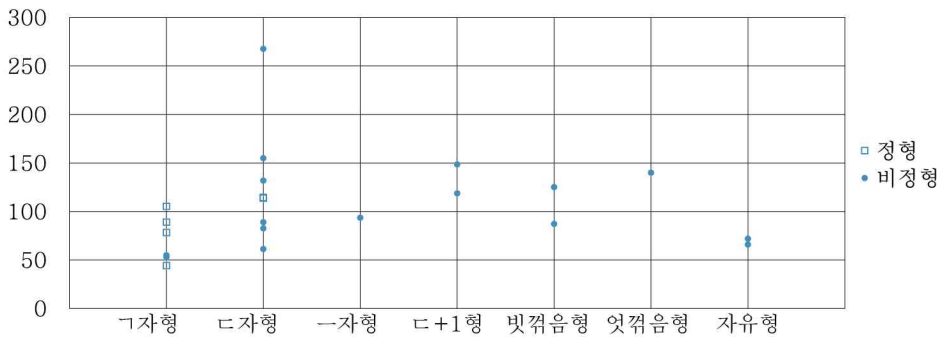


그림 3-28. 한옥밀집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대지면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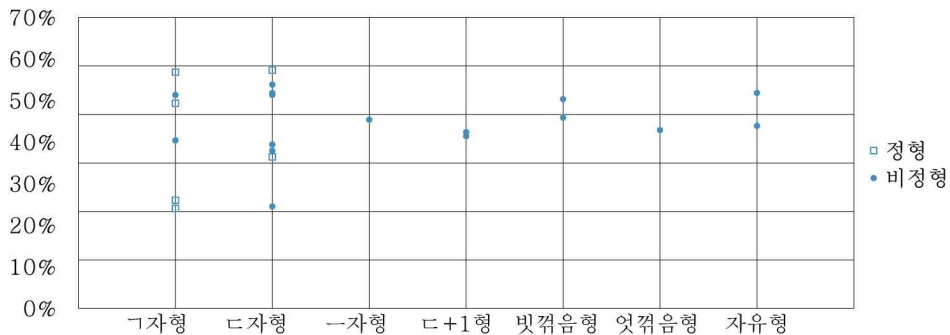


그림 3-29. 한옥밀집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건폐율

평면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마당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일부 남향이 아닌 배치

형태를 보이는 한옥이 있는데, ㄷ자형인 원서동1과 권농동1, 그리고 복합형인 누하동2, 누하동3, 누하동4가 동향으로 두고 있다. 이 한옥들이 남향으로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해당하는 대지 형태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거나 이전 한옥의 배치방식을 따라 계획되기 위해 남향을 포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서동1은 남북으로 긴 대지 위에 ㄷ자형을 배치했고, 누하동2 역시 남북으로 긴 대지 위에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을 배치하고 서쪽에 도출된 대지를 따라 1칸이 덧붙은 복합형으로 계획되었다. 이 두 한옥은 ㄱ자형이나 一자형에 남향 마당을 갖기보다 칸을 추가하여 면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누하동3은 대지가 작고 서쪽과 남쪽으로 길고 북동쪽이 짧은 사다리꼴의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남서쪽에 배치하고 북동쪽에 마당을 형성하였다.

권농동1은 마당을 남쪽으로 두고 대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했으나, 주변 한옥과 대지에 있던 이전 한옥의 배치를 따르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서울시에서 제안을 받아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³⁷⁾ 누하동4 또한 이전 한옥의 배치를 따라 계획되었다. 마당을 남향으로 두기 위해서는 대지의 남동쪽 일부가 잘려나간 형태이기 때문에 一자형 또는 ㄱ자형만 가능한데,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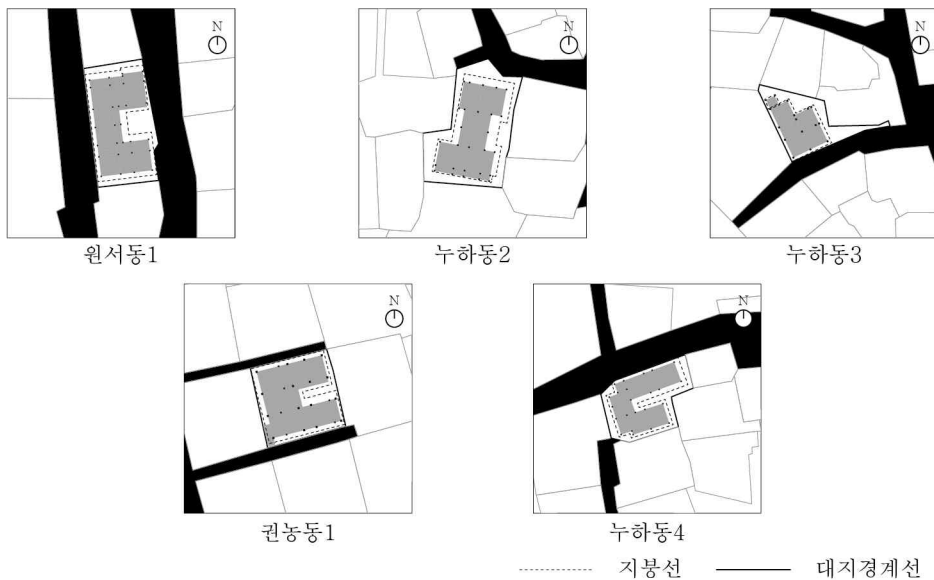


그림 3-30. 한옥밀집지역의 동향 배치 한옥

37)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초기 계획안과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남쪽으로 열린 ㄷ자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심의 전에 서울시에 계획안에 대해 문의했고 변경 권고를 받았다. 그에 따라 주변 한옥들과 이전 한옥의 배치 형태를 따라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외부로 ‘열린 배치’를 가진 한옥은 11호 도로 쪽으로 ‘닫힌 배치’는 12호로 나타났다. ‘열린 배치’는 마당이 가로에 면하여 배치되고 담장이 외부와 내부의 영역이 구분하지만 ‘닫힌 배치’는 건물이 가로에 면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열린 배치에 비해 내향적인 마당을 형성한다. 이는 가로 경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닫힌 배치는 건물의 벽이 가로에서 보이지만 열린 배치는 담장 높이가 건물에 비해 낮아서 마당에서 시각적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 열린 배치의 한옥은 도로가 대지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남향에 배치한 마당이 가로를 향해 열린 배치가 된다. 그리고 도로가 동쪽에 있지만 열린 배치일 때 대지 형태가 남북 방향으로 길어 건물 배치로 마당이 동향으로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한옥밀집지역의 특성상 열린 배치지만 마당이 매우 협소하여 대문으로 마당을 전부 가리거나 대지의 높이 차이로 가로에서 웅벽만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폐쇄적인 마당을 갖는다.



그림 3-31. 도로변을 마당이 위치하는 열린 배치지만 내향적 마당을 갖는 한옥

2) 기타지역

대지 형태에 따른 배치 유형을 살펴보면, 23호의 비정형 대지 중 기본형 평면은 4호만 있지만, 복합형 평면은 19호가 있다. 그에 반해 정형의 대지 21호에는 기본형 평면이 16호, 복합형 평면이 5호만 있어 한옥밀집지역과 비교하면 대지 형태에 따라 배치 유형의 분포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형의 대지에는 ㄷ자형이 9호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다음은 ㄱ자형이 5호로 나타났다. 비정형 대지에는 ㄷ자+1칸형이 7호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자유형이 6호로 많았다.

표 3-13. 대지 유형별 기본형 평면의 분포(호)

| 평면형태 대지형태 | ㄱ자형 | ㄷ자형 | ㄱ자형 | 합계 |
|--------------|-----|-----|-----|----|
| 정형 대지 | 5 | 9 | 2 | 16 |
| 비정형 대지 | 2 | 2 | 0 | 4 |

표 3-14. 대지 유형별 복합형 평면의 분포(호)

| 평면형태 대지형태 | T자형 | H자형 | ㄷ+1칸형 | 엇깎음형 | 빗깎음형 | 자유형 | 합계 |
|--------------|-----|-----|-------|------|------|-----|----|
| 정형 대지 | 0 | 2 | 0 | 1 | 0 | 2 | 5 |
| 비정형 대지 | 3 | 0 | 7 | 2 | 1 | 6 | 19 |

기본형 평면은 두 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250m² 이하의 대지면적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복합형 평면은 250m² 이하뿐 아니라 그 이상의 대지면적에도 나타나 대지면적이 증가할수록 복합형 평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폐율의 경우, 22.5%에서 50%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대지 형태와 평면 유형에 따라 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정형 대지가 비정형 대지보다 건폐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형 대지에는 기본형 평면이 분포하고 비정형 대지에는 복합형 평면이 분포하고 있어 건폐율도 기본형 평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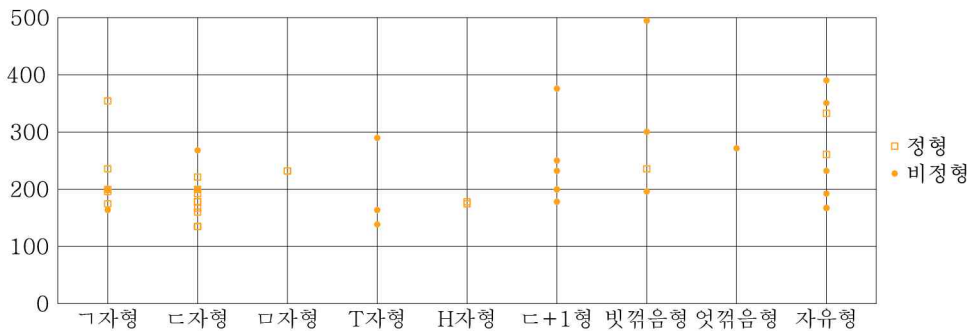


그림 3-32. 기타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대지면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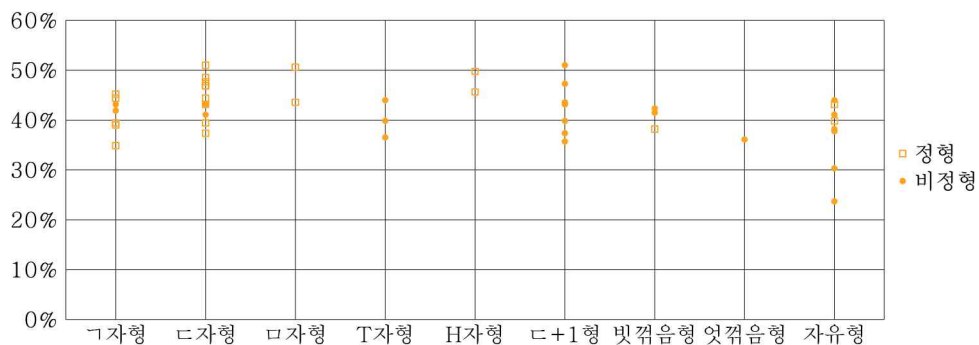


그림 3-33. 기타지역의 평면 유형과 대지 형태에 따른 건폐율

이 지역의 배치를 보면 마당을 남향으로 두고 있는 한옥이 39호로 9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 나대지에 신축할 때 남향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5호는 동향

의 마당을 두고 있는데 대지의 비율이 남북 방향으로 더 길게 나타났다. 그 중 수서동1, 진관동3, 진관동34는 대지의 형태를 따라 최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동향에 마당을 둔 ㄷ자형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진관동26과 진관동28은 두 개의 필지를 합필하여 대지가 다른 한옥들에 비해 2배가량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배치를 선택하여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동향으로 배치한 것은 남향에 있는 인접 건물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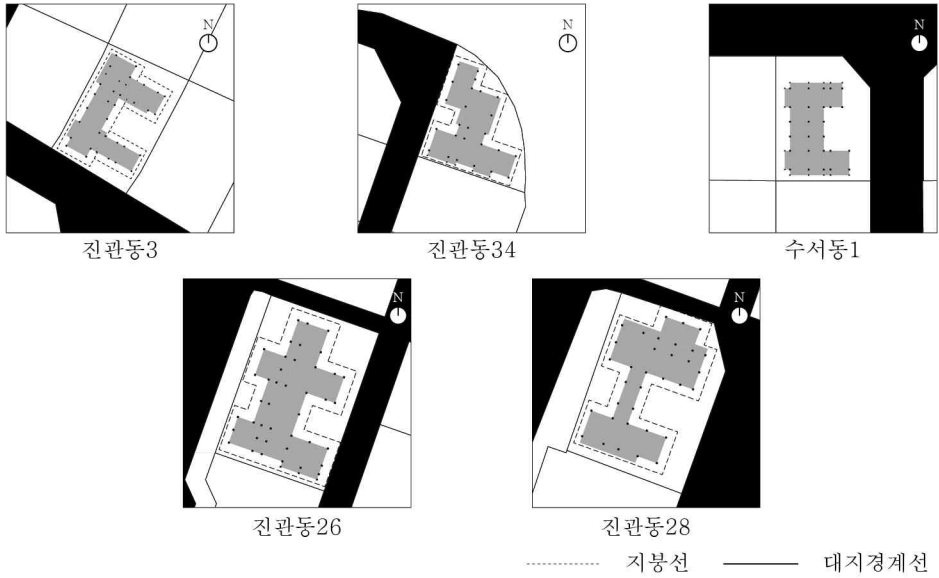


그림 3-34. 기타지역의 동향 배치 한옥



그림 3-35. 열린배치



그림 3-36. 단한 배치

기타지역의 한옥은 29호가 열린 배치이며 단한 배치는 15호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접 도로와 높이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마당과 외부의 시각적 교류가 자유롭다. 단한 배치는 대부분 남북 방향의 길에 면해 一자형이 수평으로 배치되어 문간이 있거나 대문이 있다. 대문은 대부분 一자형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단한 배치의 한옥은 ㄷ자형이나 ㄷ자형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근대도시한옥과 비슷한 배치방식을 보였다.

이층한옥은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기타지역에만 나타났다. 이들의 2층 평면과 대지의 관계를 보면, 모두 중정을 향해 도리 방향의 입면이 배치되고 있으며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지만, 동향과 서향도 있다. 그리고 인접도로에 면하여 배치되거나 인접 대지에 면하여 배치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층의 방향에 따라 인접도로와 도리 방향의 입면이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된 ‘수평 배치’와 직각으로 배치된 ‘직각 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층이 인접 대지에 면하여 배치되어 도로에서는 멀리 있는 한옥은 대부분 대지의 한 면에만 도로가 면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인접도로에 면한 한옥은 대부분 대지 둘레의 반 이상이 도로에 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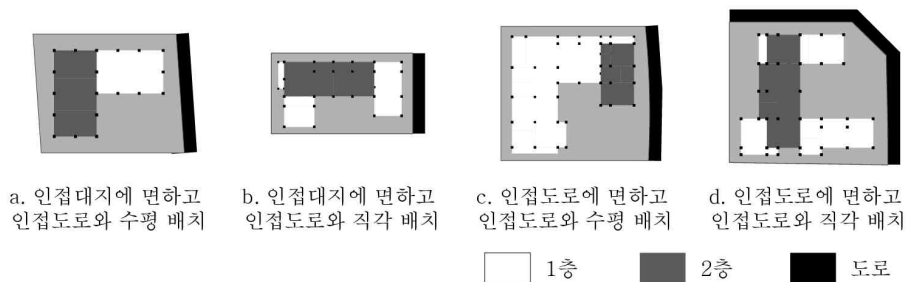


그림 3-37. 2층의 배치 유형

1층 평면이 열린 배치는 29호가 있는데 그중 25호가 2층으로 구성되었고 닫힌 배치는 15호 중 10호가 2층으로 나타났다. 열린 배치에서는 2층이 가로에 면하여 직각 배치된 경우가 많았으며, 닫힌 배치에서는 인접 대지에 면하여 직각 배치의 비율이 높았다.

표 3-15. 2층의 배치 유형(호)

| 배치유형 | 수평 배치 | 직각 배치 | 합계 |
|--------------|----------|-----------|-----------|
| 가로에 면한 배치 | 8(6, 2)* | 12(10, 2) | 20(16, 4) |
| 인접 대지에 면한 배치 | 8(6, 2) | 7(3, 4) | 15(9, 6) |

*(1층의 평면이 열린 배치, 닫힌 배치)

3.2.3. 외부 공간

칸이 격자형으로 조합되는 한옥은 대지 형태와 평면 유형에 따라 외부 공간의 형태가 결정된다. 근대도시한옥에는 ㄷ자형 평면이 주로 계획되었고, 그에 따라 중정형의 ‘안마당’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축도시한옥은 평면의 형태가 다양해졌고, 일부 한옥에서는 ‘안마당’ 외에도 여러 개의 마당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 주택과 다르게, 안채, 사랑채 등 여러 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하나의 채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칸으로 2면 이상 둘러싸인 외부 공간을 중정으로 하고 그 외에는 뒷마당으로 구분하였다. 일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지하로 구성된 외부 공간도 있지만 본 절에서는 먼저 형태 중심으로 살펴본 뒤 각 외부 공간의 용도도 살펴보았다.

기본형 평면은 하나의 중정과 뒷마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중정형 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형 평면에서는 중정의 위치에 따라 외부로 열리거나 닫힌 형태가 된다. 그에 반해 복합형 평면은 칸이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이기 여러 개의 중정이 형성될 수 있다. 복합형 32호 중 23호에서 중정이 2개 이상 나타났으며 특히 T자형, ㄷ+1칸형, H자형, 엇끼움형, 자유형은 중정이 2개 이상 형성됐다. 중정이 여러 개가 형성되는 복합형 평면은 대지에 건물이 중심으로 배치된 집중식 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지 형태별 평면 유형에 따른 외부 공간의 형태를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의 정형 대지 위에는 기본형 평면만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 공간도 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모두 중정을 갖고 있으며, 일부 한옥은 중정과 비슷한 크기의 뒷마당도 나타났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된 법령의 완화가 한옥의 신축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처마선을 기준으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는 등 기존 법령을 따르게 되면서 뒷마당 면적이 커지게 되었다.

한편, 기타지역에서도 정형 대지에는 대부분 기본형 평면이 분포하고 있어, 사각형의 중정을 중심으로 가장 큰 외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보다 비교적 최근 신축된 기타지역의 한옥은 모두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중정 외의 외부 공간이 있는 곳이 나타났다. 그 공간은 대체로 주차장 또는 현관 앞의 진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비정형 대지에서는 두 지역 모두 평면형태와 관계없이 대지의 요철로 인해 여러 개의 외부 공간이 조성되었다. 특히 한옥밀집지역은 기타지역보다 대지의 형태가 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였다. 특히 복합형 평면은 기본적으로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을 2개 이상 형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뒷마당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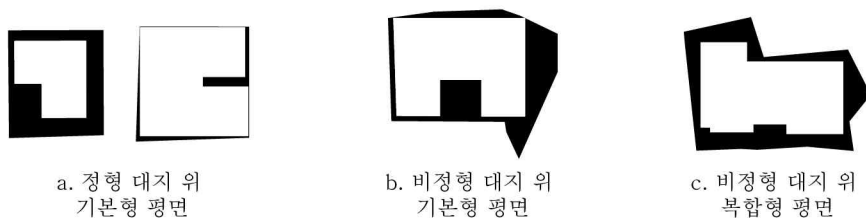


그림 3-38. 한옥밀집지역의 대지 형태별 평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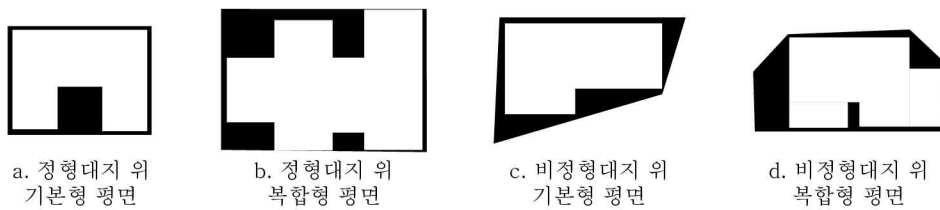


그림 3-39. 기타지역의 대지 형태별 평면 유형

몸체와 마주 보고 있는 중정의 평균 면적은 한옥밀집지역은 24.1㎡이고 기타지역은 50.4㎡로 나타났다.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한옥밀집지역은 17.1%, 기타지역은 21.4%이고 건축면적을 제외한 외부 공간의 면적에 대한 중정의 비율도 각각 31.8%와 36.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대지면적은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중정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공간에는 마사토와 같은 흙이 깔린 곳도 있지만, 대체로 타일, 돌,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마감하고 일부분에 작은 정원을 두고 있다. 이외에 대문과 건물 사이에 따로 형성된 외부 공간도 있다. 이경우에는 ‘진입마당’으로 불리며, 대체로 다른 중정보다 작게 형성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은 인접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형성되었고, 기타지역에서는 가로변으로 대문과 현관 사이에 형성하였다. 그리고 기타지역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외부 공간도 있다. 진입마당과 주차공간 모두 건물 배치, 담장 또는 스킵플로어 등으로 다른 외부 공간과 분리되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하층이 있는 한옥에서는 선큰과 드라이에어리어 등의 외기에 개방된 지하 공간이 형성되어 외부 공간의 레벨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선 시대의 한옥이나 근대도시한옥에서는 없던 공간으로서 외부 공간이 크게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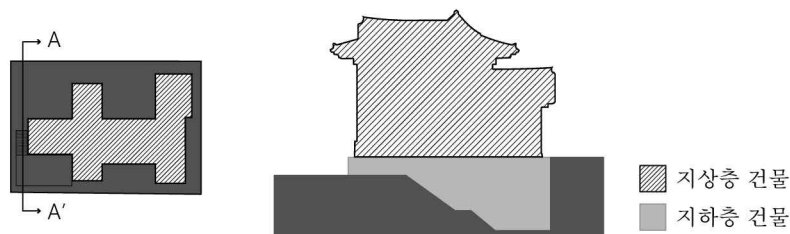


그림 3-40. 선큰 마당의 단면

선큰과 드라이에어리어가 하나의 대지 안에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 설치되었다. 총 개수는 45개로 지하층이 있는 한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통로와 같이 진입만 가능한 정도의 크기의 선큰도 있지만 하나의 마당으로서

설치된 선큰도 8개가 있다. 그리고 일부는 지상의 중정보다 크게 형성되었다.

지상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모든 외부 공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건물 내부의 설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고립된 마당도 나타났다. 선큰으로의 진입은 지하층에서 가능하였고 외부에서도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외부 계단이 설치된 곳도 있다.



그림 3-41. 선큰의 설치로 형성된 고립된 마당

설치된 위치를 보면 대체로 대지경계에 인접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인접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진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 인접도로에 면해서 배치되어 있다. 반면 기타지역은 높이 차이가 없으므로 대부분 인접도로의 반대편에 설치되어 지하층의 채광과 환기만의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은 기타지역보다 더 불규칙한 대지 형태와 건축선 등과 관련된 이격거리로 인해 외부 공간이 여러 개로 구성되었고, 기타지역은 주차장, 진입마당, 선큰마당 등의 다양한 종류의 외부 공간 구성과 평면형태로 인해 여러 개로 구성되었다.

3.3. 내부 공간 계획

3.3.1. 층별 공간구성

각 주택은 거주자의 구성, 생활방식, 건축면적 등이 다르므로 실의 종류와 개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도면에서 방, 안방, 서재, 다용도실, 누마루, 작업실, 옷방 등의 실 종류를 찾을 수 있었다. 대체로 1층은 거실, 부엌, 식당 등 공용공간과 안방이 있으며, 2층은 개인 방 또는 서재, 누마루 등이 위치하였다.³⁸⁾ 일부 공간이 ‘가족실’이라는 용도로 있지만, 거실이 1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실과 다른 2층의 공용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세대 이상의 가족이 머무는 경우 자녀들의 방이 주로 2층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주차공간과 창고, 손님방, 작업실과 같은 취미 공간 등 일반적인 거주를 위한 기능의 공간 외의 공간들로 구성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의 지상 1층의 구성을 보면, 몸체에 거실만 위치한 한옥이 11호로 나타났으며, 8호에서는 거실과 다른 실이 함께 몸체에 위치하였다. 그에 반해 날개체에는 방이 가장 많이 위치하였고 그다음은 부엌이 많이 위치하였다. 꺾음부에는 욕실이 가장 많이 위치하였으며, 그다음은 방과 복도가 많이 위치하였다. 즉, 몸체의 거실을 중심으로 방과 부엌 등의 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한옥밀집지역의 1층 실별 위치(호)

| 실 위치 | 거실 | 방 | 부엌 | 식당 | 욕실 | 계단 | 현관 | 복도 | 누마루 |
|---------|----|----|----|----|----|----|----|----|-----|
| 몸체 | 20 | 6 | 5 | 0 | 3 | 7 | 3 | 5 | 0 |
| 날개체 | 3 | 22 | 9 | 2 | 6 | 2 | 3 | 6 | 1 |
| 꺾음부 | 2 | 9 | 10 | 2 | 16 | 3 | 0 | 9 | 0 |

기타지역 또한 몸체에 거실이 가장 많이 위치하였고 복도와 계단도 많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한옥밀집지역과 다른 점은 몸체에 방이 위치한 곳이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38) 근대도시한옥의 대청은 난방이 되지 않고 바닥에 마루가 깔린 반외부 공간이었던 반면 신축도시한옥에서는 바닥에 보일러가 깔린 내부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신축도시한옥의 설계도면 상의 표기뿐 아니라 거주자와 설계자 사이에서도 ‘대청’과 ‘거실’이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간이 대청과는 다른 공간적 특성이 있으므로 거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식당이라는 기능의 실은 근대 시기에 나타난 공간으로 식당이라는 입식 가구의 도입과 함께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대도시한옥에서 식사공간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대청 또는 안방이 ‘상을 펴는 것’으로 밥을 먹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받고정된 가구인 식탁의 배치는 그 공간의 기능을 식사하는 곳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식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면상에 식탁의 유무로 공간의 기능을 한정하였고, 하나의 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식탁의 존재로 식당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대지면적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몸채가 증가하여 거실 외에도 다른 실들이 같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날개채에는 방이 가장 많이 위치하였는데, 그다음으로는 부엌과 식당도 다수 분포하였다. 꺾음부에는 욕실과 복도가 가장 많이 위치하였으며 방과 부엌도 다수 위치하였다. 두 지역이 동일하게 몸채의 거실을 중심으로 부엌, 방 등의 실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기타지역의 1층 실별 위치(호)

| 실 위치 | 거실 | 방 | 부엌 | 식당 | 욕실 | 계단 | 현관 | 복도 | 누마루 |
|---------|----|----|----|----|----|----|----|----|-----|
| 몸채 | 35 | 16 | 7 | 4 | 14 | 21 | 19 | 24 | 0 |
| 날개채 | 7 | 35 | 19 | 13 | 17 | 6 | 15 | 17 | 7 |
| 꺾음부 | 1 | 23 | 22 | 7 | 31 | 18 | 6 | 34 | 0 |

한옥밀집지역과 다르게 기타지역에 부속실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들의 위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현관과 계단은 몸채에 가장 많이 위치했고, 복도와 욕실은 꺾음부에 가장 많이 위치하였다. 또 다른 점은 식당으로, 한옥밀집지역에는 식당이 따로 구성된 곳이 드문 반면, 기타지역에는 많이 나타났다.

몸채와 하나의 날개채는 거실과 부엌, 식당, 욕실, 계단실 등이 배치되면서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 외의 날개채는 방과 욕실이 위치한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면서 한 건물에 대체로 거실을 중심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었다. 다층 한옥에서도 계단이 거실에 위치하면서 거실에서 연결되었다. 대부분 2층은 사적 영역이며 지하는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실과 안방 부엌 또는 식당 등의 주요 실은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배치되었고, 꺾음부에는 욕실과 복도가 가장 많이 위치하였다. 방에 딸린 개인 욕실 외에 공용욕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실들에 비해 사용 시 매우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중정에 직접 면하는 곳보다는 몸채와 날개채가 접하는 꺾음부에 많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채에 주요 실들이 배치되기 위해 꺾음부에 복도를 배치하여 동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2. 꺾음부에서 칸과 다르게 구획된 실

이렇게 여러 부속실이 배치된 꺾음부의 평면을 보면 칸과 별개로 실이 구획된 것을 볼 수 있다. 몸채와 날개채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의 칸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실이 배치되면서 칸이 다양한 방향과 크기로 분할된 것이다. 게다가 상부구조와도 관계없이 벽체가 세워졌는데, 이는 벽체 재료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2층은 一자형이 가장 많은데, 중심부에 있는 칸에 주로 계단이 배치되면서 가족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공간이 같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양옆에 개인 방 또는 누마루 등이 위치하였다. ㄱ자형 평면일 때 계단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꺾음부보다는 몸체나 날개체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처마 밑 덧 붙은 칸을 사용하여 계단이 배치되는 경우도 많지만, 후면에 퇴칸을 조성하여 배치되거나 칸을 분할 배치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지하층은 대체로 지상층과 전혀 다른 평면 구성으로 나타났는데, 지상층보다 각 실의 공간이 크게 구획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가족실 또는 다목적실 등이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크기가 가장 크게 조성되어 있다. 대체로 지하층에도 욕실이 위치하였다. 일부 한옥밀집지역에는 대지가 매우 협소하여 욕실이나 부엌이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에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림 3-43. 지하층 다목적실과 계단실

3.3.2. 공간 연결방식

연구대상 중 2개 이상으로 건물이 분리된 한옥은 67호 중 6호만 나타났고 나머지 61호는 모두 하나의 건물로만 구성되었다. 즉, 새로 한옥을 신축할 때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한옥은 선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각 건물을 구분하기보다는 본채와 부속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능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채는 거실, 부엌, 안방 등 주요 실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고, 부속채는 손님방, 서재 등 거주 외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채는 한 칸에서 4칸까지의 규모를 갖고, 방, 화장실, 문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호 중 하나의 사례만 지붕도 분리되어있는데, ㄱ자형 두 채가 중정을 중심으로 ㄱ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그 외에는 모두 하나의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半)외부칸이 본채와 부속채 사이에 있어 두 개의 채로 분리되어있다. 반외부칸은 지붕이 있어 실내화

하여 단일건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본채 공간과 분리하기 위해 배치된 칸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61호의 한옥은 모든 공간이 내부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보일러실과 같은 부속실들이 외부에 문이 있는 사례도 있지만, 주요 실들 모두 마당을 통하지 않고 내부에서 연결됐다. 이로 인해 마당은 더는 동선의 중심에 있지 않으며 특정 활동을 위해 사용되거나 실내에서 바라보는 실외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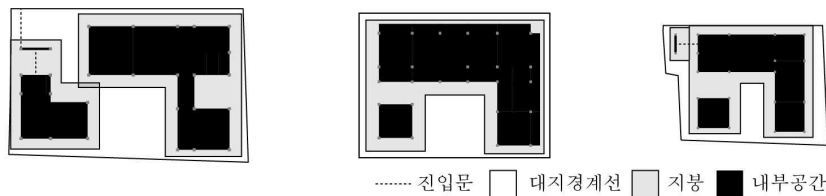


그림 3-44. 채 분리

실내와 실외의 구분은 현관의 설치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진입 방식을 살펴보면 문간, 대문, 현관이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문간보다는 대문과 현관이 하나의 세트로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대상 중 41호에서 나타났고 대부분 기타지역에 위치하였다. 그다음은 현관과 문간 없이 대문만 있는 한옥이 15호로 대부분 한옥밀집지역에서 나타났다. 문간이 있는 경우는 9호뿐이며 그중에서 문간과 대문이 둘 다 있는 경우는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 없고 문간과 현관이 있는 경우도 2호뿐이다. 그 외 6호는 문간만 사용하고 있다. 대문과 문간 모두 없이 현관만 설치된 한옥도 2호가 있는데 모두 대지가 협소한 한옥밀집지역에 위치하였다.

표 3-18. 문간, 대문, 현관 분포(호)

| 문간, 대문, 현관 유무 | 문간 있음 | | 문간 없음 | |
|---------------|---------|---------|-----------|---------|
| | 대문 있음 | 대문 없음 | 대문 있음 | 대문 없음 |
| 현관 있음 | 1(0, 1) | 2(0, 2) | 41(4, 37) | 2(2, 0) |
| 현관 없음 | 0(0, 0) | 6(3, 3) | 15(14, 1) | 0(0, 0) |

*(한옥밀집지역, 기타지역)

대문과 문간은 가로와 사유지를 분리 및 연결해주는 경계(境界)로서, 벽처럼 세워진 대문과 다르게 문간의 경우 하나의 칸을 사용하는 3차원의 실(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관은 실외와 실내를 분리 및 연결해주는 하나의 실(室)로서 실외에서 경계를 형성하여 구분해주는 대문과 문간과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반외부칸과는 반대로 실내지만 신발을 신고 진입하는 반(半)내부 공간이다. 한옥에 현관이 배치되면서 사유지와 사유지가 아닌 실외 공간의 구분 외에도 실내와 실외의 구분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입동선을 살펴보면, 문간만 있는 경우엔 대부분 문간을 통해 중정으로 진입하여 쪽

마루 또는 디딤돌을 거쳐 실로 들어가는 동선을 갖는다. 문간과 현관이 있는 경우에는 문간에서 진입마당을 거쳐 현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문이 있는 경우는 현관의 유무에 따라 나뉘게 된다. 대문만 있는 경우에는 대문에서 마당을 통해 바로 마루나 디딤돌을 거쳐 실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동선이 한옥밀집지역에만 14호가 있는데 기타지역보다 대지가 협소하여 현관을 따로 구성하기 어렵거나, 기존 한옥의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문과 현관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에서 마당 또는 진입마당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대부분이지만 현관 전에 반외부칸을 거치는 동선도 있다. 마당과 진입마당은 규모와 위치에서 차이가 나고 진입마당이 있는 한옥은 이 외에도 마당이 더 존재한다. 그리고 진입마당은 대부분 협소하여 대문에서 현관을 이어주는 작은 외부 공간으로서 거의 대문을 지나면 바로 현관이 위치하는 곳도 있다. 문간과 대문 없이 현관만 사용하는 한옥도 있는데, 이때는 가로에서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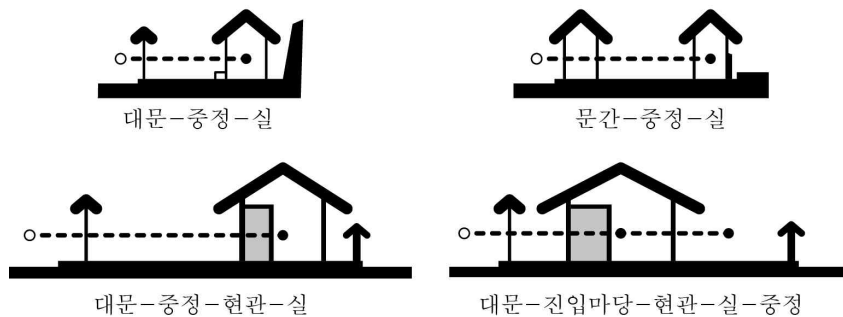


그림 3-45. 진입 동선

그리고 진입 동선에 따라 공간의 단계가 다양해진다. ‘문간-중정-실’은 ‘외부(가로)-반외부-외부(마당)-내부’의 단계를 거치는데, 내부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발을 벗지 않고 반외부 공간이 두 외부 공간을 완벽히 분리해주고 외부(마당)의 단계가 사적인 공간이 된다. ‘문간-진입마당-현관’은 진입마당이 작으므로 ‘외부-반외부-반내부-내부’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대문-마당-실’은 ‘외부-외부-내부’로 문간보다 공간의 전이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마당이 좀 더 공적인 공간이 된다. ‘대문-마당-현관’은 ‘외부-외부-반내부-내부’의 단계를 거치며 공간 ‘대문-진입마당-현관’ 역시 진입마당이 작아서 ‘외부-반내부-내부’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실내로 진입하게 되어 공간의 전이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로 진입한 이후에 진입마당이 아닌 다른 마당으로 동선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때 중정은 진입마당에 비해 사적인 공간이 되었다.

문간이 있거나 현관으로만 진입 동선이 구성된 한옥은 대부분 닫힌 배치를 하고 있다. 문간의 경우 문간이 있는 채가 가로에 면해 배치되고 현관만 있는 경우에도 문간과 비슷하게 현관이 있는 채가 가로에 면하여 배치되면서 닫힌 배치가 된다. 대문만 있는 경

우에는 열린 배치와 닫힌 배치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문과 현관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열린 배치를 하였다. 이는 현관을 통해 한 번 더 실내를 분리하고 있어 열린 배치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관의 도입과 단일동 구성으로 한옥이 완전한 실내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당과 실내의 연결성이 약해지고 오히려 그 경계가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신축도시한옥은 하나의 완결된 건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건물로 구성하는 것과 현관의 도입으로 한옥의 실들이 내부 동선으로만 연결되면서 각 실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평면 구성이 달라졌다. 각 실의 연결은 대체로 거실,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목구조로 된 공간에서 동선의 연결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하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에만 집중하였다.

연구대상의 내부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부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부속채를 제외하고 본체의 평면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실이 내부에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과 실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과 연결공간을 중심으로 실을 배치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주거에서의 연결공간은 사적 공간보다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거실, 복도, 계단 등이 중심부에서 동선을 연결해 주는데 이러한 연결공간의 조합 유형이 신축도시한옥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1층을 중심으로 복도가 있는 한옥과 없는 한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옥 밀집지역에는 23호 중 12호에는 복도가 없고, 11호에는 복도가 있다. 기타지역은 44호 중 3호만 복도가 없으며 나머지 41호는 모두 복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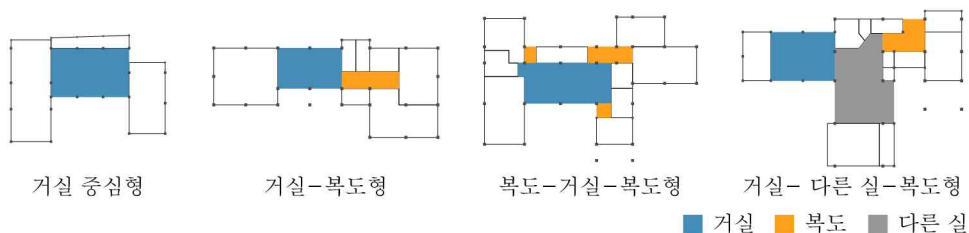


그림 3-46. 내부 동선 연결방식

복도 없는 한옥은 실을 중심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한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경우 쪽마루를 두어 외부동선으로 연결하기도 하지만, 꺾음부에서 두 개 실이 모두 거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누어 배치하기도 하였다.

복도가 있는 한옥은 52호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실로 연결되는 동선의 중심공간은 대체로 복도와 거실에 집중되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복도 중심형’, 거실과 하나의 복도로 된 ‘거실-복도형’, 거실 양옆으로 두 개의 복도가 있는 ‘복도-거실-복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실과 복도 외에 실이 포함된 ‘거실-다른 실-복도형’과 거실이 없는 한옥에서 ‘부엌-복도’형이 나타났다.

표 3-19. 복도가 없는 한옥의 구성(호)

| 동선 유형 지역 | 거실 중심 | 거실-부엌 | 거실-실 | 부엌-실 | 외부동선 |
|-------------|-------|-------|------|------|------|
| 한옥밀집지역 | 6 | 2 | 1 | 1 | 2 |
| 기타지역 | 2 | 1 | 0 | 0 | 0 |

표 3-20. 복도가 있는 한옥의 구성(호)

| 동선 유형 지역 | 복도 중심 | 거실-복도 | 복도-거실-복도 | 거실-다른 실-복도 | 부엌-복도 |
|-------------|-------|-------|----------|------------|-------|
| 한옥밀집지역 | 1 | 6 | 1 | 3 | 0 |
| 기타지역 | 3 | 18 | 11 | 8 | 1 |

거실-복도형과 복도-거실-복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때 몸체에 거실을 두고 꺾음부에 복도를 두어 날개체의 실들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꺾음부는 복도와 함께 욕실이나 계단실 또는 방이 칸을 분할하여 배치되었다. 몸체에 복도가 위치한 경우엔 현관이나 계단과 함께 한 칸에 배치되었다. 날개체에 방이 2개 이상 배치된 경우에도 방에서 방으로 직접 연결하기보다 복도를 두어 각 방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ㄷ자형에는 거실-복도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고, ㄱ자형은 한옥밀집지역에서는 복도가 없는 구성이 많고, 기타지역에서는 거실-복도형이 많이 나타났다. 자유형도 거실+복도형이 많이 나타났고, ㄷ+1칸형에는 복도-거실-복도형이 많았다.

2층에도 복도로 동선이 연결된 한옥이 많이 나타났다. 이층한옥 35호 중 25호에서 복도가 사용되었다. 공간 연결 유형은 복도 중심형과 실 중심형 그리고 실과 하나의 복도로 된 실-복도형이 있다. 그중 복도 중심형이 15호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실 중심형과 실-복도형이 각 10호씩 나타났다. 2층은 1층에 비해 면적이 작아서 실을 크게 구성하면서 동선을 구성하기 위해 복도 중심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도의 형태를 살펴보면, 퇴칸으로 된 것도 있지만 계단, 욕실, 현관, 방 등 여러 종류의 실과 함께 한 칸 또는 여러 칸을 분할하여 복도가 배치되었다. 대체로 퇴칸과 같이 보 방향으로 분할된 ‘반 칸’의 폭에 도리 방향의 ‘한 칸’ 또는 ‘여러 칸’의 길이를 갖는데, 그 위치는 편복도와 같이 칸 끝 또는 중복도와 같이 칸 중간에 나타났다. 도리 방향으로 분할이 나타나면서 복도의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 예로, 한 칸 안에 ㄷ자형으로 된 복도가 있다. 또한 ‘반 칸’의 폭과 길이를 갖는 사각형의 공간도 실을 연결해주는 복도의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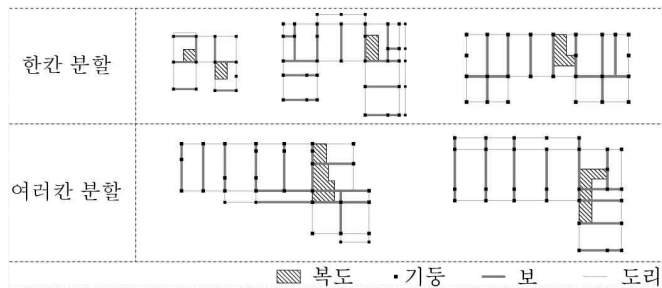


그림 4-47. 복도의 형태

다층한옥에서 각 층을 연결해주는 계단은 선큰으로 진입하는 외부 계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에 설치되었다. 지하와 2층이 모두 있는 한옥의 경우 1층에 두 계단이 같은 위치에 설치되기도 하고 분리된 경우도 나타났다. 1층에서의 계단 위치를 보면, 거실과 복도에서 연결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외부에 있는 경우는 모두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지하의 용도가 창고 또는 주차장으로 나타났다.

표 3-21. 1층에서 계단으로 바로 연결되는 실(호)

| 실 종류 | 거실 | 복도 | 현관 | 주방 | 마당 | 합계 |
|------|----|----|----|----|----|----|
| 수 | 27 | 21 | 2 | 3 | 2 | 55 |

대체로 거실에서 연결될 때는 본체의 칸 일부에 계단이 삽입되는 예도 있지만, 처마 밑으로 칸을 덧붙여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모두 一자형 계단으로 설치되었다. 복도와 연결되어 칸을 분할하여 배치된 경우에는 一자형보다는 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계단이 설치되었다.

3.3.3. 거실, 부엌, 식당과 칸 구성

거실은 우리나라 주거에 근대기 이후에 등장한 생활공간으로 전통한옥에서의 대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³⁹⁾ 하지만 1980년대 조사한 근대도시한옥의 도면에는 여전히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대청으로 표기되어 있어 한옥에 거실이 도입된 것은 그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⁴⁰⁾ 그리고 근대도시한옥에서 부엌의 위치는 안방 옆에 위치하여 따로 문을 달아 연결하고 있었으며 안방으로 상차림이 이루어졌다.⁴¹⁾ 그에 반해 일반주택이나

39)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p.55

40) 정기황, 앞의 논문, p.171

41) 도연정, 『한국 ‘근대부엌’의 수용과 전개 - 가사노동의 합리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197

아파트에서는 거실 중심의 평면이 보편화 되었고, ‘부엌의 입식화’와 ‘식침분리개념’ 등으로 인한 공간의 변화가 지속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입식 가구를 사용한 식당을 매개로 거실과 부엌을 통합한 LDK구성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편화 되었다. 이 구성이 다시 한옥으로 도입되었고 칸과 결합하여 새로운 구성이 전개되었다.

먼저 거실, 부엌, 식당의 분포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의 경우 거실과 부엌만 있는 경우가 13호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거실, 식당, 부엌이 모두 있는 경우가 7호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의 경우 세 개의 실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38호로 가장 많았으며 거실과 부엌만 있는 한옥이 5호로 나타났다. 이는 한옥밀집지역이 기타지역과 비교하여 대지면적이 협소하므로 3개 실을 모두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22. 한옥별 LDK 분포(호)

| 실 구성 지역 | 거실 | 부엌 | 거실, 부엌 | 식당, 부엌 | 거실, 식당, 부엌 |
|------------|----|----|--------|--------|------------|
| 한옥밀집지역 | 1 | 1 | 13 | 1 | 7 |
| 기타지역 | 0 | 0 | 5 | 1 | 38 |

거실, 식당, 부엌이 모두 있는 한옥에서는 각 실의 연결 순서에 따라 실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식당을 통해 거실과 부엌이 연결되는 LDK형이 가장 많았으며, 부엌을 통해 거실과 식당이 연결되는 LKD형도 다수 나타났다. DLK형은 거실 또는 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이 연결되는 형태로 건축면적이 다른 한옥에 비해 2배 이상 큰 경우에만 나타났다.

표 3-23. 거실, 식당, 부엌이 모두 있는 경우 실 배치 순서에 따른 유형(호)

| 실 배치 지역 | LDK형 | LKD형 | DLK형 |
|------------|------|------|------|
| 한옥밀집지역 | 5 | 1 | 1 |
| 기타지역 | 25 | 11 | 2 |

그리고 각 실이 칸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통합형’과 ‘칸 분리형’ 그리고 ‘완전 분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합형은 각 실이 칸 단위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개의 통합된 칸 안에서 실을 구성하였다. 칸 분리형은 칸 단위로 실을 구분할 수 있지만, 창호와 벽체 없이 오픈되어 있어 통합형과 똑같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완전 분리형은 실이 칸으로 구성되고 창호나 복도를 삽입해 각 실을 분리한 공간 구성 방식이다.

평면 유형을 살펴보면, LK형은 기본형 평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LDK형은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에서 각각 15호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LKD형과 DLK형은 복합형 평면에서 많이 나타났다. 기본형 평면 중에서는 ㄷ자형에서 LK형, LDK형, LKD형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고, 복합형 평면 중에서는 자유형에서 모든 유형이 있다.

표 3-24. 평면유형별 실 구성

| 구성 \ 지역 | LK형 | LDK형 | LKD형 | DLK형 |
|---------|-----|------|------|------|
| 기본형 평면 | 13 | 15 | 5 | 0 |
| 복합형 평면 | 5 | 15 | 7 | 3 |



그림 3-48. 통합형, 칸 분리형, 완전 분리형

거실과 부엌으로만 구성된 LK형은 완전 분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에서는 칸 분리형도 있지만, 문으로 분리된 형태와 복도로 분리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모두 복도로 분리되었다.

표 3-25. LK형의 칸 구성방식(호)

| 구성 \ 지역 | 통합형 | 칸 분리형 | 완전 분리형 | |
|---------|-----|-------|--------|----|
| | | | 문 | 복도 |
| 한옥밀집지역 | 1 | 3 | 4 | 5 |
| 기타지역 | 0 | 0 | 0 | 5 |
| 합계 | 1 | 3 | 14 | |

LDK형에서는 식당과 부엌이 통합형인 것과 분리형으로 구분되었다. DK통합형에서는 거실까지 통합된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 거실은 분리된 형태가 가장 많았다. 기타지역은 거실과 칸으로 구분되거나 복도를 두는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한옥밀집지역은 복도보다는 문으로 분리된 형태가 나타났다.

표 3-26 DK 통합형 LDK 구성방식(호)

| L 구성 \ 지역 | 통합형 | 칸 분리형 | 완전 분리형 | |
|-----------|-----|-------|--------|----|
| | | | 문 | 복도 |
| 한옥밀집지역 | 1 | 1 | 2 | 0 |
| 기타지역 | 3 | 5 | 3 | 5 |
| 합계 | 4 | 6 | 10 | |

DK분리형에서는 대부분 식당과 부엌은 칸으로만 구분하고 거실과의 연결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거실과 부엌 사이에 문으로 분리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다른 유형에는 없었던 문과 복도를 모두 사용한 유형도 나타났다.

표 3-27. DK 분리형 LDK 구성방식(호)

| DK 구성 L 구성 지역 | 칸 분리형 | | | | 완전 분리형 |
|---------------------|-------|--------|----|-------|--------|
| | 칸 분리형 | 완전 분리형 | | | 완전 분리형 |
| | | 문 | 복도 | 문과 복도 | 복도 |
| 한옥밀집지역 | 0 | 1 | 0 | 0 | 0 |
| 기타지역 | 1 | 4 | 1 | 2 | 1 |
| 합계 | 1 | 8 | | | 1 |

LKD형은 각 실이 모두 분리된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식당과 부엌은 칸으로만 구분된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3-28. LKD 순서일 때 구성(호)

| DK 구성 L 구성 지역 | DK 통합형 | | | DK 칸 분리형 | | |
|---------------------|--------|--------|----|----------|--------|----|
| | 칸 분리형 | 완전 분리형 | | 칸 분리형 | 완전 분리형 | |
| | | 문 | 복도 | | 문 | 복도 |
| 한옥밀집지역 | 1 | 0 | 0 | 0 | 0 | 0 |
| 기타지역 | 0 | 1 | 1 | 3 | 3 | 3 |
| 합계 | 1 | 2 | | 3 | 6 | |

표 3-29. DLK의 구성

| 지역 | 구성 | 완전 분리형 | |
|--------|----|--------|-------|
| | | 문 | 문과 복도 |
| 한옥밀집지역 | | 1 | 0 |
| 기타지역 | | 1 | 1 |

3.3.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엌이 꺾음부에 많이 위치하였는데, 이는 LDK 구성 중 몸체에 위치한 거실 옆 꺾음부에 통합형 DK가 배치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날개체에 위치한 식당이나 부엌 등은 각 실이 모두 칸으로 분리되어 구획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거실에서 식당, 부엌으로 연결되거나 거실에서 식당, 부엌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의 대지면적이 작아 LK형이 많이 나타났지만, 거실과 부엌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LDK와 LKD 등 LK형 보다는 모든 실이 있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식당과 부엌은 통합형과 칸 분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완전분리형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식당과 부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거실은 식당 및 부엌과 대체로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엌과 식당처럼 칸 분리형보다는 완전분리형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평면에서 거실과 식당 및 부엌이 오픈된 형태로 연결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칸과의 결합으로 나타난 특징으로 생각된다.

3.4. 소결

본 장에서는 신축도시한옥의 형태, 배치방식, 내부 공간 등을 한옥밀집지역과 기타지역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다.

한옥밀집지역은 기타지역과 비교하면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이 단순하게 나타났다. 칸의 크기도 기타지역에서 보 방향으로 확장이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평면형태도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지역에서는 이층한옥, 처마 밑 공간의 활용, 스킵플로어 등 형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고 내부 공간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먼저, 칸의 크기를 보면 한 건물에서 몸채와 날개채의 보 길이는 한옥밀집지역에서는 비슷하게 구성되었지만, 기타지역은 몸채가 더 크게 구성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긴 보와 다른 보의 길이 차이가 크게 구성되기도 하였다. 도리 방향의 입면 비율은 두 지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채는 기타지역이 더 큰 크기가 사용되었는데, 특히 도리와 기둥은 지역별로 특정 크기가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부구조는 3량과 5량으로만 구성되었다. 지역에 따라 특정 길이 이상의 보를 갖는 칸에서는 5량만 사용되었고, 몸채뿐 아니라 날개채에도 5량으로 구성된 한옥이 많이 나타났다.

평면형태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은 기본형 평면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홑집형으로 구성된 곳이 많았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이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대체로 기본형 평면은 퇴칸집, 복합형은 홑집형으로 구성되었다. 칸수는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10칸 미만으로 구성되었고, 기타지역은 5~15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지상 2층과 지하층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한옥밀집지역은 지하층이 있는 한옥은 많이 있지만 2층으로의 확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층은 1층보다 칸수는 작지만, 대부분이 동일한 크기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1층의 지붕은 분절되어 복합형 평면이어도 2층으로 인해 여러 개의 一자형 지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처마 밑의 공간을 목구조를 사용하여 활용하였는데, 기타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다락은 한옥밀집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공간 활용을 위해 바닥 높이를 조절하는 스킵플로어가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지하 공간을 지표면 위로 올리면서 스킵플로어가 형성되었다.

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은 비정형 대지가 많지만, 기본형 평면과 복합형 평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형 대지에서는 기본형 평면만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정형 대지와 비정형 대지가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며 대지 형태에 따라 평면 유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배치 유형은 한옥밀집지역은 열린 배치지만 대지면적과 경사 지형으로 인해 폐쇄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기타지역에도 열린 배치가 더 많이 나타났고, 한옥밀집지역과 다르게 평지이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았다. 비정형 대지에서는 평면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외부 공간이 형성되었고, 정형 대지에서는 평면형태에 따라 달

라졌다.

내부 공간은 두 지역 모두 공통으로 거실이 몸체에 위치하고 날개채에 방이나 부엌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꺾음부에 욕실이 가장 많이 위치하였는데, 부엌도 많이 나타났다. 지하층은 한옥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 창고, 손님방으로 사용되었고 기타지역에서는 취미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층은 대체로 자녀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실들은 모두 내부에서 연결되었다. 대부분 문간보다는 대문이 있는데, 한옥밀집 지역은 중정에서 바로 거실로 들어가 거실 또는 거실+복도를 중심으로 동선이 연결되었다. 반면 기타지역은 대문과 현관이 모두 구성되어 있어 현관을 통해서 내부로 진입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은 거실과 하나의 복도 또는 여러 개의 복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거실과 부엌의 관계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은 각 실이 칸으로 구획되어있고, 복도 또는 창호가 사이에 위치하여 분리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식탁이 배치된 식당이 많이 나타났다. 대체로 부엌과 식당은 통합된 칸에 같이 배치되거나 칸으로만 공간 구분되었다. 반면 거실은 창호나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형식이 많았다.

4. 도시한옥의 칸 구성 변화

4.1. 제도에 따른 형태의 제약

4.1.1. 도시경관 보전제도

한옥밀집지역은 근대도시한옥이 밀집해있는 곳으로 이들로 형성된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 신축된 한옥의 평면 유형을 보면, ㄷ자형과 ㄱ자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타지역에서 비정형 대지에 복합형 평면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본형 평면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제도적 규제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높이, 층수, 가로에 면한 입면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건물이 한옥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규모, 배치, 형태 등을 계획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한옥인 경우에는 심의 기준에서 ‘한옥밀집지역에 보편적인 기본형 평면’을 권장하기도 하였다.⁴²⁾

연구대상 23호 중 이전 건물이 비한옥인 5호의 경우 기본형 평면이 3호 복합형 평면이 2호로 나타났다. 그중 대지면적이 689.51㎡로 다른 연구대상들에 비해 최소 2.5배 이상 큰 가회동1을 제외하면 2012년 이전까지는 기본형 평면만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전 건물이 한옥일 때는 18호로 나타나 대체로 한옥이 있던 대지에 새로 신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기존 한옥이 증·개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하거나, 그 당시 평면 유형을 살펴보면, 지붕이 분리되어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한옥은 5호로 一자형과 ㄱ자형으로 구성된 한옥이 3호, ㄷ자형과 ㄱ자형, 두 개의 ㄱ자형으로 구성된 한옥이 각 1호씩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한 채의 ㄱ자형 또는 ㄷ자형이었고 일부 엇끼움형, 자유형, ㄷ+1칸형이 있다.

신축 한옥의 배치와 비교해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오히려 4호의 한옥만 배치와 형상 및 규모 등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수립 이후에는 대체로 배치와 형상은 유지하였지만, 규모가 달라졌다. 이전 한옥의 두 개 동 건물을 결합한 형태의 한 개 동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一자형과 ㄱ자형 두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하나의 빗끼움형 또는 ㄷ자형 등으로 신축되었다.

42)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 2014」 제2장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제4조(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제4항

평면 유형이 변경된 예도 있다. ㄱ자형에서 一자형 또는 ㄷ자형에서 ㄱ자형 등 칸수가 적어지고 칸의 크기가 확장된 예도 있고, ㄱ자형에 ㄷ+1칸형 또는 자유형 등 칸수와 칸 크기가 모두 확장된 사례도 있다. 누하동6의 경우는 ㄷ+1칸형에서 ㄱ자형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전 한옥이 인접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당시 건축법에 따라 동일한 규모와 배치로는 증·개축이 불가하여 대지경계에 맞춰 신축하였고 그에 따라 건물의 규모가 작아졌다.

권농동1의 경우 이전 한옥이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 배치였다. 신축 계획 시 초기에는 남향으로 열린 배치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심의를 통해 이전 배치를 따르도록 변경되었고, 칸의 규모만 확장되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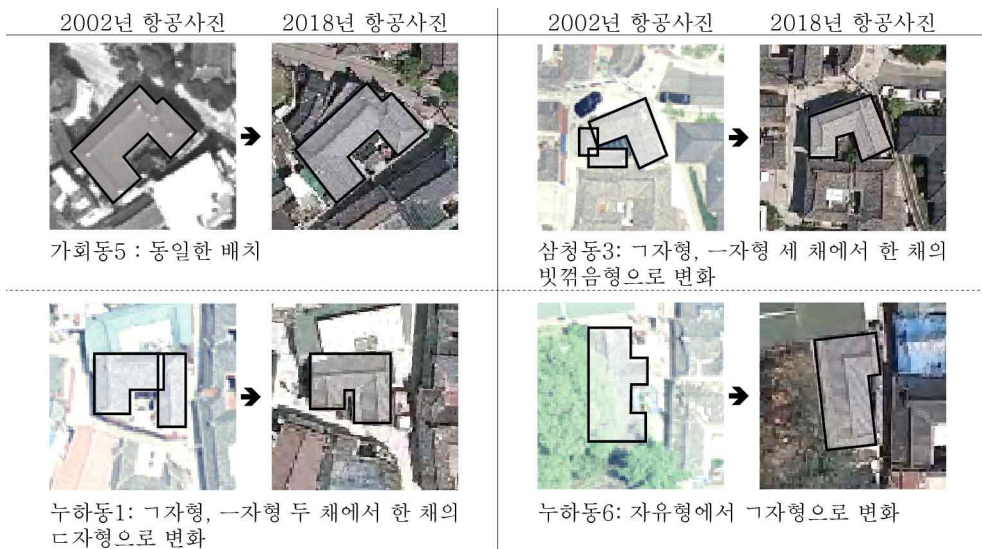


그림 4-1. 이전 한옥과 신축 한옥의 배치 유형 비교

이러한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한옥밀집지역에는 기본형 평면이 복합형 평면보다 많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타지역과 다르게 비한옥이었던 비정형 대지에서도 기본형 평면으로 나타나 다양한 평면유형이 시도되기보다는 보편적인 형태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합형 평면도 이전 한옥의 배치를 따른 것으로, 여러 동의 건물을 하나의 동으로 연결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지역에서는 대지형태에 따라 평면의 형태가 나타났고, 복합형 평면 유형과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옥밀집지역은 대지 형태와는 별개로 도시경관 보전제도로 인해 이전 형태를 따라 기본형 평면이 많이 나타났고, 복합형 평면 또한 이전의 여러 채로 되었던 구성이 한 채로 구성되면서 그 형태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43)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초기 계획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타지역에는 지상 2층과 지하층이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상 1층으로만 된 한옥의 수가 44호 중 3호뿐인데 반해 한옥밀집지역은 지상으로의 층수도 제한되면서 23호 중 9호로 절반에 가까운 한옥이 지상 1층으로만 구성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은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지상 1층으로 구성되었다. 그 대신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하로 두 개 층이 있거나 더 넓게 형성되었다. 즉 가로변으로 노출되는 지상부는 이전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공간 확장이 이루어졌다.

표 4-1. 한옥밀집지역 내 신축도시한옥의 허가 일자 별 이전 건물 유형과 배치 형태

| | 이전 건물 유형 | 대지 형태 | 이전 한옥 | | 신축한옥 | | |
|------|----------|-------|-------|----------|------|-------|------------|
| | | | 채 | 평면 유형 | 채 | 평면 유형 | 허가 일자 |
| 화동1 | 한옥 | 정형 | 1 | 알 수 없음 | 1 | ㄱ자형 | 2002.11.21 |
| 가회동6 | 한옥 | 비정형 | 1 | ㄱ자형 | 1 | ㄱ자형 | 2003.07.28 |
| 삼청동3 | 한옥 | 비정형 | 3 | ㄱ자형, 一자형 | 1 | 빗썸음형 | 2005.03.03 |
| 가회동3 | 비한옥 | 정형 | 0 | - | 1 | ㄱ자형 | 2006.06.22 |
| 삼청동2 | 한옥 | 정형 | 1 | ㄱ자형 | 1 | ㄱ자형 | 2006.12.11 |
| 삼청동1 | 한옥 | 정형 | 1 | ㄷ자형 | 1 | ㄱ자형 | 2007.06.19 |
| 가회동5 | 한옥 | 비정형 | 1 | 엇썸음형 | 1 | 엇썸음형 | 2007.10.23 |
| 가회동4 | 한옥 | 비정형 | 1 | ㄷ자형 | 1 | ㄷ자형 | 2008.02.22 |
| 가회동2 | 비한옥 | 비정형 | 0 | - | 1 | ㄷ자형 | 2009.11.12 |
| 가회동1 | 비한옥 | 비정형 | 0 | - | 1 | 자유형 | 2010.06.18 |
| 누하동2 | 한옥 | 비정형 | 1 | ㄱ자형 | 1 | ㄷ+1칸형 | 2010.11.15 |
| 삼청동4 | 한옥 | 비정형 | 1 | ㄱ자형 | 1 | 一자형 | 2011.04.11 |
| 누하동6 | 한옥 | 비정형 | 1 | 자유형 | 1 | ㄱ자형 | 2011.07.01 |
| 필운동1 | 비한옥 | 비정형 | 0 | - | 1 | ㄷ자형 | 2011.07.15 |
| 효자동1 | 한옥 | 비정형 | 1 | ㄷ+1칸형 | 1 | ㄷ자형 | 2011.08.18 |
| 누하동1 | 한옥 | 비정형 | 2 | ㄱ자형, 一자형 | 1 | ㄷ자형 | 2012.03.13 |
| 누하동4 | 한옥 | 비정형 | 2 | 一자형, ㄱ자형 | 1 | 빗썸음형 | 2012.06.01 |
| 원서동1 | 한옥 | 비정형 | 2 | ㄷ자형, ㄱ자형 | 1 | ㄷ자형 | 2012.07.30 |
| 누하동3 | 비한옥 | 비정형 | 0 | - | 1 | 자유형 | 2012.12.10 |
| 누하동5 | 한옥 | 비정형 | 2 | ㄱ자형, ㄱ자형 | 1 | ㄷ+1칸형 | 2013.08.14 |
| 체부동1 | 한옥 | 비정형 | 1 | ㄱ자형 | 1 | ㄷ자형 | 2016.07.22 |
| 통인동1 | 한옥 | 비정형 | 1 | ㄱ자형 | 1 | 자유형 | 2017.05.16 |
| 권농동1 | 한옥 | 정형 | 1 | ㄷ자형 | 1 | ㄷ자형 | 2017.06.07 |

4.1.2. 입면 규제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입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대체로 목조로 된 구조와 흰색의 회벽으로 된 입면만 나타났다. 지하층이 지상으로 노출된 사례도 경사지에 있는 한

옥 외에는 없었다. 이는 제도에서 한옥의 입면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옥은 법령에서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비용지원 심의 기준 등에서는 기단부 상부 주요구조부는 전통목구조이고 기단부 이하 지하 부분만 기타구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⁴⁴⁾ 한편 현대생활의 다변화된 용도 및 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복합구조 및 합성구조에 대한 개발이 시도되고 있지만, 목재 안에 숨기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게다가 외벽 마감을 할 때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하고 인방 등을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등⁴⁵⁾ 기단부를 기준으로 상부는 ‘목조’로 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기단부 하부로는 다른 구조가 가능하므로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하층에 대한 심의 기준의 규제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지하층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⁴⁶⁾ 즉,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과 심의 기준 등에서 지표면 위로 지하층 콘크리트 벽체의 노출을 60c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상부의 높이는 기단을 기준으로 주심도리까지 4m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붕부는 보 방향 폭에 따라 비율에 맞춰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연구대상의 1층 주심도리까지의 높이는 2.5m~3.5m까지 다양하였고, 용마루까지의 높이는 4~7m 사이에 분포하였다. 이에 비해 지하층의 노출은 주심도리까지의 높이와 비교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 17%~24%만 지표면 위로 노출될 수 있다.



그림 4-2. 지상으로 노출이 최소화된 지하층



그림 4-3. 담장으로 가려진 지하층

경사로 인해 노출된 경우에는 층으로 구분될 수 없도록 입면을 조성하고 개구부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⁴⁸⁾ 즉, 목구조가 아닌 부분은 건물로 인지할 수 없도록

44)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5) 지구단위계획과 심의 기준 등에서 입면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46)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 제5항

47) 한옥밀집지역과 은평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에서 1층은 4m, 2층은 7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 높이는 (보 방향 폭*0.65)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사지에 있는 대상은 단층 한옥이 성벽과 같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일부 한옥에서는 중정 레벨을 올리거나 누마루를 사용하여 지하층을 위로 더 많이 노출하기도 하였다. 위로 노출된 지하층에는 중정 반대편 벽으로 개구부를 두었다. 하지만 가로변에서는 담장으로 가려져 있어 지하층을 인지할 수 없다.

입면 규제로 인한 신축도시한옥의 또 다른 특징은 처마 밑 공간에 대한 것이다. 근대 도시한옥이 신축될 때는 하나의 칸은 공간을 구획하는 완결된 단위로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거주자에 의해 공간이 개량될 때 공간 확장을 위해 목구조가 아닌 붉은 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외벽을 세워 처마 밑의 공간을 활용하였다.⁴⁹⁾ 이는 지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본체의 칸이 해체되었고 외부 입면에서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목구조와 처마선 등 원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려졌고 새로운 입면이 형성되었다.

이후 2000년대부터 복촌을 시작으로 진행된 한옥보전정책에 따라 증축되었던 부분을 철거하였고 원형의 입면을 되찾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제도적으로 담장과 화방벽 등의 재료를 제한하였다.⁵⁰⁾ 그리고 목구조와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입면을 규제하고 외벽에 설치되는 구조물도 목구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¹⁾ 이는 신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신축도시한옥도 증·개축과 다르지 않은 재료로 입면이 구성되었다.



그림 4-4.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 입면 비교
(출처: 2009년(좌), 2018년(우) 연구자 직접 촬영)

48) 한옥비용지원 심의 기준의 '외벽 및 입면'에 대한 조항에서 지하부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49) 개량된 한옥의 평면을 보면, 기둥이 사라진 경우가 많고 일부 한옥에서는 상부구조 또한 가리거나 밑에 철물로 보강하여 공간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처마 밑으로 증축될 때 벽돌이 사용된 경우가 많다.
50) 2002년에 시행된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의 한옥수선 등 기준(제3조 관련)에서부터 한옥의 외벽에 대한 기준에서 '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괴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문」부터는 입면 구성보다는 화방벽의 재료만을 제한하였다.
51) 한옥 수선 등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한옥 외벽에 대해 목조기둥이 드러나도록 규제하였다.

신축 시 칸의 크기부터 조합방식을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본채 안에서 모든 공간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처마 밑 공간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앞에서 이야기한 입면 규제에 따라 목구조로 구축되어 칸의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모든 처마 밑에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다.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였고 입면에서는 설치된 부분과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면적 제한으로 좀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옥비용지원 심의 기준에서 모든 칸에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가능한 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⁵²⁾ 그리고 이 제한으로 인해 처마 밑의 칸 설치가 제한되면서 한옥의 입면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 1층과 1, 2층에 설치된 처마 밑 칸

심의 기준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처마를 일정 길이 이상 빼야 하는 한옥에서 처마의 하부공간은 수납이나 실의 확장을 위해 칸이 덧붙었다. 이 여유 공간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처마선을 넘지 않고 설치하면⁵³⁾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처마 밑에 설치할 경우 내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활용도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대상 중 많은 한옥에서 처마 밑 공간에 덧붙여진 칸이 건축면적으로 산입되었다.

연구대상 중 39호에 설치되어 있는데, 처마선 안쪽으로 설치된 곳은 28호이고 7호에는

52)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서 반침은 전면 도로와 마당에 면한 입면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1층은 외벽 둘레의 1/4 이하, 2층은 외벽 둘레의 1/8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반침의 내밀기 또한, 처마내밀기 2/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은 반침에 대한 것으로, 반침은 수납을 의미하는 용어지만 은평한옥마을 건축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처마 밑에 설치된 칸은 용도와 관계없이 반침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5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마선을 벗어나 설치되었으며 4호에서는 두 종류가 모두 나타났다. 대부분이 처마선 안으로 설치되었음에도 건축면적으로 산입되고 있다. 구조나 형태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수납으로 사용되는 반침보다 내부 실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체로 면적으로 산입되어 바닥 높이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직 구조나 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마 밑 공간은 다양한 구조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면적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설치하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붕구조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본채의 주요 구조가 아닌 추가로 설치된 칸이다.

한옥밀집지역은 대지면적이 작아 본채의 칸수가 기타지역보다 적다. 그에 따라 처마 밑에 덧붙은 칸수도 더 적게 나타났다. 1칸만 덧붙은 한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다양하게 분포하였는데, 6칸이 가장 많았고 2칸, 4칸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2층은 1층보다 칸수가 적기 때문에 덧붙은 칸도 1~2칸으로 나타났다.

표 4-2. 각 지역의 층별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수(호)

| 지역 | 층 \ 칸수 | 1칸 | 2칸 | 3칸 | 4칸 | 5칸 | 6칸 | 7칸 | 8칸 | 9칸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8층 | 9층 |
| 한옥밀집지역 | 1층 | 4 | 1 | 2 | 1 | 0 | 1 | 0 | 0 | 1 |
| | 2층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지역 | 1층 | 2 | 6 | 4 | 6 | 3 | 8 | 1 | 1 | 1 |
| | 2층 | 6 | 7 | 3 | 1 | 0 | 0 | 0 | 0 | 0 |

처마 밑 공간에 추가 설치된 칸은 내부에서는 칸을 해체하여 실을 확장한 모습이지만 외부에서는 요철이 나타나 전체적인 한옥의 형태를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ㄱ자형과 ㄷ자형과 같은 기본형 평면에 일부 처마 밑으로 칸을 추가 설치하면 복합형 평면처럼 칸이 다양한 방향으로 설치된 것 같았다. 복합형 평면의 경우엔 더욱 형태가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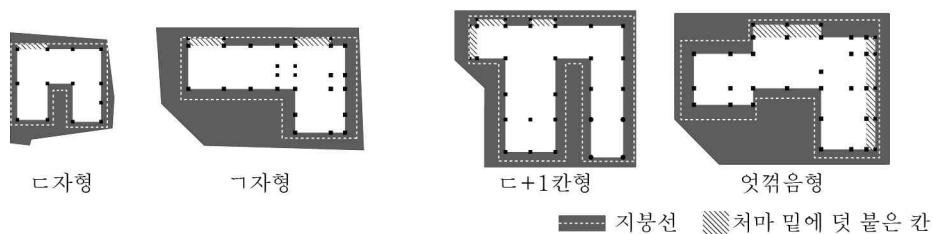


그림 4-6. 처마 밑에 덧붙은 칸

구조에 대한 제한 외에 지붕 높이 등 입면 비율도 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입면 비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1층과 2층이 동일한 규모로 건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층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동일한 규모로 건축될 경우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해치고 인접 건축물의 조망권을 침해’하므로 2층의 평면을 1차형으로 권장하고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⁵⁴⁾ 일반건축물에서는 동일한 평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한옥에서는 지양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층과 2층이 다른 평면으로 조합되면서 1층의 지붕이 분절되고 2층이 부분적으로 올라갔다. 칸이 다양한 높이로 적층되면서 칸이 여러 방향으로 돌출된 입면이 되어서 매우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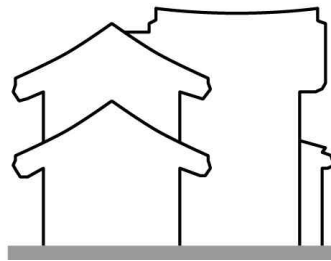


그림 4-7. 다양한 크기와 방향으로 조합된 칸

이렇게 신축도시한옥은 목구조 외에 기타재료로 된 부분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그리고 제한된 면적 안에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칸이 다양한 방향으로 돌출되었고 처마 밑 공간 또한 칸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칸이 나열되기 보다는 조립된 형태로 인식되고 목구조가 강조된 입면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4.1.3. 다양한 외부 공간의 형성

근대도시한옥 건폐율은 대체로 50~60% 정도로 나타났다.⁵⁵⁾ 그리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 사이가 1m가 되지 않는 매우 좁은 틈새만 있고⁵⁶⁾ 대체로 하나의 중정을 중심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신축도시한옥은 하나의 중정 외에도 다양한 외부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건축선, 일조권 등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건축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었고 주차장, 선칸, 대문 등의 설치 규제 등으로 외부 공간 구성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이 일반건축을 기준으로 제정되면서 처마 깊이를 갖는 한옥에는 건축선 등에

54) 국가한옥센터, 「한옥건축기준 가이드라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00

55) 송인호, 앞의 논문, 1990, p.123

56) 전보립; 전봉희, 「한옥의 도시주거적 변용 연구- 서울 도시형한옥의 대지경계선과 건축외벽의 사이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0(2), 2000, p.630

관한 법령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000년 정책 변화에 따라 법령 등이 개정되기 시작하였지만, 증·개축 등 기존 한옥을 고치는 경우에만 모든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었다. 신축에는 일부만 적용되면서 외부 공간의 형태가 달라졌다. 2015년에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서 신축 또한 증·개축과 동일하게 법령 완화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두 지역은 일부 법령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기타지역의 한옥은 최근에 신축되었지만, 한옥밀집지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옥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법령의 변화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차이 또한 외부 공간 구성에서 드러났다.

한옥밀집지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신축된 한옥들을 통해 법의 변화에 따른 배치 유형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2000년과 200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선 후퇴 규정과 면적 산정 규정이 완화되었지만,⁵⁷⁾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2010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후퇴의 의무를 완화하고 기존 골목선을 유지하도록 권장해 2010년 이후 건축된 한옥들은 완화 적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완화 적용받은 한옥이 가회동5, 가회동6, 삼청동3만 완화되었고 가회동5의 경우 6m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했지만 3m로 완화되었다. 건축선 후퇴 완화 적용을 받지 못하면 처마 끝 선이 건축선에 맞춰 마감되어야 했으므로 그만큼 건물 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길의 형태는 변형되었다. 건물 배치는 이전 한옥을 따르도록 권장하였지만, 건축선에 대해서는 완화되지 않았다.



그림 4-8.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골목 형태 변화 (화동1)

(출처: 이경아, 앞의 글, 2014, p.126)

그리고 기존 한옥의 대수선이나 개축 시는 2010년에 건축법 시행령에 마련된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신축은 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조권에 의해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지켜야 했다.⁵⁸⁾ 이후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

57) [대통령령 16874호, 2000.06.27,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 제4호; [대통령령 17365호, 2001.09.15,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가목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면서 9m 이하의 한옥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0.5m만 띄울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⁵⁸⁾



2015년 이전에 신축된 한옥들은 모두 정북 방향에서 1m를 이격하여 처마선을 계획하면서 남측의 마당은 협소해지고 북측으로는 대지 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틈새 공간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1m 이상 폭으로 된 뒷마당이 형성되었다. 이후 완화 적용되면서 틈새 공간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칸 크기가 확장되면서 마당은 좁아졌다.

그림 4-9. 정북 일조 이격에 따른 뒷마당 형성

한옥밀집지역의 사례와 다르게 기타지역은 2015년 이후의 사례만이 있고 은평한옥마을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선으로부터 처마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한옥이 대지경계 끝까지 처마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인접 대지와 경계에서는 최소 0.5m만 이격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건물 간 간격이 매우 좁다. 한옥밀집지역 내에서는 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완화하고 처마선도 대지경계까지 내밀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에 반해 은평한옥마을은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제정되었지만, 남북 방향으로 나열된 필지 위에 이층한옥이 대지경계에 가까이 건축되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완공 이후에 처마길이를 다시 조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림 4-10. 처마 선이 맞닿아 있는 한옥

58) 2013년 개정 전에는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이었다. 2013년 개정 이후에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59) [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1., 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은 2004년 이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30㎡가 기준이었다.⁶⁰⁾ 그리고 2007년에 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전통 한옥밀집지역의 전통한옥은 완화 적용되었다.⁶¹⁾ 그에 반해 기타지역은 일부 필지만 주차 대수를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1대로 완화 적용을 받고 있다.⁶²⁾

연구대상 중 주차장이 대지 내에 설치된 한옥은 34호로 나타났다. 그중 지하에 있는 한옥은 6호이고, 나머지 28호는 모두 지상에 설치되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한옥밀집지역에 있다. 지상주차장은 한옥밀집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두 기타지역에서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의 지하주차장은 2007년에 법령 개정 전에 설치된 것은 하나의 사례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시설면적이 130㎡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이후에 주차장이 설치된 한옥은 모두 경사지에 위치하며 인접도로의 폭이 4m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주차장 종류(호)

| 주차장 유형 \ 지역 | 한옥밀집지역 | 기타지역 | 합계 |
|-------------|--------|------|----|
| 지하주차장 | 5 | 1 | 6 |
| 지상주차장 | 0 | 28 | 28 |
| 없음 | 18 | 15 | 33 |

기타지역은 모든 필지가 대지 내에 주차 대수를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은평한옥마을의 경우 마을 내 부설주차장에 주차공간 확보 시엔 대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⁶³⁾ 그에 따라 기타지역 연구대상 중 대지 내 주차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15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지상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경사지가 아니고, 지하층이 대지 위로 노출될 수 있는 높이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차공간을 중정 일부에 확보하기도 하였지만, 분리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차공간과 마당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용도가 있는 외부 공간이 조성되

60)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의 4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 2. 9., 일부개정]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의 4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의 경우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61) [대통령령 제20459호, 2007. 12. 20., 일부개정]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의 비교 사목.

62) 「은평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한옥지정구역 시행지침, 제2장 한옥지정구역 지침, 제29조(주차장의 설치기준 : 규제사항) 제1항

63) 「은평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한옥지정구역 시행지침, 제2장 한옥지정구역 지침, 제29조(주차장의 설치기준 : 규제사항) 제2항

었다. 내부 공간에서 기능에 따라 실이 분화된 것처럼 외부 공간에도 기능에 따라 공간이 나뉘었다. 근대도시한옥의 외부 공간은 다용도로 사용되었던 것과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지하층을 구성할 때는 선큰이나 드라이에리어 등을 지하 공간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하층처럼 근대도시한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소로서 외부 공간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

한옥밀집지역에 설치된 선큰의 경우 경사로 인해 진입로에 형성되거나 작은 면적으로만 나타났다. 기타지역에서는 ‘선큰 마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평균 외부 공간의 20%를 차지하였다. 다양한 레벨의 외부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상으로는 목구조만 보이지만 선큰에서는 목재와 콘크리트의 결합이 드러났다. 입면에서 지하층에서부터 1층과 2층이 결합한 복합건축물이 되었다.



그림 4-11. 선큰 마당과 목구조

(좌측 출처: 「천혜의 북한산 경관을 삼면에 담은 은평한옥마을 자함헌」, 『전원주택 라이프』, 2018; 우측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 2019)

대문의 설치를 제도에서 규제하지 않지만, 심의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옥밀집 지역에는 기존 한옥의 배치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어 대문 또는 문간만 있는 한옥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지가 협소하여 현관이 없고 중정에서 바로 내부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에 반해 기타지역의 경우 대문과 현관이 모두 있는 한옥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장의 설치로 주차장용 문도 따로 설치된 곳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진입로가 2개 이상 나타나는 곳도 있다.

진입로는 대문과 현관의 관계에 따라 새로운 외부 공간으로 나타났다. 대문에서 바로 중정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중정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단한 배치에서는 대문에서 바로 중정으로 진입할 수 없어 또 다른 ‘진입 마당’이 형성되었고 이를 지나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주차장을 중정과 분리하여 계획한

경우 진입로가 둘로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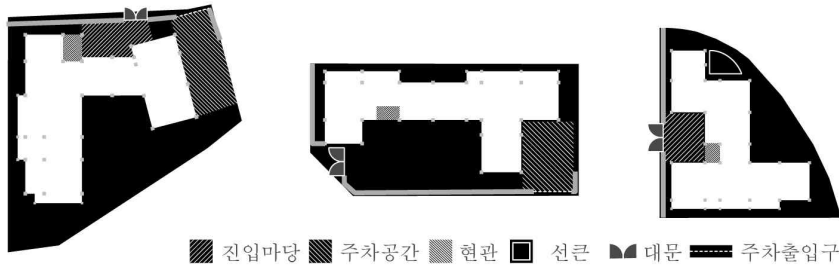


그림 4-12. 다양한 외부 공간과 건물의 형태

이렇게 다양한 외부 공간은 법적 규제에 요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에 관한 법률의 완화가 적용되지 않아 나타났고 건물의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타지역은 대체로 특정 용도를 위한 외부 공간이 나타났고, 이는 담장, 기단, 칸 등을 사용하여 용도별로 구분되었다. 특히 칸으로 인해 분할되었을 때는 건물의 평면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내부 공간뿐 아니라 외부 공간 구성 또한 칸의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근대도시한옥은 점차 외부 공간이 하나의 중정에 집중되었던 것과 다르게 법적 규제로 인해 두 지역 모두 외부 공간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점차 법이 개정되면서 한옥밀집지역은 점차 하나의 중정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기타지역은 한옥밀집지역에 비해 넓은 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4.2. 기술 및 재료에 따른 새로운 계획

한옥의 성능을 보완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실제 한옥 시공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칸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4.2.1. 단열 및 난방방식의 변화

한옥은 최근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단열이 잘되지 않는 건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창호의 경우 전통창호와 시스템창호 등 종류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겹의 창호를 사용하고 두꺼운 유리를 사용하면서 창틀 자체가 두꺼워졌다.

창호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통방식처럼 인방에 창을 맞춰 끼우고 내부에 창틀을 한 번 더 덧대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인방에 창호를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별개의 창틀을 사용하여 2중 창호를 두는 방식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인방의 두께를 두꺼워진 창틀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쪽소처럼 외부의 의장적 요소로만 남아있는 수준이다. 또한, 외부만 전통창호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시스템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외부는 한옥 고유의 입면으로 유지되지만, 내부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된 현대식의 입면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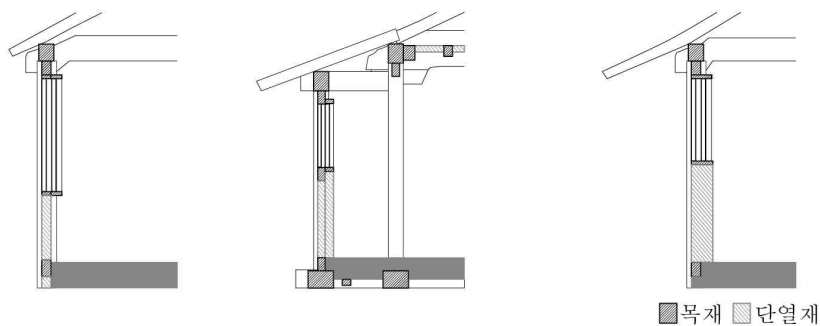


그림 4-13. 창호와 벽체 구성

한옥에서 벽은 조적조처럼 독립적으로 구축되기보다는 기둥과 인방 등에 의지하여 채우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지붕하중을 직접 받기보다는 구조의 뒤틀림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벽체에 흙을 채우는 습식공법이 대신 단열성능을 높이고 시

공성을 높이기 위해 석고보드와 30~50T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벽체의 두께 또한 창틀이 두꺼워짐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기둥을 노출하고 창틀만 내부 방향으로 돌출된 방식과 창틀 두께에 맞춰 벽체를 형성하고 기둥 부분은 노출하거나 감싸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기둥 부분을 감싸는 형태 또한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이렇게 형성된 경우에는 내부에서 목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이 상부 구조밖에 없다. 이 또한 천장에 반자를 치고 벽지 등으로 마감하여 내부를 조성하면, 내부에선 목재로 된 부분이 노출된 곳이 창호의 창살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주로 내부에서 보이는 구조가 모두 가려져서 한옥의 구조를 볼 수 없도록 구성되었다. 외부는 제도에 의해 목재가 노출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는 선택적으로 구조의 노출이 결정되었다.



그림 4-14. 내부 벽체와 천장 구성

그리고 벽체가 습식에서 건식으로 공법이 변한 것처럼 지붕 구축 방식 또한 변화하였다. 지붕의 단열은 특히 연등천장을 선호하는 건축주가 많아지면서 여러 단열재가 건물마다 실험적으로 사용되었다. 습식공법은 지붕의 하중이 무거우므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압출 보온판, 연질 단열재, 유리섬유 또는 목섬유 단열재 등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고 물매는 각재나 합판 등으로 잡은 뒤에 강회와 보토를 올리면서 하중이 비교적 가벼워졌다. 그리고 고막이 등에도 단열재를 사용하여 지붕 단열성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방수시트를 사용하여 지붕 방수 성능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능 향상으로 거실과 부엌, 식당, 복도 등 많은 부분이 연등천장으로 구성되었고, 일부는 침실도 연등천장으로 구성되었다.

근대도시한옥 중 상가용 외에 주거 전용으로 지어진 이층한옥의 지붕은 2층 부분이 대부분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다.⁶⁴⁾ 그리고 3량 구조로 5량 구조인 안채에 비해 작은 규

64) 김연주, 『1920년대~1950년대 서울지역에 지어진 주거용 2층 한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62

모로 올라갔다.⁶⁵⁾ 이는 2층을 가볍게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반해 신축도시한옥은 5량 구조와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붕 하중이 가벼워지면서 가능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5. 기둥은 가리고 연등천장으로 구성한 내부

또한, 난방 방식의 변화로 온돌이 아닌 온수 보일러가 보편화 되었다. 그에 따라 2000년 이후의 신축도시한옥에는 온수 보일러가 사용되었다. 모든 실에 난방할 수 있게 되면서 마루가 깔린 대청이었던 공간의 바닥에 보일러가 설치되었다. 그 외에도 누마루에도 보일러를 설치하여 겨울에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공간이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해지는 등, 마루 공간이 변화하였다. 즉, 바닥의 변화는 공간 활용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온돌 아궁이 설치로 낮았던 부엌의 바닥은 다른 실과 동등한 높이로 구성되었다. 일부 주택에서는 오히려 부엌이 더 높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난방설비의 발전은 2층을 거주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근대도시한옥에서 이층한옥의 바닥은 대체로 다다미를 깔고 따로 화로나 난로를 이용하여 난방 문제를 해결하였다.⁶⁶⁾ 주거를 다층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난방설비의 해결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고민은 한옥뿐 아니라 양식주택이나 일식주택에서도 나타났다.⁶⁷⁾ 대체로 2층에는 다다미가 깔렸고 거주공간보다는 입식 가구를 사용한 응접실의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신축도시한옥에서는 1층 상부의 보 또는 평방 위에 30~50mm 정도의 두께로 난방이 되는 바닥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내부 공간을 계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침실을 배치하였고 대부분 자녀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닥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입면 또한 2층의 바닥을 가리기 위해 장치가 필요하지 않

65) 김연주, 앞의 논문, 2002, p.58

66) 김연주, 앞의 논문, 2002, p.64

67) 『朝鮮と建築』에 나오는 작품들 중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작품 외에 일본인 건축가에 의한 작품에서도 다양한 난방방식이 적용, 아직 적절한 난방방식이 찾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이양, 『근대기의 한국인에 의한 2층 주택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72

았다. 그리고 1층과 2층이 동일한 너비의 칸으로 구성되면서 평면적인 입면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도에서 한옥 입면 비율에 대한 규제로 일부 난간이나 눈썹지붕이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 설치되기보다는 의장용이나 우수로부터 1층의 목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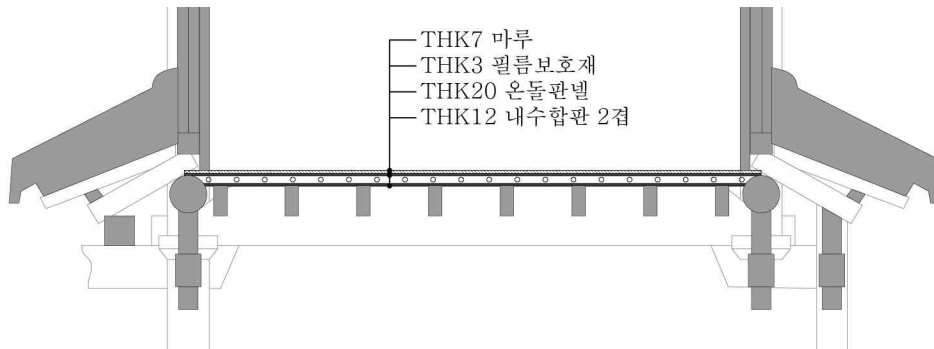


그림 4-16. 2층 바닥 구성

단열재와 난방설비의 발달은 내부 공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한옥의 특성이 약화 또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벽체 단열은 기둥과 인방의 역할을 약화하는 반면, 지붕의 단열은 오히려 상부구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난방설비의 발달은 바닥 구성을 단순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전 한옥에서 구조적인 이유로 설치되었던 요소들이 의장적 요소로 남게 되었다.

4.2.2.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구성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지하층과 기초 부분이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해졌다. 1930년대부터 무근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는 등 새로운 구법과 목구조의 결합이 시작되었다. 신축 도시한옥에서는 지하 공간을 목구조로 만들 수 없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축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였고 일부 주초석 대신 콘크리트만 사용되는 예도 나타났다.

주거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다양화되고 넓어지면서 필요한 공간이 증대되었고, 지하층은 이러한 욕구에 따라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침실, 부엌 등 평소 기거하는 공간보다는 추가 공간으로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전통적인 한옥에 있던 기능의 실보다는 새로운 기능의 실이 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지하층의 설치의 계단실의 삽입으로 연결되었다. 다락이나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형식의 좁은 계단을 근대도시한옥에서 종종 볼 수 있었지만, 따로 계단실이 설치된 예는 없었다. 신축도시한옥에서는 계단이 설치된 칸의 일부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처마 밑 칸에 하나의 실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림 4-17. 인접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한옥의 지하주차장 입구

치하여 주차공간이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지하 공간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하층이 지상층 칸의 보 방향 너비와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지하부터 평면적인 입면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부는 지상층과 다르게 공간이 구획되었다.

그리고 지하층의 슬라브는 지상부 기단의 역할도 해서 지하층을 대지 위로 노출하거나 높이를 조정하여 반지하공간을 형성하였고 이는 지상층 내부에 스킵플로어로 나타났다. 한옥비용지원심의에 따라 지하층이 노출될 수 있는 높이는 제한되어 있지만,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여 반지하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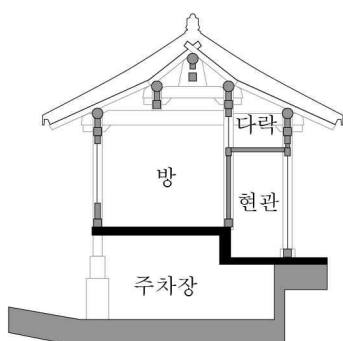


그림 4-18. 지하 공간으로 형성된 내부 스킵플로어의 단면과 외부 사진

또한, 지하층의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선근과 드라이에리어 또한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경사면을 활용한 지하층의 경우 외기가 통하는 개구부를 조

성할 수 있지만, 평지에서는 따로 공간은 조성해야 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조성된 이 공간은 외부 공간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하 외부 공간이 조성되면서 ‘마당’의 기능 및 역할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하 공간 조성 외에도 콘크리트의 사용은 내부 공간 구성에 변화를 만들었다. 근대도시한옥에서는 온돌의 사용으로 부엌의 바닥이 낮고 안방이 높게 구성되는 등, 설비에 의해 공간의 높이 차이가 형성되었다. 반면, 신축도시한옥에서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조성하면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높이 차이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는 칸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콘크리트 기초의 사용은 1층 바닥 높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초석의 높이와 관계없이 원하는 높이로 바닥을 구성하여 스킵플로어가 조성되었다. 특히 현관, 욕실, 다용도실 등은 실 기능 특성상 다른 실에 비해 낮은 바닥으로 구성되었고 대체로 한 칸이 되지 않는 면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칸의 일부가 실의 크기에 맞춰 기초의 두께를 조정하여 바닥 높이를 조성하였다. 외부 입면에서는 같은 높이의 기단 위에 동일한 크기의 주초석과 기둥이 세워지지만, 단면에서는 기초와 바닥 구성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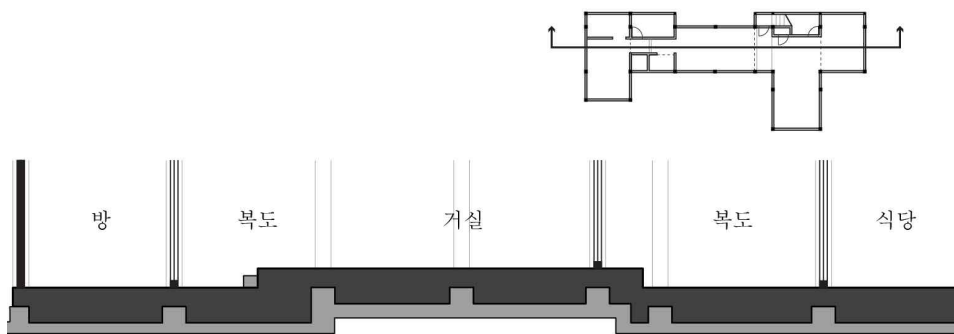


그림 4-19. 칸과 별개로 구성된 스킵플로어의 바닥 구성

콘크리트의 사용은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는 한옥의 칸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바닥의 자유로운 구성은 칸과 실의 관계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칸이 실의 단위이기보다는 전체적인 건물의 공간을 구성하는 단위로 확장되었다고 생각된다.

4.2.3. 비내력벽의 사용

연구대상의 평면에서 기둥을 세우지 않고 칸을 분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둥이 실

을 구획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이 사라지고 비내력벽이 실을 구획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중 60호에서 나타나 신축도시한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내력벽은 기둥의 위치와 관계없이 실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세워졌다. 다른 내부 벽체와 동일하게 시멘트 벽돌 또는 경골목구조 등으로 조성되었고 단열재가 사용되었다. 두께 또한 수장재와 비슷하게 조성되었다.

칸의 크기를 살펴보면, 한옥의 입면 비율을 유지하고자 도리 방향이 일정 크기로 모듈화되었고 칸의 확장은 보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도리 방향보다는 확장된 보 방향으로 칸이 분할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한옥밀집지역보다 보 방향으로 칸의 확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타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일부는 중도리와 중보 등의 상부구조와도 어긋나게 비내력벽이 세워지면서 목구조와 분리된 공간 구성도 나타났다. 이때 2층 하부이거나 반자 천장으로 된 경우에는 평천장이기 때문에 벽체 마감이 단순하지만 연등천장에서는 경사지붕이고 상부구조가 노출되어 마감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연구대상에서는 비내력벽을 서까래까지 올리거나 천장을 설치한 실에 맞춰 비내력벽을 설치하는 방식이 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연등천장으로 된 실에서 천장이 있는 실의 상부 부분까지 노출되면서 목구조와 분리된 실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림 4-20. 비내력벽으로 칸이 분할된 경우 마감 방식(호)

한 칸의 분할은 대체로 욕실이 방 또는 복도와 배치될 때와 계단과 현관이 거실 또는 복도와 배치될 때 나타났다. 복도는 실들이 내부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치에서 한 칸 또는 여러 칸을 분할 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보 방향으로 칸을 분할하여 배치되었다. 총 50호의 한옥에 복도가 사용되었고 하나의 한옥에 2개 이상의 복도가 있는 때도 있어 신축도시한옥에서 복도의 활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목구조와 공간 계획이 분리되는 현상은 내부통합화에 따른 부속실과 복도의 삽입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옥의 구조는 체별로 동일한 상부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이들이 교차하면서 꺾임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부구조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형성되어있다. 게다가 꺾임부에 부속실 여러 개가 각기 다른 크기로 배치되면서, 칸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났다. 그에 따라 목구조와 다르게 비내력벽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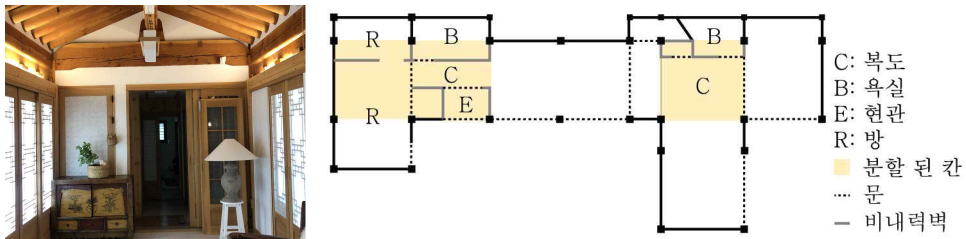


그림 4-21. 비내력벽으로 분할된 칸

그리고 몸채나 날개채 등에서도 부속실이 배치될 때, 거실, 방, 부엌 등 한 칸 이상 차지하는 실들에 비해 필요한 공간이 작는데 동일한 크기의 칸에 배치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실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면서 그들을 연결해주는 공간인 복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칸이 분할되어야 했다. 하지만 각 실마다 필요한 칸의 크기가 달랐고 그에 맞춰 칸마다 다른 목구조를 구성하는 것보다 동일한 구조로 계획한 뒤 비내력벽을 사용하여 실을 구획하는 방법이 편리하므로 목구조와 분리된 평면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4.3.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

근대 시기부터 한 주택 안에서 각 공간이 기능에 따라 분화되면서,⁶⁸⁾ 식당, 욕실, 부엌, 계단실, 다용도실 등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실들이 나타났고 기존의 실들도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었다. 2000년 이후 신축된 한옥은 이렇게 분화된 기능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한옥으로 인정하는 외관 중심의 기준이 있고, 특히 비용지원을 받는 한옥은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관은 기준 범위를 따르면서 변화한 생활을 담기 위해 공간 계획이 변화하였고 이는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4.3.1. 입면 구성의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칸의 입면 구성도 변화였다. 입식가구와 설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실의 면적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칸의 크기가 확장되어야 했다. 이는 칸의 입면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3.1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리 방향의 입면은 대지면적이나 보 방향 길이와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보 방향으로서는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경우 기타지역이 한옥밀집지역보다 1m가량 크게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칸은 몸채뿐 아니라 날개채에 있는 한옥도 있다.

한옥밀집지역 중 신축한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북촌을 중심으로 근대도시한옥의 평균 보 길이와 대지면적을 비교해보았다. 일부는 대지면적에 비해 보 길이가 매우 길거나 짧은 한옥도 일부 나타났지만 대체로 일정한 비율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보 길이도 증가하였다. 신축도시한옥은 그에 비해 면적과 크게 관계없이 보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4-22.]의 그래프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의 경우 특히 면적과 관계없이 보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대지면적의 근대도시한옥보다 더 긴 보가 사용된 한옥이 많았다. 기타지역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150~200㎡ 사이의 대지면적의 보 길이를 보면 2.6~4.9m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대지면적의 근대도시한옥과 비교해보면 250~300㎡ 사이의 대지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대도시한옥보다 신축도시한옥의 칸이 동일 대지면적 대비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68) 식탁, 소파, 세면대, 양변기, 침대 등이 각 공간에 배치되었고, 주거 공간의 기능 분화가 나타났다. 전남일, 『집』, 돌베개, 2015,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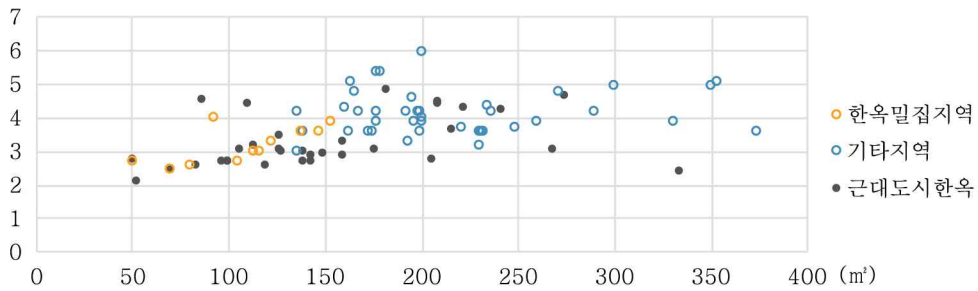


그림 4-22 근대도시한옥과 신축도시한옥의 대지면적(m²)에 따른 보 길이(m) 분포

특히 一자형과 ㄱ자형을 제외한 한옥에서는 모두 날개채만 가로변에서 보 방향의 입면이 독립적으로 노출된다. 이층한옥도 칸의 입면이 가로변에서 쉽게 보인다. 그러므로 이 칸의 비율은 외부인에게 전체적인 한옥의 크기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신축도시한옥의 날개채는 보 길이가 근대도시한옥보다 0.5m 확장되었다. 이는 부엌, 안방 등 날개채에 위치한 실의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타지역은 대부분 3m 이상으로 근대도시한옥은 3m 이하로 나타났다. 게다가 닫힌 배치를 한 한옥밀집지역과 다르게 기타지역은 열린 배치가 다수 분포하고 이층한옥이 많아, 확장된 칸이 가로변에서 잘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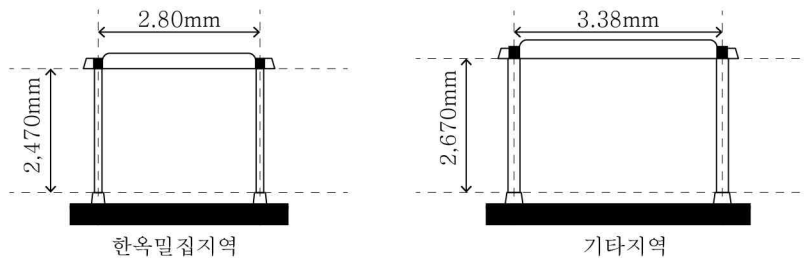


그림 4-23. 날개채의 평균 보 방향 입면 비율

또 다른 입면 구성의 변화는 처마 밑 공간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입면 규제로 인해 목 구조로 된 칸이 덧붙여 활용되었고 이는 근대도시한옥과 다른 입면을 만들었다.

그 칸의 용도를 보면 수납의 경우 전체 사례 중 24호에서 사용하였고 공간확장의 경우 37호에서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공간확장을 위해 처마 밑 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수납용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한옥밀집지역은 수납용이 17.4%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기타지역을 45.5%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공간확장의 경우 한옥밀집지역은 39.1%, 기타지역은 64.6%로 나타나 기타지역에서 처마 밑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공간확장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표 4-4. 처마 밑 칸의 용도(호)

| 지역 \ 용도 | 수납 | 공간확장 |
|---------|--------------|--------------|
| 한옥밀집지역 | 4/23(17.4%) | 9/23(39.1%) |
| 기타지역 | 20/44(45.5%) | 28/44(64.6%) |
| 합계 | 24/67(35.8%) | 37/67(55.2%) |

확장된 공간은 욕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59.5%) 욕조나 세면대 등 욕실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그다음으로는 부엌(48.6%), 계단실(35.1%), 다용도실(29.7%)과 방(29.7%)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부엌의 경우 싱크대, 냉장고 등의 부엌 가구가 배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처마 밑 칸은 사람이 움직이고 머무는 공간보다는 현대화로 인한 설비들을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처마 밑 칸에 배치된 실(호)

| 욕실 | 부엌 | 계단실 | 다용도실 | 방 | 보일러실 | 식당 | 복도 | 거실 |
|----|----|-----|------|----|------|----|----|----|
| 22 | 18 | 13 | 11 | 10 | 11 | 3 | 2 | 1 |

수납용으로 추가된 칸은 수납장치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본채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그에 반해 실 확장을 위해 설치된 칸은 내부적으로 본채의 칸을 해체하고 두 칸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퇴칸과 비슷한 너비의 칸이 덧붙은 형태로 나타났다.

두 종류의 칸은 외부에서는 다양한 구조와 크기로 나타나 입면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게다가 면적 제한으로 모든 칸에 설치될 수 없어 일부에만 설치되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불규칙한 입면이 조성되었다. 가로변으로는 설치를 제한하여 덧붙은 칸을 정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측면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즉, 가로변에서 보이는 날개채나 몸체의 보 방향 입면이 처마 밑으로 덧붙은 칸으로 인해 더 넓어 보이게 되었다.



그림 4-24. 가로변에서 보이는 처마 밑에 덧붙은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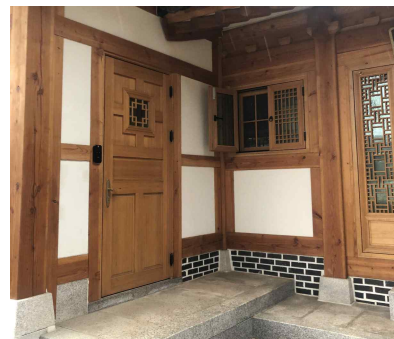


그림 4-25. 현관문과 인방의 위치

또한, 한옥에서 창호가 입면 장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창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현관은 근대도시한옥에서는 없었던 실로, 다양한 형태의 문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관의 바닥이 실내 바닥보다는 낮게 조성되기 때문에 하인방이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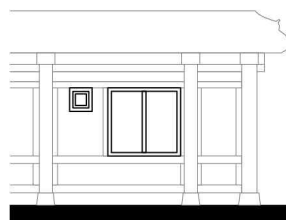
그 외에 실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와 크기의 창호가 사용되었다. 대체로 외부 공간 중 중정을 향한 입면에는 하인방부터 상인방까지의 높이를 갖는 창호가 많이 배치되었다. 특히 거실, 부엌, 식당, 복도 등 공용공간이 위치한 칸에는 4짝으로 된 창호가 설치된 곳이 많았다. 중정을 면한 방에서는 머름을 설치하고 2짝으로 된 창호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때 쪽마루가 설치된 곳도 있다. 한편 꺾음부의 입면과 중정을 바라보지 않는 입면에는 창이 작거나, 한 칸에 2개의 창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부속실들이 꺾음부 또는 건물의 뒤편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욕실이 위치한 칸에는 작은 창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지상층의 전통문양의 한식 창호보다는 일반 PVC창호가 많이 설치되었다. 이는 지하층의 외벽과 어울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상층과 비교하면 채광이 부족하여 창살이 없는 창호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26. 방, 복도, 현관, 거실, 부엌의 창호 구성



동일한 크기의 창호



다른 크기의 창호

그림 4-27. 칸 분할에 따른 입면 구성

그림 4-27. 칸 분할에 따른 입면 구성을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실 구획에 따라 칸에 하나의 창호가 한 방향으로 치우쳐 설치되거나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같은 칸에 두 개의 창호가 있을 때, 인방 위치에 맞춰 같은 높이의 창호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창호의 높이가 인방의 위치와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생활방식의 변화로 확장된 칸과 설비와 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처마 밑에 작은 칸이 덧붙으면서 입면 비율이 변형되었다. 그리고 처마 밑으로 불규칙하게 덧붙은 칸으로 인해 입면에는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조성되어 입체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정을 바라보는 칸의 입면에는 창호가 크고 넓게 설치되었지만, 그 외에는 다양한 크기의 창호가 일부분에만 설치되었다. 이렇게 창호를 설치하는 경향은 근대도시한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관문, 욕실 창호, 지하층 창호 등은 신축도시한옥에서만 나타난 유형으로 새로운 생활방식에 맞춰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3.2. 날개채의 위계 변화

한옥은 몸채, 날개채, 꺾음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남향을 하는 一자형 몸채를 기준으로 날개채가 직교하여 결합하면서 꺾음부가 형성된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축도시한옥은 하나의 一자형 한옥을 제외하고 모두 꺾음부가 있는 평면형태로 나타났다. 게다가 건물이 분리된 한옥도 ㄱ자형 두 채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하나의 채로 구성되었다.

조선 시대 주택 중에서 꺾음부를 갖는 안채는 70%로⁶⁹⁾, 대체로 대청과 안방이 몸채에 위치하고, 부엌이 안방에 연결되어 꺾음부 또는 날개채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몸채가 날개채보다 보 길이가 더 길게 구성되었고 상부구조는 몸채가 5량, 날개채가 3량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⁷⁰⁾

근대도시한옥에서도 실의 위치가 일정한 규칙 안에서 배치되었다. 몸채에는 대청을 기준으로 양옆에 방이 배치되었고, 안방 아래로 붙은 날개채에는 부엌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부엌 맞은 편에 문간과 방, 측간 등이 있는 문간채가 배치되었다. 부엌이 위치한 날개채의 보 길이가 대청이 위치한 몸채와 비슷해지나 더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몸채를 더 긴 보 칸으로 구성하였다.

표 4-6. 2000년 이전 한옥의 몸채와 날개채의 평균 보 길이

(출처: 「문화재수리보고서」 시리즈, 「중요민속자료주택실측조사보고서」 시리즈, 「문화재대관, 대한건축사협회의 「민가건축」; 송인호; 김영수, 앞의 글, p.19; 이경옥, 앞의 글, p.47 자료를 정리)

| 시대 및 지역 채 | 조선 시대 | 근대 | |
|--------------|-------|------|------|
| | | 북촌 | 청량리 |
| 몸채(m) | 3.76 | 3.29 | 3.05 |
| 날개채(m) | 3.04 | 2.95 | 2.69 |

69) 김정현, 『조선시대 주택의 꺾음부의 구조와 의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7

70) 권아송, 『조선시대 주택에서 ㄱ자형 꺾음부의 내부 공간 변화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14

상부구조는 특히 보 길이와 관계없이 몸채는 5량, 날개채는 3량이라는 규칙을 갖고 구성되었다.⁷¹⁾ 이를 통해 이전 시대의 한옥에서는 몸채와 날개채의 칸 구성에 차이를 두어 날개채보다 몸채의 위계를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축도시한옥에서는 날개채의 칸 구성이 변화하여 그 차이가 약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축도시한옥에서 채의 위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채별 보 길이와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신축도시한옥의 보 길이를 보면, 몸채의 평균 길이는 3.3m, 날개채의 평균 길이는 2.9m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날개채 중 가장 긴 보 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 3.1m로 몸채와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옥밀집지역은 평균 몸채의 보 길이가 2.9m, 가장 긴 보 칸으로 된 날개채는 2.8m로 나타나 그 차이가 더욱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지역 또한 몸채는 3.6m, 날개채는 3.4m로 나타났다. 근대도시한옥에서 그 차이가 감소한 것과 같이 신축도시한옥에서도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위치를 보면,⁷²⁾ 연구대상 중 36호인 54.5%가 몸채에만 위치하였다. 그 외에는 날개채만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으로 구성되거나 몸채와 날개채가 모두 같은 보 길이로 구성되었다. 즉, 연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수의 한옥에서 날개채가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날개채에 배치된 실의 공간이 몸채에 배치된 실과 같거나 더 넓은 너비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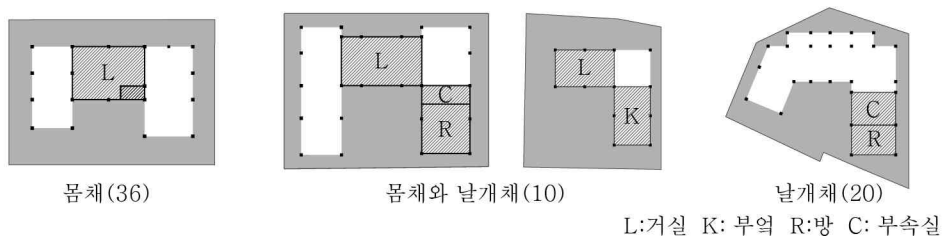


그림 4-28.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의 위치

날개채가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으로 구성된 경우에 배치된 실의 종류를 살펴보면, 안방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부엌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경우 복도가 욕실 또는 현관 등과 함께 한 칸에 구성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으며, 일부 한옥에는 거실이 날개채에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거실이 날개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몸채에 거실이 있다. 그러므로 안방, 부엌, 여러개의 부속실 등이 거실과 동일하거나 더 큰 너비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1) 송인호; 김영수, 복촌도시한옥의 지붕가구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사연구, 제14권 제4호, 2005, p.19 ; 김균인, 앞의 논문, 2015, pp.55-56

72) 전체 연구대상 67호 중 기타지역의 한 개 사례를 제외하고 보 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 66호의 사례만 살펴보았다.

표 4-7. 가장 긴 보 칸으로 구성된 날개채의 실 구성(호)

| 지역 \ 실 | 거실 | 부엌 | 방 | 안방 | 부속실 |
|--------|----|----|---|----|-----|
| 한옥밀집지역 | 4 | 4 | 4 | 6 | 2 |
| 기타지역 | 4 | 6 | 5 | 8 | 10 |
| 합계 | 8 | 10 | 9 | 14 | 12 |

한편 상부구조는 근대도시한옥과 다르게 몸채 5량, 날개채 3량의 규칙이 약해졌다. 신축도시한옥에서는 몸채와 모든 날개채가 5량과 3량인 한옥이 23호로 34.8%에 그쳤다. 오히려 몸채와 일부 또는 모든 날개채가 5량인 한옥이 35호로 50% 이상의 한옥에서 날개채가 몸채와 똑같이 구성되었다. 전체 대상 중 날개채가 3량으로만 구성된 한옥이 28호이고 5량인 한옥이 38호로 나타나 날개채의 상부구조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채의 보 길이도 증가하였지만, 상부구조가 몸채와 동일하게 5량으로 구성되는 경향 또한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몸채와 날개채의 상부구조(호)

| 날개채 \ 몸채 | 3량 | 5량 | 합계 |
|----------|----|----|----|
| 3량 | 5 | 23 | 28 |
| 5량 | 3 | 35 | 38 |
| 합계 | 8 | 58 | 66 |

한편 날개채의 상부구조가 5량일 때 배치된 실의 종류를 살펴보면, 부엌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안방과 방이 많으며 현관, 복도, 욕실 등의 부속실이 한칸에 배치된 경우도 많았다. 부엌은 식탁이 같이 배치된 DK통합형이 많았다. 날개채에 거실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부구조가 모두 5량으로 구성되었다. 부엌은 3량과 5량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안방과 부속실은 부엌보다는 3량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에 반해 방은 3량이 3배 정도 많았다. 부엌과 분리된 식당의 경우 3량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9. 상부구조가 5량인 날개채에 배치된 실(호)

| 상부구조 \ 실 | 거실 | 부엌 | 안방 | 방 | 식당 | 부속실 | 누마루 |
|----------|----|----|----|----|----|-----|-----|
| 5량 | 6 | 12 | 12 | 13 | 2 | 9 | 2 |
| 3량 | 2 | 13 | 18 | 30 | 9 | 18 | 6 |

다음은 보 길이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이 몸채에만 위치했을 때 날개채가 5량인 경우가 36.1%로 나타나 보 길이와 관계없이 날개채의 상부구조를 몸채와 똑같이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채와 날개채가 모두 같은 보 길이일 때는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5량-5량 또는 3량-3량으로 똑같이 구성하였

다. 이는 날개채와 몸채의 상부구조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구성하였던 근대도시한옥과 비교된다. 이를 통해 몸채와 날개채 사이의 위계 규칙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나 신축도시한옥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이면서 5량인 날개채는 전체 한옥 중 19호로 28.3%를 차지하고 있다. 실 구성을 살펴보면, 부엌과 안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은 거실과 방의 순서로 나타났다. 부엌, 안방, 방 등은 가장 긴 보 칸으로 구성될 때 상부구조 또한 5량으로 구성된 곳이 50%로 나타났다. 반면 거실은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부속실은 8%로 나타났다. 상부구조가 5량일 때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으로 구성된 경우, 거실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엌, 안방, 방 등은 앞의 경우와 비슷하게 절반 정도로 나타났고, 부속실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거실은 날개채에 위치하여도 가장 긴 보를 갖는 칸이면서 5량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부엌, 안방, 방 등은 선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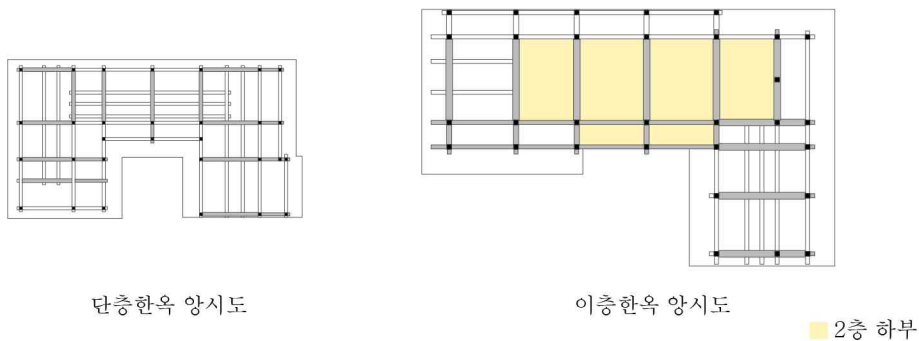


그림 4-29. 신축도시한옥의 양시도

날개채가 가장 긴 보를 갖거나 5량의 칸으로 구성된 한옥은 49호다. 이는 전체 연구대상 중 73.1%로 날개채의 칸 구성이 몸채와 비슷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가장 긴 보를 갖고 5량인 날개채는 28.3%로 높지 않지만, 그 위계가 근대도시한옥보다는 약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가장 긴 보 칸으로 구성된 날개채의 실 구성

| 날개채의 칸 구성 \ 실 | 거실 | 부엌 | 안방 | 방 | 부속실 |
|---------------|----|----|----|----|-----|
| 가장 긴 보 칸 | 8 | 10 | 14 | 9 | 12 |
| 5량 | 6 | 12 | 12 | 9 | 9 |
| 가장 긴 보 + 5량 | 5 | 6 | 6 | 4 | 1 |
| 가장 긴 보 또는 5량 | 9 | 16 | 20 | 13 | 20 |

이렇게 날개채의 칸 구성이 변화된 원인은 내부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입식 가

구들과 설비들을 방과 부엌에 배치하기 위해 보 길이가 확장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식탁이 같이 있는 부엌은 거실과 또 다른 공용공간이 되었다. 이는 부엌의 위계가 근대도시한옥과 다르게 가족모임공간으로서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몸체에 거실이 배치되는 것은 유지되었지만, 꺾음부에 복도와 화장실 등의 부속실을 두고 부엌이나 안방이 날개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의 위계에 맞춰 날개채의 보 길이와 상부구조 등 칸 구성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날개채의 변화는 한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몸체가 가장 크고 높게 구성되었는데, 신축도시한옥은 날개채가 보 방향으로 커지고 높아지면서 몸체와 같거나 더 크게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비대한 형태가 되었다. 도리 방향의 입면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보 방향으로 확장되고, 대지 안에 각 채가 최대한 공간을 채워 들어가게 되었다.

4.3.3. 내부통합화

근대도시한옥에서 안방은 식사 공간이자 가족 모임의 역할도 하는 공적 공간이면서 잠을 자는 사적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청도 모임 장소 겸 집안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 방은 고정되지 않은 좌식가구가 사용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대청과 안방이 있는 안채와 문간, 측간 등이 있는 문간채로 채 구분이 되었고, 각 채는 지붕 또는 구조적으로만 연결되었고 내부 공간은 분리되었다. 안채 또한 부엌이 실내화가 되기 전에는 날개채와 몸체의 공간은 실내로 연결되어있지 않았다. 동선은 실에서 실로 연결되었고, 마당을 중심으로 각 채가 연결되었다. 부엌과 측간 등은 신발을 신고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즉, 생활 동선이 실내외 구분 없이 이루어졌으며 각 실은 특정 용도보다는 다목적 용도의 방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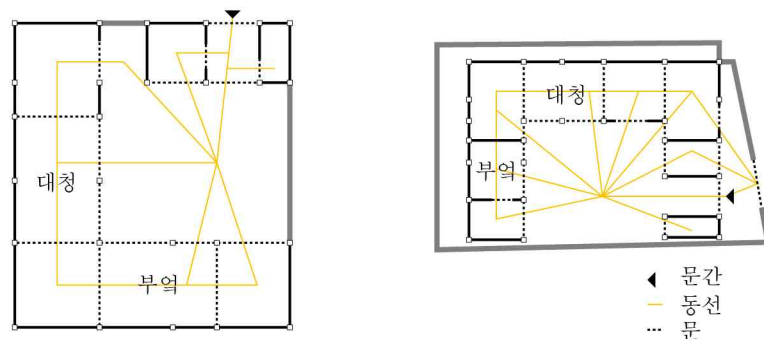


그림 4-30. 근대도시한옥의 주요 동선
(출처: 송인호, 앞의 글, p.185, p.196의 도면 재작성)

하지만 생활방식은 점차 변화하였다. 근대 시기부터 입식 가구의 도입과 함께 각 실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점차 뚜렷해졌다. 또한, 외부에 위치하였던 부엌, 욕실 등이 위생문제, 동선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 기존에는 없었던 여러 기능의 독립된 실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실이 실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선이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근대도시한옥이 개량되기 시작하였다. 마당을 실내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처마 밑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내부동선을 연결하는 등 거주자에 의해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에는 비용지원제도에 의해 오히려 형태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외형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공간만 생활방식에 최대한 맞춰 변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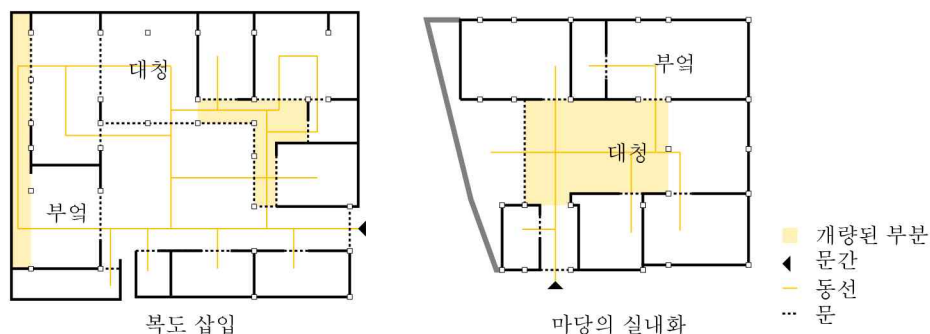


그림 4-31. 동선의 편의를 위해 개량된 근대도시한옥
(출처: 정기황, 앞의 글, p.167, p.193의 도면 재작성)

그에 반해 2000년대의 신축도시한옥은 칸의 크기부터 조합방식까지 변화된 생활방식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다양한 실이 실내로 들어왔고 내부 동선으로 연결되기 위해 하나의 채 안에 구성되었다. 안채와 문간채 등으로 분리되어있던 근대도시한옥과 같은 채 구성이 신축도시한옥에서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의 경우 6호를 제외한 61호의 한옥이 모두 하나의 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채가 분리된 6호의 한옥에서 하나는 손님방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재가 한 칸의 방으로 구성된 한옥도 있다. 이는 주생활 공간이 아니므로 부속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주생활에 필요한 부엌, 거실, 침실 등의 공간들은 본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단일채로 구성된 한옥에서는 모든 실이 하나의 채 안에서 연결되어 아파트와 같이 완전한 내부통합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신축도시한옥의 실내외 구분이 근대도시한옥보다 명확해지면서 내부 공간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근대도시한옥에서 채와 채 사이의 동선을 연결해주었던 외부 공간이 더는 생활 동선의 중심역할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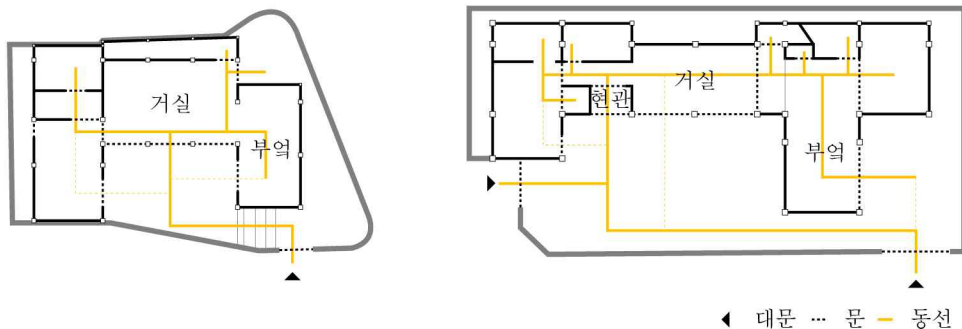


그림 4-32. 신축도시한옥의 주요 동선

모든 실이 실내로 들어오고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각 실을 연결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졌다. 침실은 개인 공간으로서 그 영역이 분명해졌고 연결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욕실과 다용도실 등의 부속실들은 기능적 특성에 따라 폐쇄적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공용공간으로서 연결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거실을 중심으로 동선이 형성되거나, 복도가 삽입되었다.

또한, 각 실의 면적이 증가하였고 도시의 특성상 한정된 대지 안에서 다양한 기능의 실들이 집약적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에 따라 단위 공간 모듈인 칸이 확장되어야 했다. 이렇게 확장된 칸에 부속실을 배치하기엔 부속실의 면적이 작았다. 그러므로 칸 전체를 활용하는 주요 실과 다르게 부속실은 칸을 분할하여 배치되었다.

부속실 중 욕실은 안방 등의 침실과 같이 배치되거나 복도로 인해 칸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방이 대체로 한 칸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부엌과 식당은 각각 칸으로 구획되거나 칸을 분할하여 배치되었는데 대체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거실과는 구분되었다. 복도는 거실을 중심으로 꺾음부와 날개채로 배치되어 여러 칸을 분할하면서 동선을 연결하였다.

주요 실들이 각각의 날개채, 지하층, 2층 등에 배치되어 공적 영역인 1층의 몸채와 구분되었다. 특히 2층 대부분이 1층 몸채의 위에 배치된 것은 거실을 중심으로 계단이 연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계획되면서 각 실이 몸채의 거실을 중심으로 연결된 다층 한옥, T자형, H자형, 자유형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도시한옥과 아파트의 공간을 공간구분론과 시각적 접근 및 노출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한 논문에서는 아파트의 거실이 근대도시한옥의 마당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⁷³⁾ 근대도시한옥의 대청과 아파트의 거실은 오히려 모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평

73) Jaepil Choi.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lan of modern apartment house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16, No.1, 1999, pp.65-77.

면에서도 볼 수 있듯 대청은 양옆의 방과 마당만 연결되었지만, 거실은 중심에 위치하여 모든 실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시각적 접근값과 노출값 또한 거실이 아파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대청은 낮게 나타났다. 즉, 공간적으로 대청과 거실은 같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반해 거실과 마당은 모든 결과가 비슷하였다. 평면에서도 보면 두 공간 모두 가장 크게 조성되어 있으며 중심에서 모든 실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즉, 근대도시한옥에서 외부 공간이었던 마당은 아파트에서 실내인 거실에서 그 역할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공간이 신축도시한옥에 적용되었고 이는 신축도시한옥이 근대도시한옥과 다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축도시한옥의 거실은 보일러가 설치되고 완전한 내부 공간으로 변화하여 대청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평면을 살펴본 결과 거실에서 모든 실로 직접 연결되어 동선의 중심공간으로 나타났다. 즉, 근대도시한옥의 대청이 두 개의 방과 마당으로만 연결되었던 것과 다르며 오히려 아파트의 거실과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도시한옥의 마당의 역할이 신축도시한옥에서는 내부로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다르게 일부 실에서는 외부 공간과 직접 연결될 수 있어 동일한 공간 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축도시한옥에서 외부 공간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근대도시한옥에서는 마당이 동선의 중심으로서 각 실로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신축도시한옥에서는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실은 내부에서만 연결되며 외부 공간을 거치지 않는다. 즉, 신축도시한옥의 외부 공간은 근대도시한옥의 마당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특히,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진입마당인 경우에는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증정은 주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정원으로 활용하는 등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외부활동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⁷⁴⁾

그리고 대체로 아파트 평면에서 거실과 부엌의 관계를 보면, 그 사이에 식탁이 있어 거실, 부엌, 식당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근대도시한옥의 평면과 비교하면 부엌의 위계가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축도시한옥에서는 이렇게 변화한 공간 구성과 칸이 결합하여 두 유형의 주거와는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공간이 배치되는 순서와 연결되는 방식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실을 구획하는 방식은 칸에 맞춰 구성되어 근대도시한옥처럼 거실과 부엌은 분리되었다. 반면 부엌과 식당은 대체로 하나로 통합된 칸에 배치되거나 칸으로 공간이 구획되었지만, 창호로 분리하지 않았고 아파트의 통합된 부엌과 식당처럼 구성되었다.

이는 초기 아파트 평면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마포아파트의 평면을 보면, 부엌이 따로 실로 구성되어 있고 문이 있으며 복도와 같은 공간을 통해 연결되었다. 이외 60

74) 현장답사를 통해 정원으로 조성한 한옥이 많이 나타났으며, 일부 거주자 인터뷰에서는 지인을 초대하여 바비큐를 하거나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등의 행위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년~70년대 아파트 평면에서도 아직 부엌은 분리되어있는데, 근대도시한옥에서 부엌이 대청보다 마당이나 안방과 바로 연결되는 것과는 다르게 공용공간과 바로 연결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점차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었고 거실로 개방되기 시작하였다.⁷⁵⁾ 그리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거실과 통합된 평면이 보편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옥의 공간구성이 ‘아파트화’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축도시한옥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다시 칸으로 인해 ‘한옥화’가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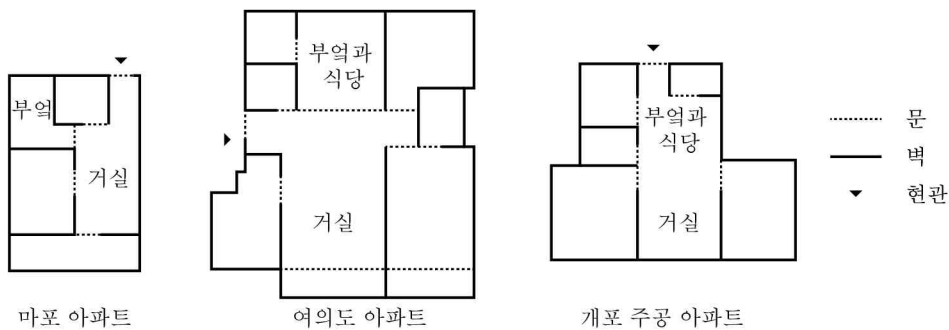


그림 4-33. 1960~70년대 아파트 평면

신축도시한옥은 내부통합화가 되면서 내부 공간구성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칸의 크기, 배치, 조합방식 등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는 외부 공간까지 영향을 미쳤다. 내부통합화로 인해 동선 연결을 위해 욕실, 계단, 복도 등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칸과 관계없이 공간이 구성되면서 칸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거실과 부엌은 아파트와 다르게 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다시 ‘한옥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형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신축도시한옥을 근대도시한옥과 다른 유형의 한옥으로 구분 지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은 두 지역 모두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인해 거실 중심에 내부통합화된 동선으로 변화하였지만, 형태적으로는 기타지역이 특히 한옥밀집지역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한옥밀집지역의 한정된 면적의 대지뿐 아니라 도시경관보전 등 제도적 제한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75) 도연정, 앞의 논문, 2018, pp.206-219.

5. 결론

2000년부터 서울의 한옥 관련 정책이 한옥의 멸실을 막기 위한 보존정책에서 개선을 통한 보전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증·개축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에 따라 한옥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속해서 한옥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었고 신축된 한옥들이 증가하였다. 신축된 한옥들은 전통목가구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둥과 상부구조로 된 공간 모듈인 칸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변화한 생활방식에 맞춰 칸의 크기, 구조, 재료 등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의 조정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신축된 주거용 도시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서울에 신축된 한옥은 제도에 따라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대지 조건 또한 다르다. 그에 따라 신축된 한옥도 다른 건축적 특성이 나타났다. 3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서울에 신축된 도시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건물의 형태, 배치방식, 내부 공간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축도시한옥은 보 방향으로 확장된 칸을 단위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었다.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과 같은 기본형 평면 외에도 T자형, H자형, ㄷ자+1칸형, 엇끼움형, 빗끼움형, 자유형 등 복합형 평면이 나타났다. 이러한 평면형태를 홑집, 퇴칸집, 겹집 등으로 구성하여 내부 공간에 기둥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지면적의 차이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보다 기타지역에서 칸 크기가 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칸수도 증가하였고 평면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상 1층으로만 구성된 한옥보다 지상 2층 또는 지하를 활용한 다층한옥이 다수 신축되었는데, 한옥밀집지역은 지하층으로만 적극적으로 확장되었고 기타지역은 지하와 2층으로의 확장이 모두 나타났다. 지하층과 2층은 1층과 다른 평면형태로 구성되었고 이층한옥은 특히 다른 평면형태의 칸 조합으로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지하층은 선큰과 드라이에리어가 같이 설치되었고, 내부 공간은 지상층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 아트리움, 다락, 스킵플로어, 처마 밑 공간 등을 활용하여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특히 기타지역의 한옥이 한옥밀집지역보다 칸이 다양한 방향으로 돌출된 입체적인 형태가 되었다.

대체로 대지 형태에 따라 평면의 형태가 결정되었고, 일부 남북방향으로 긴 대지 외에는 대부분 남향으로 건물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인접도로의 위치와 대지에 면한 정도에 따라 열린 배치와 닫힌 배치가 결정되었는데 열린 배치가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옥밀집지역은 열린 배치지만 대지면적과 지형으로 인해 폐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외부 공간은 대지와 평면의 형태에 따라 그 개수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중정 외에도 주차장, 진입마당, 선큰마당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은 기타지역보다 더 불규칙한 대지 형태와 건축선 등과 관련된 이격거리로 인해 외부 공간이 여러 개로 구성되었고, 기타지역은 주차장, 진입마당, 선큰마당 등의 다양한 종류의 외부 공간 구성과 평면형태

로 인해 여러 개로 구성되었다.

실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신축도시한옥의 내부 공간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다층한옥에서 1층은 거실, 부엌, 식당 등의 공용공간과 안방이 주로 배치되었고 2층에는 가족실과 자녀방이 배치되어 주거생활 대부분이 지상층에서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지하층은 취미공간, 주차장, 창고 등이 주로 배치되었다. 두 지역 모두 건물이 분리된 한옥은 거의 없으며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 모든 동선이 내부에서 연결되었고 기타지역은 현관이 많이 사용되었다. 대체로 한옥밀집지역은 몸체의 거실을 중심으로 날개채와 지하층으로 연결되었고 복도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기타지역 또한 몸체의 거실을 중심으로 날개채와 각 층으로 연결되었는데 복도의 사용 비율이 한옥밀집지역에 비해 높았다. 욕실, 다용도실, 현관, 복도 등의 부속실로 인해 칸이 분할되어 공간이 구성되었는데, 특히 꺾음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공용공간인 거실, 부엌, 식당은 칸과 결합하여 다양한 구성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부엌과 식당은 통합형 또는 칸 분리형으로 구성되고 거실만 완전 분리형으로 나타났다. 한옥밀집지역은 대체로 거실과 부엌만 있으며, 기타지역은 대체로 식당도 위치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신축도시한옥의 건축적 특성의 원인을 근대도시한옥과 비교하였다. 먼저 2000년 이후 시작된 한옥 관련 정책으로 인한 형태적인 제약이 이루어졌고 특히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공간을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생활방식의 변화로 내부 공간의 구성이 변화하였고 이는 형태적으로도 나타났다.

첫 번째, 제도에서는 한옥을 통해 가로 및 지역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대체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한옥밀집지역은 기존에 있는 한옥들과의 조화와 기존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기본형 평면을 권장하거나 신축 이전 건물의 배치와 규모를 따르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지역에서 대지 형태에 맞춰 평면 유형이 분포하는 것과 다르게 기본형 평면이 많이 분포하였다. 이외에 층수도 제한되면서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지상은 1층으로 구성되었다. 그에 반해 지하층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외부로 노출되는 지상부에는 새로운 형태를 지양하되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공간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로변에서는 대체로 목구조로 된 지상층만 노출되었고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처마선까지 증축한 근대도시한옥처럼 다른 재료로 된 입면은 없었다. 이는 입면 규제를 통해 기단부를 기준으로 상부는 ‘목조’로 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처마 밑 공간에도 목구조로 된 칸이 덧붙여 사용되었다. 게다가 콘크리트를 사용한 지하층 부분은 지상으로 노출 가능한 높이를 제한하거나 건물로 인지할 수 없도록 입면을 구성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1층과 2층이 동일한 규모로 건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층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구조 외에 기타재료로 된 부분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제한된 면적 안에서 칸으로만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칸이 다양한 방향으로 돌출되어 목구조가 강조된 입면으로 나타났다.

외부 공간 또한 제도에 의해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졌고, 이 공간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한옥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특히 한옥밀집지역은 건축선과 일조권에 의한 이격거리 등에 관한 법령 완화가 초기에는 신축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위치가 정해지면서 뒷마당이 형성되었다. 기타지역은 주차장, 선큰, 진입 마당 등이 형성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외부 공간의 조성은 대지 위에 칸을 배치하여 분할함으로써 형성되었다. 내부 공간의 구성으로 칸이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외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술 및 재료 또한 칸의 변화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목구조의 구조적 기능은 약화하였고 의장적인 기능은 강화하여 한옥의 특성이 변형되었다.

단열 및 난방방식은 내부 공간을 변화하였다. 벽체와 창호의 단열은 성능 향상을 위해 그 두께가 두꺼워졌다. 하지만 외부 입면 규제로 인해 내부로만 그 두께가 돌출되면서 목구조와 맞지 않는 입면이 구성되었다. 일부는 벽체와 창호 두께에 맞추어 목구조가 노출되지 않은 입면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지붕 단열 방식의 변화는 상부구조를 공간과 관계없이 내부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붕 하중이 가벼워지면서 대체로 2층이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다. 난방설비의 발달로 바닥 구성은 단순하게 형성될 수 있었고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구조적인 이유로 설치되었던 요소들이 의장적 요소로 남게 되었다.

콘크리트의 사용은 신축도시한옥의 형태와 내부 공간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다. 그 이유는 지하층과 기초 부분이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창고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서 지하층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계단실도 내부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하층의 채광과 환기를 위해 드라이에리어와 선큰이 조성될 수 있었고, 이는 지상 마당만 있던 근대도시한옥과 매우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닥 높이의 구성이 자유로워지면서 스킵플로어가 칸 구성과 관계없이 사용되었다. 특히 현관, 욕실, 다용도실 등은 다른 실에 비해 낮은 바닥으로 구성되는 실은 칸과 별개로 공간 크기에 맞춰 기초의 두께를 조정하여 바닥 높이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내력의 사용은 다양한 부속실이 필요한 면적에 맞춰 삽입되어 내부통합화가 구조적인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적인 문제는 각 실이 요구하는 면적이 다르므로 발생하게 된다. 그에 맞춰 칸마다 다른 목구조를 구성하는 것보다 동일한 구조로 계획한 뒤 비내력벽을 사용하여 실을 구획하는 방법이 편리하므로 목구조와 분리된 평면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옥의 입면 비율을 유지하고자 도리방향이 일정한 크기로 모듈화되었고 칸의 확장은 보 방향으로 이루어져 보 방향으로 칸이 분할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세 번째, 생활방식의 변화는 칸의 단위구성과 조합방식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2000년 이후 신축된 한옥은 기능에 따라 분화된 실들을 모두 내부에 구성하

고 변화한 실의 역할에 맞춰 공간이 구성되어야 했다.

우선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칸의 입면 구성이 변화하였다. 필요한 실 면적의 증가로 입면 비율이 보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비슷한 대지면적의 근대도시한옥과 비교하면 신축도시한옥은 날개채의 확장과 이중한옥으로 인해 비대해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처마 밑 공간은 수납 외에도 부속실의 공간확장을 위해 활용되었고 제도에 의해 목구조인 칸이 덧붙은 형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입면의 비율이 변형되었고 입면에서는 돌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겨났다. 그리고 지하층, 현관, 욕실, 부엌 등 실 기능에 따라 종류와 크기가 다른 창호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일부는 부속실로 인해 칸이 분할되면서 입면에 두 종류의 창호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전의 한옥에서는 몸채와 날개채의 칸 구성에 차이를 두어 날개채보다 몸채의 위계를 높였는데, 신축도시한옥에서는 그 차이가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 방향의 길이도 확장되었으며 상부구조도 몸채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안방과 부엌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로 인해 날개채의 위계 또한 변화하였고 형태적으로도 몸채와 날개채의 구분이 약해졌다.

마지막으로 각 실의 규모가 증가한 한편 다양한 기능의 실들이 한정된 대지 안에서 집약적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리고 내부에서 모든 동선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건물 하나에 모든 실이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중정을 중심으로 동선이 이루어졌던 근대도시한옥과 다르게 몸채에 있는 거실이 동선의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복도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 그에 따라 몸채를 중심으로 각 실이 날개채, 2층, 지하층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거실, 부엌, 식당의 관계를 보면 거실과 부엌은 분리되고 부엌과 식당은 통합된 형태의 평면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근대도시한옥에서 분리되어 있던 대청과 부엌이 아파트에서는 점차 공용공간을 사이에 두고 통합화가 되었는데, 다시 신축도시한옥에서는 칸으로 공간이 구축되면서 ‘한옥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축도시한옥은 변화된 기술 및 재료와 생활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칸의 조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대지 조건과 제도에 의해 그 형태가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한옥 밀집지역과 기타지역은 외형적으로는 다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지역의 한옥 모두 공통으로 한옥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목구조가 강조된 형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파트의 공간구성이 칸과 결합하면서 주요 실은 칸에 의해 구획되었지만, 부속실은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가졌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도시주거로서 한옥이 겪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던 2000년 이후 서울에 신축된 주거용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외관 유지를 조건으로 비용지원을 받은 한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며 추후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이종민 외 3인, 『2017 한옥 통계백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 전남일, 『집』, 돌베개, 2015.
- 전봉희; 이강민, 『3칸x3칸-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한국건축개념사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진』, 동녘, 2013.

학위논문

- 권아송, 『조선시대 주택에서 그자형 꺾음부의 내부 공간 변화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균언, 『1960년대 서울 정릉동의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수범, 『조선시대 주택의 다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 김연주, 『1920년대~1950년대 서울지역에 지어진 주거용 2층 한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정현, 『조선시대 주택의 꺾음부의 구조와 의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도연정, 『한국 ‘근대부엌’의 수용과 전개 - 가사노동의 합리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백선영, 한옥 멸실의 유형형태학적 해석: 서울 한옥주거지의 1970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송인호, 『都市型韓屋의 類型研究 : 1930년-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윤효중, 『서울 도시한옥 단면의 원형과 변이-북촌도시한옥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시립대, 2011.
- 정기황, 『서울 도시한옥의 적응태』, 박사논문, 서울시립대, 2016.
- 정이양, 『근대기의 한국인에 의한 2층 주택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춘환, 『1920~1960년대 서울 서대문밖 도시한옥의 평면과 구조특성』,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국내 학술지 논문

- 김영수 조준범, 「서울 안암동 도시한옥의 내외부 공간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3, 2016, pp.21-28.
- 성태원, 송인호,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9(9), 2003, pp.109-118.
- 손세관 김은하, 「도시형 한옥의 증개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회동, 용두동, 제기동을

중심으로」, 『환경과학연구』, vol.6, 1995, pp.59-74.

송인호,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연구와 실천」, 『한국건축역사학회지』, 11(2), 2002, pp.104-113.

송인호; 김영수, 북촌도시한옥의 지붕가구 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사연구, 제14권 제4호, 2005, pp.87-100.

송인호; 조준범; 김영수, 「도시건축법제가 한옥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도시한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1호, 2010, pp.171-205.

이경아, 「한옥 보전을 위한 법령 개정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5), 2014, pp.12-130.

전보림; 전봉희, 「한옥의 도시주거적 변용 연구- 서울 도시형한옥의 대지경계선과 건축외벽의 사이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0(2), 2000, pp.629-632.

조준범, 최찬환, 「필지 분합을 통해본 서울 북촌 도시조직의 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9(2), 2003, pp.125-132.

국외 학술지 논문

Jaepil Choi.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lan of modern apartment house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16, No.1, 1999, pp.65-77.

보고서

SH공사,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155개 필지 판매 완료」, 2014.

국가한옥센터, 「한옥건축기준 안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대한건축사협회, 『민가건축 I』, 보성각, 2005.

대한건축사협회, 『민가건축 II』, 보성각, 200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시리즈』, 1991~1996.

문화재청, 『중요민속자료주택실측조사보고서시리즈』, 2006~200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문」, 2016.

서울특별시, 「은평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4.

서울특별시,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 2014」, 2014.

서울시, 『경복궁서측제1종지구단위계획』, 2010.

서울시, 『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 2010.

서울시, 『부암동제1종지구단위계획』, 2004

서울특별시, 『북촌가꾸기 기본계획-한옥 실측 도면집』, 2001

서울시, 『북촌제1종지구단위계획』, 2010

서울특별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2012.

서울시,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2014.

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市街地建築取締規則」, (1913), 부령 제11호.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1935), 부령 제105호.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제령 제18호.

「주차장법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기사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Abstract

A Study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Hanok for Housing Newly Built in Seoul since 2000

Kim, SungHa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0 when hanok related policy began to change, residential hanok, newly built in Seoul, was planned according to the new lifestyle, technology, materials and policy. Hanok which is a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building is planned with 'kan'. 'Kan' was a spatial unit as well as a structural unit. However, it needed to be changed to adapt to modern lifestyl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ewly built residential hanok in Seoul by focusing on the unit composition and combinations of kan.

The hanok in Seoul can be divided into two districts according to the policy; the Hanok District and the Other Distric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wo areas, more diverse attempts and changes were made in the Other District than the Hanok District.

The size of kan is more expanded and there are various type of combinations of kan in the Other District. Also, there is an active space expansion to the basement and the second floor and the space under the eaves, split floor and etc. are used. The Hanok District, on the other hand, shows only expansion to the basement the space under the eaves and split floor are not used often.

Hanok District is composed of several outer spaces due to the irregular land form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line. On the other hand, the Other District is composed of various outdoor spaces with different functions.

The interior space is mainly composed of a living room located on the 1st floor's 'mom-chae', and various rooms are arranged in 'nalgae-chae', 2nd floor and basement. To connect all rooms inside, they are centered around the living room or corridor is used. This divided 'corner kan' regardless to the structure of it. Also, small rooms like bathroom, multi-room and etc. are inside the kan is divided regardless to the structure. Since the indoor entrance and corridor are actively used in the Other District, the division of kan is more found. And LDK which is combined with kan, created a new space composition. The living room is partitioned and separated by kan to the kitchen or dining and kitchen.

Thes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newly built residential hanok can be defined by three causes.

First, the policy focused mainly on the appearance of the hanok to improve the cityscape. Especially, in the Hanok District, regardless of the land shape, the basic planes are distributed. This is because of preservation of the cityscape of existing hanok. And the policy restricted the materials for all hanok that only wooden structure is allowed to be exposed. This results highlighted kan in form.

Second, the changes of technology and material weakened the structural function of the wooden structure and strengthened the design function of it, which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nok. As the insulation performance improved, the column was covered by the wall and kan disappeared inside but the ceiling is opened in any rooms. And the basement and free floor height configurations are made possible by the use of concrete. Also, according to the internal integration, non-bearing walls were used to compose freeplan. As a result, the rooms that do not fit the expanded cell size are configured by dividing the kan.

Finally, the change of lifestyl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unit composition and the combination method of Kan. As the required area increased and the expansion of the space under the eave, the ratio of the elevation is changed. In addition, due to the appearance of a new types of rooms and the division of kan, the types of windows have been diversified and two windows have been constructed in one kan. And the hierarchy between nalgae-chae and mom-chae has weakened because the position and role of anbang and kitchen are changed. Due to the internal integration, rooms are centered around the living room and this formed various plan typ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room and the kitchen, which was integrated in the apartment, was separated again in conjunction with kan in the newly built hanok.

There has been various adjustments of kan to accommodate the changed

technology, materials and lifestyle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form was limited by site conditions and the policy.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the wooden structure, kan is emphasized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nok. And internally, the space composition of apartment is combined with 'Khan'. While the main room was partitioned by kan, the small rooms are freely planned from structure. This phenomenon is a part of the transitional changes that hanok is experiencing.

Keywords : Hanok, Newly Built Urban Hanok, Residential Hanok, Hanok District, Eunpyeong Hanok Village, Kan

Student Number : 2017-23996